금주의 법구-〈법구경〉
욕망의 숲을 자르고
욕망에서 벗어난 자가 돼라.
그리고 영원한 자유를 찾아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69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3년 음력 10월 24일) 2019년 11월 20일 수요일

“소통·화합·협력으로 ‘열린 비구니회’ 운영”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제12대 회장 본각 스님 취임



11월 13일 서울 전국비구니회관서
1000여 사부대중 운집해 축하인사
복지·교육·세계화 등 과제로 제시
강남구에 백미 전달해 자비나눔도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소통과 화합 그리고 협력이라는 가치가 비구니승가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중공의에 의해 운영되는 열려있는 전국비구니회, 6천여 비구니스님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전국비구니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제12대 회장 본각 스님〈사진〉이 11월 13일 서울 일원동 전국비구니회관서 열린 취임법회를 통해 이 같은 취임 일성을 했다. 앞서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비구니승가의 파열음을 덮고, 모든 비구니스님들의 협력을 통해 전국비구니회 도약에 나서겠다는 포부다.

이날 본각 스님은 복지체계 보완·인재육성·대사회활동·한국불교 세계화라는 4대 과제를 제시하면서 비구니승가의 법맥을 면면히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본각 스님은 “안정적인 수행환경은 ‘전법실현과 불법홍포’라는 출가 초발심을 지켜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의료서비스와 노후주거 등에서 소외된 비구니스님들의 고충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각종 연수와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해 초심행자와 사미니의 교육환경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본각 스님은 또한 “사찰음식, 템플스테이의 활약을 계기로 세계의 주목을 받는 비구니스님들의 역사를 조명하는 각종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것 ”이라며 “장엄한 과업은 저 혼자의 힘으로는 부족하다. 같은 곳을 향해 나아갈 든든한 도반이 필요하다. 제가 가고자 하는 길에 관심과 격려를, 미전한 점에는 애정 어린 비판과 경책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치사를 통해 “본각 스님은 수행자뿐만 아니라 교육자로서 경험을 바탕으로 4년간 비구니승가의 화합과 변화를 이끌어 낼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다”며 “제12대 전국비구니회가 비구니승가 앞에 놓인 난제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것이라고 기대한다. 총무원장으로서 비구니스님들과 항상 소통하고 어려운 점을 경청해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본각 스님 취임을 축하했다.

동국대 이사장 법산 스님과 비구니 원로회 부의장 일법 스님은 본각 스님에게 4년간의 소임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알리고, 이로써 한국불교 발전의 한 축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산 스님은 “본각 스님은 평소 승가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화엄 공부에 매진한 수행자이자 학자, 존경받는 지도자로 살아왔다”며 “비구니스님들이 더욱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말했다.

이어 일법 스님은 “혼탁한 세상의 가치를 바로잡고 부처님 가르침으로 선도해 한국불교 발전의 한 축이 되도록 정진하자”고 강조했다.

이외에 2015년 한일 반가사유상 교류로 인연을 맺은 일본 쥬규지(中宮寺) 주지 히노니시고우손 스님, 대만불교 비구니협진회 초대회장 경정 스님과 현 회장 상로 스님, 박양우 문체부장관(이우성 종무실장 대독), 주호영 국회 정각회 명예회장, 전현희 강남구 국회의원도 축사에서 전국비구니회 발전을 기원했다.

전국비구니회는 이날 제12대 회장 취임법회를 기념하며 강남구에 쌀 3000㎏을 기탁하며 자비행을 실천, 겨울에 접어드는 길목에서 지역사회에 훈기를 불어넣었다.

취임법회에는 금강선원장 혜거 스님과 원로의원 일면 스님, 학교법인 능인학원 이사장 도진 스님, 군종교구장 혜자 스님, 중앙승가대 총장 원종 스님, 비구니회 원로스님들, 일본 중궁사와 대만 협진회 스님 등 승가에서 1000여 대중이 참석했다. 또한 주호영 국회 정각회 명예회장, 박양우 문체부장관, 정순균 강남구청장과 법륭사·금륜사 대중이 자리했다.

한편 본각 스님 회장 취임에 앞서 선거 경쟁후보였던 前회장 육문 스님과 본각 스님 학력의혹을 제기한 상덕 스님이 비구니회 화합을 강조하는 입장문을 내면서 비구니계는 빠르게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육문·상덕 스님은 11일 “돌이켜보면 서로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을 대중 상호간에 반목하게 한 것은 지혜가 없고 부덕한 소치라고 생각한다”며 “이제 관용과 용서의 갈림길이란 선착장에서 자비의 바다로 함께 항해해 나갈 시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배는 앞에서 이끌고 후배는 뒤에서 따르며, 서로 실천하고 격려와 동참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신앙의 중심 ‘불사리’ 제자리로 환지본처하는 불사리(佛舍利)를 한 자리에서 친견할 수 있는 마지막 친견 기회가 열렸다.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관장 탄문)은 11월 12일 국립박물관으로부터 장기대여한 사리 총 82과를 조계사 대웅전에 봉안, 고불하는 의식을 거행했다. 사진은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사리를 조계사 대웅전으로 이운하는 대중들의 모습이다. 이날 봉안된 불사리는 12월 18일까지 공개 후 사찰로 돌아간다. 글=노덕현 기자·사진=박재완 기자

‘13세기 금속활자’ 개성 만월대서 발굴

국립문화재硏·남북역사학자協 심포지엄서 조사 결과 발표

2017년 北 발굴서 금속활자 청자접시에 박힌 채 발굴돼 ‘고금상정예문’ 시기로 추정



2017년 북한 학자들이 개경 만월대서 발굴한 금속활자 ‘성할 선.’ 출토 당시 청자접시에 박혀 있었다. 13세기 사용된 고려 금속활자로 추정된다.

13세기에 사용된 금속활자가 고려 도성 개경 만월대 발굴조사 중 출토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금속활자로 간행된 최초의 책인 〈고금상정예문〉(1234~1241년) 및 〈남명천화상송증도가〉(1239년)와 같은 시기인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최종덕), 남북역사학자협의회(위원장 홍순권), 고려사학회(회장 한철호)는 11월 15일 고려대 국제관에서 ‘고려 도성 개경 궁성 만월대’ 학술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최광식 고려대 교수는 ‘개성 만월대(고려왕궁) 발굴조사의 성과와 과제 기조 강연’을 통해 남북한이 공동 발굴해 온 만월대 발굴 조사 내용을 공개했다.

최 교수에 따르면 남북관계가 경색됐던 2017년 북한의 학자들이 진행한 단독 발굴조사에서 금속활자 ‘성할 선(僐)’자 1점이 확인됐다. 새로 발굴된 금속활자는 가로 1.174cm, 세로 11.64cm, 높이 0.68cm로 출토 당시 묻혀있던 13세기 청자 속에 박혀있었다.

최 교수는 “2015년에 금속활자가 출토된 지점과 가까운 지점에서 2016년에 금속활자 4점, 2017년에 금속활자 1점이 잇달아 출토됐다. 성분 분석 결과 재질은 모두 같은 청동이었다. 2017년 출토 금속활자는 청자접시편과 함께 출토됐는데 이는 고려 중기 양식을 가졌다”면서 “이를 통해 북한 학자들은 금속활자의 조성 연대를 고려청자가 제작된 12~13세기로 확정하고 있다. 이는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보다 200여 년 앞서 금속활자를 제작했다는 명확한 근거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속활자는 모두 근접한 공간에서 출토됐으므로 정밀한 조사가 이뤄진다면 더 많은 금속활자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국제학계에 소개한다면 세계 학계가 주목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개성 만월대 출토 금속활자의 가치’를 발표한 유부현 대진대 교수는 출토된 금속활자가 “국가가 주도해 만든 최고 수준의 활자”로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유 교수는 “만월대 출토 금속활자는 고려가 명실상부한 금속활자 발명국임을 입증해준다”면서 “고려 금속활자를 연구하는데 시금석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고려의 활자 관리기관에 보관되고 있었던 활자로 추정된다. 앞으로 고려 금속활자의 대량 출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고려 개경의 문화유산과 보존정책의 변화과정(이상준, 국립문화재연구소) △고려 개경의 도성 구조와 궁성(김창현, 고려대) △개성 고려궁성 조사연구 성과와 향후과제(조은경, 국립문화재연구소) △고려 본궐 배치체계와 주요전각 위치 재검토(남창근, 남북역사학자협의회) △개성 만월대 출토 청자 유형과 특징(박지영, 국립문화재연구소) 등이 발표됐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제49회
통도사 화엄산림 대법회

입재 2019. 11. 27(수) ~
회향 2019. 12. 25(수)
장소 설법전

세계문화유산 영축총림 통도사 WORLD HERITAGE TONGDOSA



동참금
영 가 동참금 | 1위당 2만원
온산림 동참금 | 20만원
반산림 동참금 | 10만원

교통편
대중교통 | 부산 노포동 종합터미널
울산 시외버스터미널
동대구 성남고속터미널
승 용 차 | 경부고속도로 통도IC 통과 후 통도사로 진입

문 의
기도접수처(화엄전) | Tel. 055)381-1288
Fax. 055)372-7010

www.tongdosa.or.kr

새 시대 수행결사 막 오르다

키워드로 본 상월선원 천막결사… 11월 11일 입재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기 2563년 동안거 결제를 맞아 전국 선원에서 일제히 안거가 시작된 가운데 한국불교 최초의 동안거 천막결사도 시작됐다. 위례 상월선원 천막결사 대중은 11월 11일 결사현장에서 안거 입재에 들었다. 천막결사는 3개월간 폐관 수행으로 외부와 접촉을 끊은 채 묵언으로 하루 14시간 이상 수행하게 된다. 이번 상월선원 천막결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결사란 평가를 받고 있다.

1 이판사판 '한판' 결사

위례 상월선원 천막결사 대중은 11월 10일 입재 전날 결사 외호대중과의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이날 만남의 자리에는 결사대중으로 참여하는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성곡, 무연, 호산, 재현, 심우, 진각, 도림, 인산 스님 등 9명의 대중 스님들과 총도감 혜일 스님, 원명, 환풍, 담화, 가섭, 탄문, 법해 스님, 이기흥 중앙신도회장, 윤성이 동국대 총장 등 출재가를 막론한 외호대중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만남에서 결사 지객을 맡은 수국사 주지 호산 스님은 "이번 결사는 이판과 사판이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수행정진하는 한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결사에는 대표적인 사판승으로 꼽히는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수좌 스님으로 현재 조계종 중앙종회 사무처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는 호산 스님 등이 함께 참여했다. 폐관 수련이지만 천막법당 내에서는 함께 경책하며 수행하게 된다. 그동안 다양한 수행정진은 산중선원과 사찰의 수행가풍을 높였지만 이번 결사서는 실질적인 사찰 행정을 담당하는 스님들이 직 · 간접적으로 참여하며 향후 수행가풍을 사찰 일선에서의 포교와 전법 등으로 이어지게 할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2 대중동참 '열린' 결사

이번 상월선원 천막결사는 스님들만의 결사가 아닌 대중이 함께 하는 결사란 점이서 그동안 한국불교의 다른 결사와 차이점이 있다. 상월선원 천막법당 옆에는 천막결사 체험동이 준비되고 있다. 체험동은 결사대중이 정진하는 천막법당과 비슷한 조건으로 4~5명이 정진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2박 3일, 일주일 등 다양한 동참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외호대중 총도감 혜일 스님을 중심으로 모색 중이다. 현재까지 40여 명이 넘는 재가신도들이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며 11월 16일 첫 정진과 함께 토요정진단으로 이름하여 재가신도들의 입방이 이뤄질 예정이다.



상월선원 동안거 천막결사에 참여하는 9명의 스님들. 3개월간 외부와 접촉이 차단된 채 1일 1식하며 정진한다.

이와 함께 상월선원 천막법당 앞에는 기도실이 마련돼 있다. 스님들의 폐관 수련과 함께 재가자들의 기도정진도 함께 진행된다. 11월 14일에는 서울 봉은사 대중이 기도와 함께 봉은사서 진행해 오던 목요음악회도 함께 기도실에서 진행했다.

3 유튜브 '디지털' 결사

다른 결사와 다르게 이번 천막결사는 포교와 전법에까지 영향이 미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도입되고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유튜브와 네이버 밴드를 통한 디지털 미디어의 활용이다. 이러한 소통은 디지털 기록으로 남아 또 다른 가치를 지닐 것으로 예상된다. 상월선원 천막결사는 지난달 유튜브에 '천막결사 상월선원' 채널을 열었다. 입재 전부터 천막결사 준비 과정과 결사 대중 스님들의 인터뷰, 기도동참 안내, 상월선원 찾아오는 길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구독자는 320여 명 수준이지만 점차 수가 늘고 있다. 네이버 밴드 '상월선원'은 유튜브에서 전하지 못한 교계, 일반언론의 보도내용과 함께 댓글을 통한 대중들의 의견을 받고 있다. 현재 600여명의 대중들이 참여해 결사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천막결사 외호대중으로 참여하는 황순일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는 "불교는 출가자 감소 등 위기에 처해있다. 시대 흐름과 호흡하는 한국불교 중흥의 촉발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번 결사가 나왔다"며 "디지털 기록으로 결사의 의미를 새롭게 했다는 것과 사판 스님들도 함께 수행을 하며 승단에 수행가풍 진작이란 바람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본다. 수행과 신행, 전법의 새로운 바람이 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양사 주지 "총림 해제 이해 안 돼"

중앙종회 고불총림 해제 결의에 입장 밝혀

백양사 주지 토진 스님이 조계종 중앙종회의 고불총림 해제 결의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총림 해제 안건은 시급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이 아니라는 게 요지다.

토진 스님은 11월 10일 '고불총림 백양사의 총림 해제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중앙종무기관을 비롯한 각 기관에 배포했다. 토진 스님은 먼저 백양사 총림 해제 결정에 있어 중앙종회와의 공감대가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토진 스님에 따르면 백양사 율학승가대학원은 조계종 교육원으로부터 인정받았다. 3명의 교수진과 학인 스님들이 상주하고 있어 운영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10월 22일 임회 및 교구종회를 통해 율학승가대학원을 동안거 해제 후인 2020년 3월 청류암으로 이전키로 했다는 게 토진 스님 설명이다.

토진 스님은 "현재 청류암은 관음전 수리공사가 진행 중이고, 동안거가 임박한 이유로 안거 해제 후 율학승가대학을 이전키로 한 것"이라면서 "백양사 총림 해제 안건은 시급하게 결정할 사안이 아님에도, 11월 6일 긴급 발의해 신속하게 처리했다. 이는 백양사와 협의가 없었으며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충분히 개선 의지가 있고 개선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총무원이 요청한 시한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총림 해제를 결정한 배경을 이해할 수 없다"며 "백양사 총림 해제 건이 승가 본연의 화합정신에 입각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원만하게 해결되길 발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백양사의 총림 해제는 중앙종회 결의에 따라 11월 6일자로 적용됐다. 이에 따른 별도의 행정절차가 없기 때문에 백양사가 다시 총림이 되기 위해선 총림 지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윤호섭 기자

조계종 총무원 국장단 일부 인사 단행

총무원장 원행 스님, 11월 13일 임명장 수여

감사국장 범종 · 사회국장 혜도
호법국장 법오 · 상임감찰 여여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총무원을 비롯해 산하단체 국장단 일부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감사국장 범종 스님, 문화국장 향림 스님, 사회국장 혜도 스님, 호법국장 법오 스님, 상임감찰 여여 스님, 조사과장 덕엄 스님,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 우석 스님이 임명됐다.

원행 스님은 11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서 각 스님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종단발전을 위해 허리역할을 잘해주길 바란다. 마음을 한층 더 내서 종도들과 사부대중에게 감동을 주는 일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감사국장 범종 스님은 근일 스님을 은사로 1997년 수계했으며 부석사 봉황선원, 고운사 고금당선원 등에서 안거수행했다. 총무원 홍보국장, 기획국장, 문화국장, 호법국장,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업국장과 안동 광흥사 주지를 역임하고, 현재 서울 혜광사 주지를 맡고 있다.

사회국장 혜도 스님은 세광 스님을 은사로 2003년 수계했다. 송광사 승가대학, 실상사 화엄승가대학원, 봉선사 능엄승가대학원을 졸업했다.

호법국장 법오 스님은 보선 스님을 은사로 1996년 수계했다. 봉암사 태고선원, 고운사 고금당선원, 고불총림선원, 상원사 청량선원, 대흥사 동국선원 등에서 안거수행했다. 쌍계사 주지, 불교중앙박물관 사무국장, 기획실 감사국장을 역임하고 현재 강진 무위사 주지를 맡고 있다.

상임감찰 여여 스님은 효종 스님을 은사로 2001년 수계했다. 동화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고불총림선원, 벽송사 벽송선원, 팔공총림선원 등에서 안거수행했다. 호법부 조사과장을 역임했다.

조사과장 덕엄 스님은 정념 스님을 은사로 2006년 수계했다. 중앙승가대를 졸업하고 복천암선원서 안거수행했으며, 총무원 사서실 사서를 역임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 우석 스님은 종삼 스님을 은사로 1992년 수계했다. 해인총림선원에서 안거수행했으며, 제14대 중앙종회의원 및 사성암 · 향일암 주지를 역임했다. 현재 제17대 중앙종회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윤호섭 기자

조계총림, 불자들 '안심입명처' 발원

송광사 제7대 방장 현봉 스님
11월 11일 결제일 승좌법회

조계총림 송광사 제7대 방장에 추대된 현봉 스님이 총림을 불자들의 안심입명처가 되도록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순천 송광사(주지 진화)는 11월 11일 동안거 결제를 맞아 교구말사 스님 200여 명과 신도 등 1000여 사부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제7대 방장 남은당 현봉대선사 취임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이정현 국회의원,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을 비롯한 지역사회와 불교계 인사들이 참석해 현봉 스님의 승좌를 축하했다.

승좌법회는 경내 사물인 법고와 명종을 시작으로 불교의례, 고불문, 육법공양, 헌향, 행장소개에 이어 청법가, 승좌, 법장봉정, 불자봉정, 법어, 축하공연이 진행됐다. 이어 전체 대중은 사시마지와 축원, 사홍서원으로 승좌법회를 마무리했다.


송광사 방장 승좌법회에서 현봉 스님이 동안거 결제법문을 하고 있다.

현봉 스님은 법문을 통해 총림의 화합과 대중 개개인의 부단한 수행을 당부했다. 스님은 "이제 우리 총림 대중은 주장자 하나에 망상과 시비, 갈등을 모두 거두고 하나 되며 이를 의지해 절차탁마하자"면서 "조계총림의 숲에서 각자의 소임을 다하고 각각 자기 빛깔의 우담바라를 피워내는 총림을 만들어 불자들의 안심입명처가 되도록 정진하자"고 주문했다.

이어 스님은 "간밤에 조계산에는 먹구름이 끼고 천둥번개가 치면서 많은 폭우가 쏟아졌지만 새벽예불시간이 되니 밝은 달이 나타나면서 온 도량을 훤하게 비춘 것처럼 불자가 시비분별 가려내고 나니 산은 높고 물은 길게 흘러간다"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사부대중을 위해서 진리의 주장자와 불자를 대중에게 봉정하오니 제각기 이를 의지해 수행하면서 부디 헛발을 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설했다.

법문에 앞서 조계총림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법장(法杖)과 불자(拂子)를 유나 영선 스님과 주지 진화 스님이 각각 봉정했다.

송광사는 승좌법회를 시작으로 이번 동안거 선원 대중 20명을 포함한 정진대중과 외호대중 등 총 123명의 총림 대중이 결제에 들어갔다. 방장 현봉 스님은 삼일암에 주석하며 총림 대중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일상 속에서 조석으로 써야하는 필수생필품인 비누(BLOOD MATE®), 치약(ORAL MATE®)

원래의 세정목적 외에 별도의 추가 부담없이
대장균(식중독균), 포도상구균(화농성세균) 99.9% 정균 감소 가능과 탈취 75%,
음이온 134cc, 원적외선방사 90.2% 의 기능으로

BLOOD MATE®(비누)는 아토피, 무좀, 비듬, 발뒷굼치각질, 체취 등 각종 피부질환을 없애주고, 특히 연전현상의 엉켜있는 적혈구가 정상화되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므로 허리, 목, 어깨의 통증을 개선하는 효과



BLOOD MATE® ●강비누:120g 개당 25,000원 ●순비누:120g 개당 10,000원

ORAL MATE®(치약)는 지구상에 살고있는 모든 사람들은 양치후 뱉어내고 구강건강을 위해 별도로 잇몸을 관리하고 있으나
ORAL MATE®(치약)는 양치후 뱉어내지 않고 먹으면 식중독, 배탈, 설사가 없으며
과식, 과음으로 속이 불편할때 양치후 먹으면 빨리 속이 편안해지고 술이 깨면서 정신이 맑아지며
특히 구강건강 (잇몸 붓는것, 피나는것, 아픈것, 이시린것 등) 은 기본이고 잇몸이 튼튼하고 치태가 끼지 않고 구취가 없으며 하루종일 입안이 개운합니다.

위와같이 BLOOD MATE®, ORAL MATE®가 별도의 추가 부담없이 공산품인 세정용 비누가 피부, 세포를 건강하게,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한다.
의약외품인 치약이 배탈, 설사, 식중독이 없어지고 구강건강을 지켜준다면
이는 식약처가 과대, 과잉광고로 단속을 하여 생산활동을 막을것이 아니라 진위를 확인하여 오히려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적극지원, 보호, 육성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요 국가 산업발전, 해외수출 등 국익에 도움이 되는 길일 것입니다.

ORAL MATE® 치약 120g 할인가 개당 15,000원

㈜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

자비사상 실천 20년, 천태 교화 밑거름

천태종복지재단 설립 20주년, 걸어온 길은?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1999년 IMF 외환위기 속에서 국가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나눔과 봉사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설립된 천태종복지재단이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천태종복지재단은 천태종의 3대 지표인 애국불교 · 생활불교 · 대중불교를 통해 지역밀착형 사회복지 사업을 개발하고, 생명과 환경이 존중되는 행복공동체를 만들고자 설립됐다.

1999년 10월 보건복지부 인가를 받은 뒤 춘천동부노인복지관과 새싹어린이집을 위탁하면서 본격적인 불교복지 확산에 나선 천태종복지재단은 현재 전국적으로 종합복지관 · 노인복지관 14곳, 노인요양원 6곳, 어린이집 11곳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전국에서 800여 명이 복지재단 임직원들이 지역사회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힘쓰고 있다.

복지재단 설립 당시 천태종 종정 도용스님은 "새 세기의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종단이 적극적인 중생구제 활동에 나서서 갖가지 사회적 질환을 치유해야 한다"는 교시를 내리면서 복지기금 5억 원을 출연했다. 아울러 당시 총무원장이었던 재단 이사장 운덕 스님은 "외형적인 성장보다 삶의 질을 향상케 하는 내면적 발전을 위하겠다"며 불교복지사업 비전을 밝혔다. 이어 서울 우면산 관문사에 재단사무국을 두고, 부산 삼광사와 대구 대성사에는 지역사무소를 설치했다.

춘천시니어클럽, 강원도노인보호전문기관, 단양노인복지관 등 주로 강원 · 충북지역에서 복지사업을 전개해온 천태종복지재단이 전국단위로 성장하게 된 계기는 설립 10년이 지난 2009년 서울 강북노인종합복지관 수탁이다. 이는 복지재단의 첫 종합복지관 수탁 사례로, 이후 서울서 송파노인전문요양원과 우면종합사회복지관, 분당 청솔종합사회복지관 등을 수탁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천태종복지재단이 설립 20주년을 맞아 12월 4일 기념식을 개최한다. 사진은 최근 태풍 미탁의 피해를 입은 지역 복구를 위해 재단 임직원들이 활동하는 모습.

IMF 외환위기 국난극복 위해
지역밀착형 사회복지사업 전개
전국 31개 기관 운영하며 성장
12월 4일 단양서 20주년 기념

2017년 9월에는 복지재단 부산지부를 개소, 삼광사에 사무소를 두고 보다 적극적인 사회복지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8년 1월 서구노인복지관을 수탁한 데 이어 부산진구 가야동에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까지 운영하게 됐다. 올해에는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을 수탁하고, '통일복지국가의 로드맵과 종교복지재단의 과제'라는 주제로 천태복지 학술대회를 여는 등 1차적인 복지서비스를 넘어 종단과 국가발전을 위한 복지전략까지 구상하고 있다.

천태종복지재단 20년 연혁

- 1999 복지재단 인가
  춘천동부노인복지관 위탁
- 2002 춘천시니어클럽 지정
- 2004 강원도노인보호기관 위탁
- 2007 단양노인 · 장애인복지관 위탁
- 2009 서울 강북노인종합복지관 위탁
  저소득 조손가정 생계비 지원
- 2011 서울 우면종합복지관 위탁
- 2012 분당 청솔종합복지관 위탁
- 2016 압구정노인복지센터 위탁
  제1회 천태복지 학술대회
- 2017 복지재단 부산지부 개소
- 2019 마산노인종합복지관 위탁
  현재 전국 31개 기관 운영

설립 20주년이 된 천태종 복지재단은 △노인복지사업 △아동 · 청소년 지원사업 △저소득층 지원사업 △사회복지조사 연구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불교복지의 한 축을 담당하는 대형 재단으로 성장했다.

이 같은 성과를 기념하기 위해 천태종복지재단은 오는 12월 4일 오전 11시 30분 단양 대명리조트 2층 도담삼봉홀에서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기념식에서는 20년의 역사와 성과를 돌아보고, 우수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를 표창한다. 또한 10년 근속 종사자와 유공자, 우수 직원에게도 시상이 이뤄진다. 기념식이 끝난 뒤에는 20주년 각 시설별 기념영상도 상영된다.

천태종복지재단 측은 "창립 20주년을 맞아 재단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고, 대 · 내외적 업적과 위상을 재조명하면서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재단이 앞으로 더욱 합심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용주사, 연쇄살인 피해자 넋 달랜다

11월 23일 관음전서 합동위령재

효찰 대본산 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주지 성법)가 화성연쇄살인사건 피해자들의 고혼을 위로하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위령재를 봉행한다.

용주사는 11월 23일 오전 9시 30분 경내 관음전에서 '화성연쇄살인 피해자를 위한 합동위령재'를 봉행한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지난 1986년 9월부터 1991년 4월까지 6년 동안 경기도 화성시 태안과 정남, 팔탄, 동탄 등 4개 읍면에서 초등학생부터 70대 할머니까지 무차별적으로 살인한 사건이다.

관내 기관 등 500여 명 참여
"고혼들 극락왕생 기원 · 추모"

사건이 일어난 지 33년이 지난 올해 9월 당시의 증거물에서 검출된 DNA와 유력용의자의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특히 유력용의자의 자백 등이 이어지면서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게 되고 유력용의자를 중심으로 진범을 잡기 위한 수사가 진행중이다.

용주사가 봉행하는 합동위령재는 경기도와 화성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등 관내 유관기관과 지역 주민 등 500여 명이 동참할 예정이다.

합동위령재는 1, 2부로 나눠 진행된다.

제1부에는 인로왕보살 등 제불보살을 법단에 모시는 시련, 피해자 고혼들을 영단에 모시고 천도의식을 고하는 대령, 고혼을 깨끗이 씻고 정화하는 관욕의식 등이 진행된다.

제2부에서는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화성시장, 경기남부경찰청장 등 유관기관장의 추모사와 조사, 제2교구본사 용주사 주지 성법 스님의 천도법문 등이 이뤄진다. 또한 피해 영령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기 위한 용주사 본말사 주지 스님들의 천도염불과 추모의식도 진행된다.

용주사 주지 성법 스님은 "DNA감식을 통하여 유력한 용의자가 밝혀졌고 또한 그 사건에 대한 용의자의 자백이 진행되어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고 있다"면서 "이번 위령재를 통해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 고혼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추모하며, 피해자 가족들을 위로하고자 한다. 다시는 이런 끔찍한 살인사건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되기를 국민들과 함께 기원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자전거로 배가 된 네팔청소년 '행복'

날마다좋은날, 네팔 오지 학교
행복자전거 210대 전달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사단법인 날마다좋은날(이사장 이기흥)과 한국자비공덕회(회장 지상)는 11월 3~5일 네팔 동부오지 자파(Jhapa)지역에 위치한 거우라다허 지방자치단체(Gauradaha Municipality) 소속 8개 학교에 행복자전거 210대와 컴퓨터 65대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네팔지방정부 1도(총 7개도) 내무 · 법무장관(Minister of Internal Affairs & Law) 히크머트 버하두르 카르키(Hikmat Bahadur Kariki), 로히트 샤흐(Rohit Shah) 거우라다허 지방단체장과 이 지역 학생, 학부형 등 많은 현지 주민들이 참석했다.

카르키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50여 년 전 저희가 식량을 지원했던 대한민국으로부터 이제 저희가 부처님의 인연과 케이피 시토울라 씨의 가교역할로 지원을 받고 있다. 소중한 후원에 항상 감사한 마음이며 한국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지상 스님은 "이번 행복자전거는 먼 거리를 걸어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위하여 마련했지만 모두에게 전달을 하지 못해 미안하고 안타깝다. 그러나 멀리서 걸어서 다니는 친구들을 먼저 배려한 것이니 자전거를 받지 못한 학생들의 넓은 이해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힘이 닿는 대로 장학생 수를 늘려가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돕겠다고 약속했다.



네팔 자파지역 8개 학교 학생들이 행복 자전거를 타고 밝게 웃고 있다.

이번 행복자전거 나눔 행사는 집에서 5km 이상을 걸어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기준으로 선발해 각 학교별로 골고루 배분됐다. 아이들은 후원자들의 이름이 적힌 네임 택이 달린 새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어 가슴이 벅찬 듯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특히 다리뼈가 부러져 걸어서 학교에 다닐 수 없었던 장애인 프러비카 머거르(11세, 잔타초등학교 5학년)의 어머니 버비따 머거르(39세)는 "딸을 자전거에 태우고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감사하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날마다좋은날은 2010년부터 네팔, 몽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 의료봉사와 더불어 열악한 지역의 유치원 · 학교들을 중심으로 각종 봉사 및 후원 활동을 지속해 왔다. 지난해 6월, 본격적으로 엄홍길휴먼재단과 네팔 치왕굼바 기숙사 건립 협약을 체결하면서 네팔 지원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

노덕현 기자

'함께가자 녹색불교' 불교환경연대 후원의 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만)는 11월 27일 오후 6시 소테츠호텔즈 더 스프라지르 서울 명동에서 '함께하자, 녹색불교' 후원의 밤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부처님의 생명존중사상을 실천하며 환경오염과 기후위기로 고통받는 지구 생명을 구하는 '녹색불교' 활동기금을 모금하는 자리다.

'계절이 담긴 밥상'이라는 컨셉으로 저녁식사가 진행되며 본행사서는 히말라야 훌로깅 운동(flowging, 걸어다니며 플라스틱을 줍는 운동)을 모범적으로 진행한 네팔의 부메학교(Bhume)에 대한 시상이 진행된다.

부메학교 학생 75명은 히말라야 도처에 있는 플라스틱 병을 수거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부메학교 한국인 미술교사이자 명예교장으로 위촉된 김규현 씨의 추천으로 이번 후원의 밤에서 학생들에 대한 상이 수여된다. 행사 마무리는 환경 약속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한편, 불교환경연대는 2017년 후원행사에서 1억여 원을 모금해 임대 보증금을 마련하고 현재 운현궁 옆에 교육장과 사무실을 마련하여 숲해설가 양성과 환경강사 양성 등 다양한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30분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라이브 방송
페이스북 | 매주 수요일 밤 10-11시

2019 삼광사 청소년 가요제
in BUSAN
청소년
꿈과 열정
그리고, 꿈을 나누다
일 정 | 본선 2019년 11월 23일 오후 4시
장 소 | 삼광사 특설무대
문 의 | 사무국 02-706-3493
주 최 | 대한불교 천태종 삼광사
주 관 | BBS불교방송
프로그램 경연대회 / 초청공연 / 심사발표 및 시상식
대한불교천태종 삼광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천로43번길 77
TEL. 051-808-7111~5
www.samkwangsa.or.kr

익명의 봉투 속 자비, 추위 녹이다

익명의 남성, 아름다운동행서 소외계층에 무주상보시

매월 사무국 찾아 기부금 전달
동행, 익명후원자 증가 밝혀
해피빈 등 온라인 기부 눈길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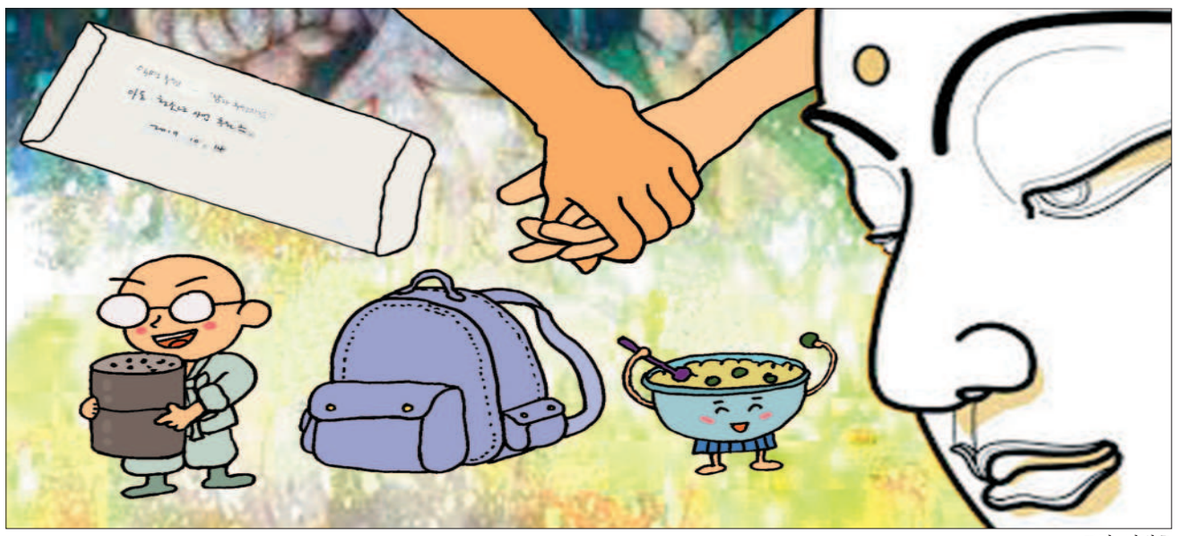


그림 · 강병호

추운 겨울을 앞두고 이름없는 자비보살들의 활동이 훈훈한 감동을 전한다. 불교계 대표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 홈페이지에는 최근 작은 사연글이 올라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남성이 보시금을 전달하고 간 사연이다.

아름다운동행 사무국은 연말이면 더욱 바쁘게 돌아간다. 한정된 재원 안에서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밤낮 없이 업무에 매진하기 때문이다.

아름다운동행의 사무실 문이 조용히 '끼익' 하고 열렸다. 동행 사무실 직원은 '이 시간에 사무실에 방문할 분이 없는데 누구지?' 하고 입구로 나갔다. 그 곳에는 어떤 한 남성이 서 있었다.

동행 직원은 처음 보는 이였기에 인사를 하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하기 위해 '안으로 들어오시라' 고 말했다. 하지만 이 남성은 극구 사양하며 주머니에서 흰 봉투를 꺼냈다. 동행 직원이 "이게 뭔가요 선생님?"하고 묻자 그 남성은 "가난한 아이들, 아픈 아이들을 위해서 써 주세요"라고 말했다.

동행 직원이 이름을 물어봤지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큰 돈은 아닙니다. 그저 아이들을 위해서 써 주세요"라는 말만 재차 남긴 채 이 남성은 뒤돌아 사무실을 나갔다.

동행에 따르면 이날 보시 이후 이 남성은 매달 한차례씩 조용히 아름다운동행 사무국을 찾고 있다. 그리고 항상 똑같은 말과 함께 보시금이 담긴 봉투를 전하고 있다. 11월 9일에도 이 남성은 사무실을 찾아 '가난한 아이들, 아픈 아이들을 위해서 써 주세요' 라고 문구를 쓴 봉투를 전달했다.

아름다운동행은 이런 후원자들로 인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어느날 갑자기 찾아온 한 남자 분. 이 분으로 인해 저희는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동행이 수행하는 사회공헌사업들은 동행의 후원자님들께서 만들어나가는 일들입니다. 저희는 그저 후원자님의 대리인으로서, 부처님의 이름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일꾼이고요. 많은 분들께서 동행에 후원금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앞으로 동행은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양질의 지원을 이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익명 기부자 증가, 기부온도 뜨겁다

아름다운동행에 따르면 홈페이지에 올린 사연 외에도 최근 익명 기부가 증가하고 있다. 아름다운동행 후원계좌로 이체되는 후원금 증가 속에 익명 후원 비율이 늘고 있는 것이다.

아름다운동행 최현웅 주임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어렵지만 입금시 '연탄나눔', '아름다운동행' 등으로 후원해주고 계신다. 상을 내지 않는 무주상 보시"라며 "최근에는 온라인 익명기부도 활성화되고 있다. '네이버 해피빈' 을 통해 후원하는 익명의 기부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예비 초등학생 책가방 지원사업 '책가방 보내기' 의 경우 모금글 게시 9일 만에 해피빈으로 270여만 원이 모였다. 아프리카 탄자니아 아동 청소년 영양지원 '해피콘 옥수수죽' 사업도 매월 평균 후원율 103%를 기록하고 있다.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자공 스님은 "우리 사회에는 나를 드러내지 않고 주변의 소외계층, 그리고 나아가 아프리카 주민 등 지구 곳곳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주저없이 후원금을 내주는 아름다운 분들이 많이 계시다"면서 "마음 같아서는 사무국으로 꼭 전화를 주시기를 바라고 감사의 말씀이라도 전하고 싶지만 방법이 없어 그저 마음만으로 감사함을 느낄 뿐이다. 그 분들이 전해오는 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책임감 있게 아름다운동행을 이끌어가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광동학원 발전사 봉정법회 열린다

광동학원, 11월 26일 광동중서

학교법인 광동학원(이사장 일면, 이하 광동학원)은 11월 26일 오후 2시 남양주 광동중 다목적실에서 '〈광동발전사〉 봉정식' 을 봉행한다.

이번에 발간하는 〈광동발전사〉는 광동학원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역사를 담고 있다. 특히 현 광동학원 이사장 일면 스님이 부임한 이후 종립학교로서 정체성을 찾고 지역 명문학교로 발돋움한 과정과 현재 학교 현황을 수록했다.

더불어 광동학원의 설립 역사와 위기 때마다 삼보정재를 희사해 학교를 살리고 지역인재를 양성한 봉선사와 교구 주요 사찰의 기여도 반영했다.

1946년 봉선사 큰 법당에서 개교한 광동학원은 운허 스님의 불교 자비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사찰과 지역, 스님과 불자들이 한마음으로 학교를 일궜다. 창립 74주년이 되며 광동학원 산하 3개 학교는 지역 명문으로 성장했다.

광동학원 이사장 일면 스님은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의 적극적 지원과 학원 운영 주체인 법인 및 250여명의 교직원 및 4만 6000여 동문과 지역민들의 협력을 통해 100년 역사의 광동을 한국의 명문학원으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신도조직 확대 위한 연수회 연다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권역별 교구신도회의 유기적인 연결망과 신도조직 확대를 위한 확대임원연수를 개최한다.

중앙신도회는 최근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경주 황룡원에서 신도조직 확대임원연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도조직 확대임원연수회는 중앙신도회와 종단, 신도조직간의 유대관계 개선 및 공감대 구축을 위한 것으로 권역별 교구신도회의 네트워크 및 불자 경제인 교류, 신도멤버십 체계화 등의 목적을 지니고 있다.

연수회에는 중앙신도회와 교구신도회, 신도단체 주요 임원 120여 명이 참여할 예정으로 단체별로 4명까지 동참 가능하다.

연수회서는 다양한 교육과 함께 신도조직 활성화를 위한 토론 및 발표가 진행된다. 중앙신도회는 "교구신도회의 실질적인 활동력을 배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수회를 열고 활성화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공불련 창립 19주년 기념법회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김상규, 이하 공불련)은 11월 9~10일 김상규 회장을 비롯한 각 기관불자회 회원과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은해사에서 '창립19주년 기념법회 및 대의원총회' 를 봉행했다. 육화원(은해사 템플스테이)에서 봉행된 기념법회에는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 충주 석종사 금봉선원 혜국 스님, 김상규 공불련 회장,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 최기문 영천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영하 공불련 사무총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지난 2000년 공불련의 설립과정과 그간의 봉사활동과 법회진행 등 활동내용을 소개했다. 노덕현 기자

'도농상생'으로 풍성한 사찰 장터

조계사 '육농이 나르샤' 장터
11월 9~11일 개최…높은 호응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이 판매물품을 살펴보고 있다.

조계사(주지 지현)는 농업인의 날을 맞아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2박 3일 동안 건강하고 저렴한 먹거리 보급과 도농소통 지역 경제 살리기를 위한 '육농이 나르샤 직거래 장터' 를 개설했다.

이번 '육농이 나르샤 직거래 장터' 는 강진, 영암, 의성, 함평, 해남, 화천 6개 군이 참여해 30여 대표 상품을 한 자리에 모은 지역과 도심사찰의 상생 장터다. 불자와 시민들은 멸치, 다시마, 참기름부터 버섯 생강, 식초, 조청, 차 등 신선한 농수산물을 구매했다.

조계사는 2017년부터 매월 초하루부터 초삼일까지 6개군과 경내에 직거래 장터를 열고 있다. 조계사에 따르면 신선하고 질 좋은 상품을 눈으로 확인하고 살 수 있어 장터 개장을 기다리는 신도들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번 육농이 나르샤 장터는 그동안 산별적으로 해왔던 지역 장터를 한번에 열어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에 참여한 정기근 함평군 햇맘잡곡 대표는 "다른 시군이 준비한 것을 보고 참고가 많이 됐다"고 말했다.

김현성 씨는 "지난해보다 많은 상품을 살 수 있어 좋은 것 같다"며 "주기적으로 신선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판매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육농이 나르샤 장터에 대해 주지 지현 스님은 "조계사는 한 달에 한 번씩 농촌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다. 그동안 한 달에 한 번 했던 6개 군이 오늘 함께 모여서 장터를 여니 큰 축제를 벌이는 것 같다"며 "농촌 살리기 운동에 조계사뿐 아니라 많은 도심사찰들이 함께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인재원 불교경전·조사어록 강좌

불교인재원(이사장 엄상호)은 11월 18일부터 2020년 2월 10일까지 동안거 기간 동안 '제12차 불교경전과 조사어록 대강좌' 를 연다.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서울 조계종 전법회관 지하 1층 교육관에서 열리는 이번 불교경전, 조사어록 강좌는 '법화경' '유마경' '아미타경' '간화결의론' 을 교재로 백년대계본부 사무총장 일감 스님, 서재영 성균관대 초빙교수, 자비사 주지 대해 스님, 박희승 불교인재원 이사가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엄상호 이사장은 "불교인재원은 지금가지 불교를 바르게 이해하고 중도정견을 세워 실천하는 생활참선 입문코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강의 교재인 '간화결의론' 은 조사선 공부에서 화두 참선으로 가는 돈오돈수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중도정견을 통한 생활 실천의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1661-1108

노덕현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20년도 남경 의대(중의학)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어학단기반

모집
•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 (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WTO 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군입대 연기 가능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학자금 대출 가능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19년 11월 29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돈암동 83-2)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 (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 (돈암동 83-2)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



생명나눔실천본부는 11월 10일 제10회 생명나눔자선음악회를 개최했다. 생명나눔 산하단체인 마하무용단이 화려한 군무를 선보이고 있다.



음악회에 앞서 생명나눔은 올해 처음 제정된 생명나눔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수상자들의 기념촬영 모습.



진보라 재즈피아니스트가 공연을 하고 있다.



가수 주병선 씨의 공연 모습.

노래 · 춤으로 '생명나눔' 이야기하다

본지 · 생명나눔 공동기획

생명나눔은 자비입니다

⑧ 제10회 생명나눔 자선음악회 현장을 가다

소리꾼의 노랫소리와 재즈 피아노의 선율이 조화롭게 공연장을 채웠다. 역동적인 한국무용 작품들이 무대에서 펼쳐지면 대중들은 환호했다.

춤과 노래로 생명나눔을 생각해 보는 자선음악회가 열렸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이하 생명나눔)는 11월 10일 오후 6시 광진나루아트센터에서 '제10회 생명나눔음악회' 를 개최했다.

'생명나눔 자선음악회' 는 환우들과 가족, 의료진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기 위해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해마다 개최한 한다솜 희망음악회의 취지와 뜻을 이어받아 열게 된 음악회로, 자선음악회로 전환된 이후 처음 진행됐다.

이날 음악회에는 생명나눔 이사장 일면 스님, 광주전남지역본부장 현지 스님을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 김병주 前육군대장, 김진문 신성약품 회장, 손재현 동국대 교수, 배완영 행복나눔태권도연합회 총재, 정현숙 생명나눔 후원회장, 박종우 생명나눔 홍보위원회장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음악회에 앞서 1부 기념식이 열렸다. 타악퍼포먼스 그룹 디딤소리의 오프닝 공연으로 시작된 기념식에서는 환자치료비와 후원금 전달식 등이 진행됐다.

이날 생명나눔은 환우 최성훈 · 김강우 · 김정현 씨 가족들에게 소정의 치료비를 전달했다. 또한 마하무용단은 환자치료비 지원을 위해 100만원을 기부했으며, 행복나눔태권도연합회는 저소득층 환아 치료비를 후원했다.

기념식에서는 올해 처음 제정된 생명나눔대상 시상식도 진행됐다. 첫 대상 수상자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선정됐으며, 홍보상 부문에는 불교신문사, 생명상 부문에는 김남명 홍보위원, 나눔상 부문에는 예금보험공사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상패가 수여됐으며, 상금은 대상 200만 원 · 홍보상 100만 원, 생명상과 나눔상은 각각 50만 원이다.



생명나눔은 기념식에서 환자 치료비 지원금을 전달했다.

제1회 생명나눔대상 시상식 열려

박원순 서울시장 첫 대상 수상해

마하무용단 다양한 주제로 공연

일면 스님 "아픔 잊는 자리 되길"

대상으로 선정된 박 시장은 지난 2001년 4월 생명나눔을 통해 장기 및 안구기증 희망등록을 하고 장기기증 홍보, 생명나눔 가치의 사회적 실천에 큰 기여를 했다.

수상 직후 박 시장은 "생명을 나누고 살리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앞으로도 더 좋은 일을 하라는 격려로 알고 생명나눔의 정신을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본격적인 음악회가 시작된 2부는 생명나눔의 산하단체인 마하무용단의 정현숙 단장(후원회장)의 향발무로 시작을 알렸다. 향발무는 '향발' 이라는 제금을 양손에 마주 들고 추는 춤으로 정 단장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염원하는 마음을 한삼 자락에 실어 절제되고 기품있는 춤사위를 선보였다.

정 단장이 이끄는 마하무용단은 다양한 주제의 공연을 펼쳤다. '꽃잎되어 흩날리다' 에서는 17명의 단원이 화려한 군무를 펼치며 이 시대를 풍미한 여인들의 삶을 표현했다. 또한 행복나눔태권도연합회 소속 사범들의 태권무와 마하무용단의 소고춤 콜라보도 눈길을 끌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19호 선소리산타령 이수자인 소리꾼 소천 이장학 씨와 유충식 재즈피아니스트는 정선아리랑과 한오백년, 뱃노래를 협연했다. 또한 생명나눔 홍보대사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 오고 있는 진보라 재즈피아니스트, 가수 주병선 씨 등이 열정 넘치는 무대를 선보였다.

이날 참가자들은 생명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 깊은 행사라고 입을 모았다. 이수향 한국춤하나문화진흥회 대표는 "장기기증이 필요한 환우에게 희망을 주며 생명경외 정신을 25년간 알려온 생명나눔의 선행에 감동할 수 밖에 없다"면서 "생명나눔의 활동은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현숙 후원회장은 "나눔은 어렵지 않다. 나 역시 1만 원으로 시작했고, 이제는 가족 모두가 참여하고 있다. 작은 결심이 큰 선행이 된다"면서 "생명나눔운동 확산에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나눔의 의미를 강조했다.

생명나눔 이사장 일면 스님은 아픔을 잠시나마 내려놓으며, 생명나눔의 의미를 되새기길 기원했다.

이사장 일면스님은 "오늘 음악회는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난치병 · 이식대기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치료비를 모금하기 위한 자리"라며 "이 자리를 계기로 환우들이 희망을 갖고 하루빨리 완쾌하길 바란다. 앞으로도 생명나눔 자선음악회가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생명나눔 운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생명나눔과 함께 하는 12월

생명나눔과 함께하는 제6회 따뜻한 정 나누기
- 날짜: 12월 3일(화)
- 장소: 중계 2 · 3동 내 저소득층 가구

고3 수험생 대상 '조혈모세포' 교육 실시
- 날짜: 12월 11일(수)
- 장소: 남양주 광동고등학교

청소년 대상 자살예방교육 실시
- 날짜: 12월 20일(금) · 장소: 동대부여고

생명나눔실천본부 하반기 실무자 워크숍 개최
- 날짜: 12월 19일(목)~20일(금) · 장소: 미정

육군훈련소 군장병 대상 장기 및 조직기증희망 등록 교육
- 날짜 : 12월 22일(일)
- 장소 :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도봉운전면허시험장과 함께하는 장기 및 조직기증희망 등록 캠페인
- 날짜: 상시운영(금요일 제외)
- 장소: 도봉운전면허시험장 1층 로비

생명나눔실천본부 온라인 후원계좌

신한은행	140-001-764580
국민은행	006-01-0770-038
우리은행	010-073780-13-101
기업은행	024-037428-01-016
우 체 국	010579-01-001564
농 협	053-17-001346
환자돕기(농협)	053-01-243778
신도등록(농협)	301-0044-4629-71

후원문의 : (02)734-8050



“난치병 어린이들에 꿈과 희망을”

태고종 나누우리, 진안서 희망나눔 자선음악회

전국 사찰을 순회하며 작은 음악회를 통해 중증어린이 환우들에게 치료비를 후원하는 국제구호봉사단체 태고종 자비나눔실천도량 나누우리(이사장 도산)는 11월 9일 진안군 진안문화의집에서 난치병 어린이 돕기 희망나눔 자선음악회를 개최했다.

자선음악회에 앞서 나누우리 이사장 도산 스님은 심각한 소아우울증, 선천성 뇌성마비 등 난치병을 앓고 있는 김지연(가명) 어린이 등 3명에게 치료후원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자선음악회에는 나누우리 이사장 도산 스님을 비롯해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도광 스님, 호법원장 지현 스님,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 전북종무원 종회의장 법전 스님, 전북영산작법보존회장 혜정 스님, 김승환 전북교육감, 김용진 진안군자원봉사센터 이사장 등 300여 명이 동참했다.

도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환아와 그 가족을 위해 성심과 열정으로 준비한 음악과 춤사위를 통해서 모든 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음악회를 즐겨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외 음악봉사를 꾸준하게 하는 ‘마이산 탑(TOP)밴드’의 난타공연을 시작으로 막을 연 자선음악회는 순창지역 중·고등학생들로 구성된 댄스그룹 ‘립업’을 비롯해 ‘앤리미트’와 ‘자비걸스’, 가수 서윤과 탤런트 조주원의 공연으로 희망나눔의 자선음악회를 진행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정광학원, 수험생 학업 결실 기원

수학능력시험 하루 전, 정광고교서 기원법회

불교종립 학교법인 정광학원(이사장 덕문)은 11월 13일 정광고교 대승원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학생들과 함께 ‘2020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원법회’를 열고 시험을 앞둔 학생들을 응원했다.<사진>



법회에서 덕문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열심히 공부한 만큼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며 “간절한 마음으로 좋은 기운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라며 지리산에서 열심히 기도할 테니 염려 없이 수능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스님은 이어 수험생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이날 기원법회에 참여한 수험생 전원에게 ‘수능합격기원 선물’을 직접 전달하고 격려했다. 법회는 불교의례에 이어 학생회장과 진학부장의 헌화, 격려선물 전달, 관음정근, 발원문 봉독이 이어졌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개금 마친 송림사 보물 삼존좌상

칠곡 송림사, 개금불사 회향

칠곡 팔공산 송림사(주지 도휘)는 11월 8일 대웅전서 목조석가여래 삼존좌상(보물 제1605호) 석가모니불과 문수보살, 보현보살의 개금 점안불사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회는 동화사 前 금강선원장 지혜 스님과 칠곡사암연합회 총무 묘현 스님, 김한수 송림사 신도회장, 이진형 무형문화재 불상조각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했다.



송림사 주지 도휘 스님은 “소중한 문화유산을 잘 보전하고 관리해 전국에 제일가는 기도, 수행, 포교도량으로 거듭나 대구시민, 칠곡군민들의 편안한 안식처로 거듭나겠다”고 인사했다.

증명법사 지혜 스님은 “생각을 내는 것은 본래 내 마음이 아니다. 본래의 내 마음인가를 생각하고 생각 내는 이전의 내 참마음, 참모습을 바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림사 목조석가여래 삼존좌상은 360여 년 된 불상으로 세월이 지나며 일부 훼손돼 개금이 진행됐다. 송림사는 회향불사에 공로가 많은 공로자들에게 송림사 신도들의 마음을 모아 공로패와 감사패를 전달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미소로 밝힌 세상, 더 아름답게”

사단법인 미소원, 창립 8주년 기념법회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봉사와 수행으로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미소원이 창립 8주년을 기념해 불자 거사들의 모임인 ‘아빠봉사단’을 창단했다. 불자 거사들은 든든하고 힘찬 봉사활동으로 행복한 세상 만들기를 위해 노력할 것을 서원했다.

함께 웃는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사단법인 미소원(이사장 장유정)은 11월 9일 부산일보사 10층 대강당에서 ‘미소원 개원 8주년 기념식 및 아빠봉사단 발대식’을 거행했다. 미소원은 아빠 봉사단을 통해 가족 구성원 포교에 앞장서며, 거사들의 든든한 손길이 필요한 곳에 도움의 손길을 전할 예정이다.

창립 기념식에는 대광명사 주지 목종 스님, 연종학림 주지 청명 스님, 미소원 장유정 이사장, 김소양 신도회장, 문연숙 부회장, 김주일 현대불교신문 편집국장, 이도경 현대불교신문 부산지사장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했다.

법회는 아빠봉사단과 미소원 청년회가 회기를 장유정 이사장에게 전달하며 시작을 알렸다. 이어 삼귀의 및 반야심경, 발원문, 내빈소개, 경과보고, 임명장 수여, 공로패 수여, 기금전달식, 인사말 및 축사, 후원단체 소감, 임원소개 순으로 진행됐다.

미소원은 장정화 아빠봉사단 단장과 허세진·조현삼 부단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하며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위한 아버지로 활동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정화 신임단장은 “함께 웃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미소원의 뜻을 받들어 안으로는 내실을 다지고 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어디든지 달려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8주년 맞아 ‘아빠봉사단’ 창단
불자 거사들 활동 지원 나서
소외계층 지원 우수활동 표창
현대불교에 전법지원금 전달

이어 미소원은 조정헌(평화시장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회원 허중구·강주은 부부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소외계층을 위해 활동한 공로를 치하했다.

아울러 미소원은 기금전달식에서 전법 지원금 500만원을 현대불교신문에 전달하며 수행 포교지로 더욱 힘차게 활동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대불교신문은 감사의 답례 선물을 전달하며 미소원 창립 8주년과 아빠봉사단 창단을 축하했다. 미소원은 또한 생명나눔실천운동본부에 난치병환우돕기 지원금 747만5120원을 전달했다. 난치병환우 돕기 지원금은 미소원 회원들이 1년 동안 십시일반 모은 저금통으로 마련한 것이다.



사단법인 미소원 개원 8주년을 맞아 기념식 및 아빠봉사대 발대식을 개최했다.

장유정 이사장은 “미소원은 모든 활동에 앞서 수행을 우선으로 두고 있으며 봉사와 후원으로 따뜻한 세상을 열어가고 있다. 이번 아빠봉사단 창립으로 새로운 도약점을 맞았다고 생각한다. 세상의 어둡고 외로운 곳에서 다양한 역할을 해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모든 활동을 지지하고 후원해 준 회원들의 관심과 사랑이 있었기에 미소원이 존재한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미소원 창립을 축하하며 승가 및 재가자의 축사도 이어졌다.

대광명사 주지 목종 스님은 “다람살라에서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뵙고 왔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의 가장 뛰어난 부분이 미소이다. 그 미소를 보고 왔다. 이곳에서 그 미소를 다시 보고 있다”고 칭찬했다. 스님은 이어 “미소원 여러분의 8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간다. 행복을 얻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행복을 주는 것이다. 지난 1년 동안 미소원은 행복을 주는 삶으로 자신도 행복하며 이웃을 행복하게 해줬다. 이것이 미소원의 가치”라고 말했다.

김주일 현대불교신문 편집국장은 “행사를 많이 다녔지만 이렇게 미소가 가득한 행사는 처음 봤다. 아빠봉사단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곳의 행복 가득한 미소를 담아 다시 돌아가 전법 활동을 힘차게 펼쳐 나갈 것”이라고 인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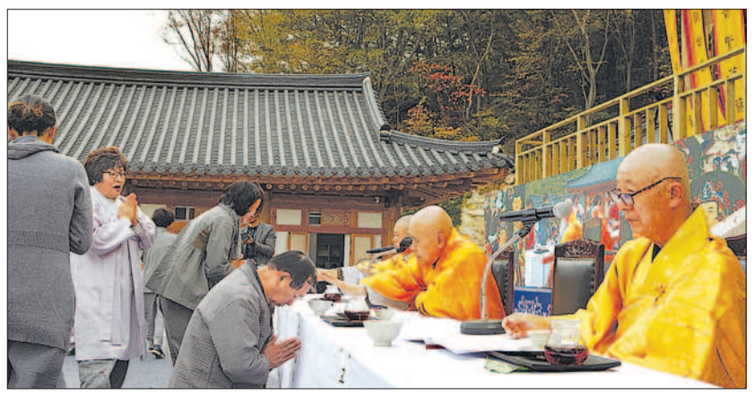
持戒 강조한 전통불교의식 팔관회

부산불교연합회, 범어사 일대서 1000여 시민과 호국불교 서원

부산 시민들이 팔관회를 통해 부처님의 계를 받아 지니며 청정한 삶을 서원하고 나라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했다. 신라시대부터 이어진 팔관회를 현대에 맞게 재현해 호국불교정신과 계의 소중함을 다시 되새기고 전통불교문화를 이어가는 시간이 마련됐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경선)는 11월 8~10일 팔관회를 범어사 선문화교육센터에서 개최했다. 팔관회는 호국기원법회를 통해 호국불교정신을 되살리고 팔관회가 갖는 전통불교문화 가치를 알리는 자리로 진행됐다.

부산불교연합회장 경선 스님은 “팔관회는 우리의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팔관재계를 수지해 하루 동안 지킬 것을 서원하는 전통불교의식”이라며 “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직접 주관한 성대한 행사이자, 왕과 대신들이 법을 청해 듣고 계를 수지하는 대법회로 역사 속에 면면이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불교연합회 팔관회에서 회장단 스님들이 불자들에게 마정수기를 하고 있다.

수석부회장 세운 스님은 “부산불교가 앞장서서 우리 민족 전통인 팔관회의 문화적 가치와 불교의 정신을 되살린다면 능히 국민들의 마음에 드리운 어둠을 몰아내고 법의 등불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관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장은 “팔관회는 신라시대부터 시작된 국가적 행사로 국왕이 재주가 되어 국태민안을 기원하던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이라고 설명했다.

부산불교연합회는 20여 년간 팔관회의 전통을 보전하고 계승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원형보존과 아울러 현대적 시선에 발맞춰 일반 시민들과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문화축제로 발전시키고 있다.

팔관회는 호국기원법회에 이어 사부대중이 함께 어울려 즐기고 볼 수 있는 백희가무를 선보였으며, 호국영령 위령재를 봉행해 나라를 위해 희생한 호국열사들을 추모했다. 마지막으로 팔관재계수계법회를 통해 팔관회가 핵심인 계의 정신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팔관회에는 부산불교연합회장 경선 스님, 수석부회장 세운 스님, 상임부회장 자관 스님, 진광 정사를 비롯한 구·군 불교연합회 회원 스님들과 박수관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장, 오거돈 부산시장, 박인영 부산시의회의장 등 1000여 명이 동참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2020年 庚子年 福달력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국내 최초 출시!

“같은 옥으로 만들어진 福 달력”

福자 글씨는 옥으로 만들어진 돌출형이라 입체감이 있어 매우 품격있고 고급스럽습니다!




[부채백의관음] size 35cm×66cm

[복달마] size 37cm×67cm

[관세음보살] size 42cm×67cm

佛보살님들의 발원으로 福이 많이 들어오게 하는 대박 달력입니다. 날짜마다 길흉표기를 해두었고, 사찰의 행사 날짜 별로 기록되어 있어 사찰신도들에게 유익한 달력입니다.

他 사찰과 색다른 달력을 배포함으로써 신도 유입에 도움이 되리라 사려됩니다.

※달력 하단에 각 사찰명을 인쇄해 드립니다.
※주문은 50부 이상 받습니다.

재수대길 재수대길기획사 문의 전화 010-7462-2557 입금 계좌 농협 302-4233-7099-41 예금주: 김 경 석

불교학술원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ABC) 사업단 동국대 불교학술원 공동학문후속세대 양성 사업

석굴암, 실크로드 문화 결정체

주제 : 석굴암의 긴 여정– 간다에서 경주까지

문명대 동국대 미술학과 명예교수



문명대 명예교수는… 1941년 출생으로 경북대 사범대 역사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 대학원에서 '석굴암 불상 조각 연구'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동국대 대학원 박사과정 중 울산 천전리, 대곡리 선사 암각화를 발견해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동국대 교수로 재직하면서는 러시아 연해주 발해사원지 발굴, 파키스탄 탁실라 간다라 유적 발굴 등을 진행하는 등 많은 발굴 성과를 냈다. 정년퇴임한 2006년 이후에는 지금까지 한국미술사연구소장을 맡으며, 왕성한 연구 · 집필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조각사〉〈한국의 불화〉〈한국불교미술사〉 등 50여 편의 저서와 300여 편의 논문을 집필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ABC) 사업단은 11월 6일 동국대 중앙도서관 전순표 세미나실에서 제17회 불교인문학특강을 개최했다. '석굴암의 긴 여정- 간다에서 경주까지'를 주제로 열리는 이날 특강에는 문명대 동국대 미술학과 명예교수가 초청돼 강연을 진행했다. 본지는 이날 강연 내용을 정리 · 게재한다.

〈편집자 주〉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어버리듯이 문화도 교류가 없으면 소멸되고 맙니다.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곳이 실크로드입니다. 세계문화교류 가운데 인류역사상 가장 중요한 루트는 유라시아대륙의 대동맥인 '실크로드(인도 · 서역 · 중국)'라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곳에는 인도와 서구문화, 중국과 한국문화 등이 수천 년 동안 끊임없이 서로 교류하고 접촉해온 국제문화의 산실입니다.

우리 문화도 이 길을 통해 교류된 세계적인 문화에 영향을 받아 보편적이고 국제적인 문화를 바탕으로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문화를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화교류에 우리 선인들은 중국이나 인도, 서구인이나 서역 못지않게 진취적이고 선진적으로 발 벗고 앞장섰던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직접 탐사하여 밝혀내는 작업이야말로 오늘을 사는 우리 후손들의 사명입니다. 나아가 인도와 중국을 포함한 광역의 실크로드 문화 특히 석굴문화의 교류를 밝히는 것은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정립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역 실크로드와 불교문화 교류

세계의 지붕으로 알려진 파미르고원(蔥嶺)을 중심으로 동서로 전개된 사막과 초원의 광활한 지역을 중앙아시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우리나라나 중국에서 인도나 로마쪽으로 가자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요충지이며 그 반대의 길도 동일하므로 동서문화의 교류지이자 교통로로서 역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는데 이 길을 흔히 비단길, 즉 실크로드로 통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근대부터 쓰여지기 시작했는데 독일의 지리학자 리히트호펜이 사용한 이래 헤르만, 헤딘 같은 서역탐험가들이 애용해서 보편화됐습니다.

이 서역에 A.D 2세기경부터 불교가 수용되어 불교미술이 꽃피기 시작하였는데 이런 불교미술은 중국에 전달되었고, 다시 우리나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서역의 불교미술은 건축 · 조각 · 회화 · 공예 등으로 나눌 수 있지만 조각과 회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 불상과 불화들은 지역마다 제각기 다른 개성도 있지만 복합적이면서도 공통적인 미술양식이 정립되어 있습니다. 불교문화는 현재 쿠챠의 키질, 쿰트라석굴, 투루판의 베제크릭, 돈황 막고굴, 유림굴, 문수산, 병령사, 맥적산 석굴 등에 상당수 현존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우리 문화와 관계 깊은 것 위주로 정밀 조사 · 연구를 실시하여 우리 문화의 정통성을 확립하는데 활용해야 합니다.

한국불교미술과 실크로드

신라는 삼국 가운데 가장 늦게 불교를 받아들였지만 일단 불교가 수입되자마자 불교와 불교미술은 급성장하게 됩니다. 신라는 고구려를 통하여 불교와 불교미술을 수용했으므로 신라의 불교미술은 초기에는 고구려의 불교미술과 상당히 유사했을 것입니다. 초기를 대표하는 불상양식인 뚝섬 출토 금동불좌상은 고구려 불상으로 생각되고 있는데 이런 양식의 불상이 초기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 **석굴암 불상들 한국문화를**
> **집약하는 최고의 걸작이다**
> **삼국 사상 · 문화 혼연히 녹여**
> **세계 최고 불교예술 토대 이뤄**

중대신라인 통일신라시대 전반기(650~800년)는 삼국을 통일한 통일제국으로 실크로드와 연관된 국제적인 문화를 꽃피웠던 시기입니다. 통일신라는 국제적인 당 제국의 문화, 그 너머 인도의 국제화된 굽타문화와 서역문화를 수용하여 독특한 국제적 불교문화를 꽃피웠습니다. 따라서 이들 문화는 실크로드를 따라 들어온 문화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황금기의 신라문화는 불교문화가 특징이며, 당시의 불교인 종파불교가 주도한 불교미술이 그 핵심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가종(瑜伽宗=法相宗), 신인종(神印宗), 화엄종(華嚴宗) 등이 주도하는 종파불교의 대찰인 용장사, 흥륜사, 감산사, 불국사 그리고 사천왕사, 신인사, 분황사, 부석사 등 수 많은 사찰들이 세워져 화려하고 우아하며 세련된 이상적 사실주의 불교미술이 전개됩니다.

8세기에 들어서면 통일신라 사회는 불교문화가 난숙하게 무르익습니다. 이를 알려주는 대표적 예가 유가종 감산사 본존불인 미륵보살입상과 아미타불입상입니다. 감산사 불상들은 인도의 굽타불상에서 그 원류를 찾아볼 수 있지만 두 다리로 U형 옷주름이 내려가는 인도 우진왕조상식 불상이 실크로드를 따라 서역과 중국을 거쳐 신라에 수용되어 신라화가 진행되어 나타난 특징적 불상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적 불상양식은 석굴암 불상(750년경)에서 완결됩니다. 석굴암은 차이티야(Chaitya)식이라는 단일 예배굴(單一 禮拜窟)인데 사각형 전실(前室)과 원형 본실(本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석굴은 바위를 뚫어 조성한 인도 아잔타나 중국 돈황, 운강 등 일반 석굴 등과는 달리 판석(板石)을 짜서 조성한 이른바 축조석굴(築造石窟)입니다. 이런 축조석굴의 원조는 간다라의 스와트(Swat) 붓카라 제3사지 석굴입니다. 판석과 모전석의 등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축조석굴이라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이러한 간다라 석굴 형식이 실크로드를 따라 서역의 베제클릭 같은 벽돌식 석굴에 영향을 미쳤지만 중국 본토를 건너뛰어 머나먼 신라로 곧장 수용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석굴암 본존불상도 간다라의 나건하라(那乾訶羅)석굴 불영상이나 부다가야 대각사 석가불상 등 인도불상에서 형식의 유래가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 점은 사천왕사상이나 11면관음보살상 그리고 10대제자상도 인도에 그 원류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10대제자상은 인도 아리안인의 고승상을 그대로 모형한 상이어서 실크로드로 전파된 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크로드 문화 결정판, 토함산석굴 성격

경주 석굴암 석굴(골굴암)은 인도에서 간다라를 거쳐 서역의 실크로드를 지나 중국을 거쳐 수용된 불교석굴 문화의 결정체입니다. 이러한 경주 토함산 석굴의 성격을 간략히 정리했습니다.

첫째 경주 석굴암 석굴은 세계 문화의 결정체입니다. 석굴암 석굴은 석굴의 원형인 인도의 아잔타, 엘로라, 오랑가바드, 칸헤리, 바쟈, 나식, 준나르, 피타코라석굴에서 기원한 석굴문화를 계승했습니다. 이런 인도의 석굴문화는 간다라 문화와 이에 영향을 준 그리스, 로마, 이란 문화 등에서 강한 영향을 받아 생성됐고 서역의 모든 석굴문화를 이룩합니다. 따라서 경주 석굴암 석굴은 그리스, 로마, 인도 간다라, 서역, 중국 등 세계의 모든 문화가 용해되어 있는 세계 문화의 결정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석굴암 석굴은 세계에서 대승불교의 불교상이 가장 잘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주실의 모든 상들은 본존불을 상하 2단의 2중으로 보살과 신들이 둘러싸 불세계, 불국토를 체계적으로 짜임새 있게 형성하고 있으며, 이 불국토를 제석 · 범천과 사천왕, 금강역사, 8부신장이 순차적으로 질서 정연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런 불보살상들의 정연하고 체계적인 배치는 세계 어디에도 볼 수 없는 대승불교의 진수입니다.

셋째, 석굴암 석굴의 본존 석가불상은 세계 최고의 대승불교 항마불상(降魔佛像)입니다. 왼손은 무릎 위에 올리고 오른손은 무릎 아래로 내려 손가락으로 땅을 가르키는 이른바 촉지인(觸地印)을 짓고 있는 수인을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이라 하며, 이 수인을 하고 있는 불상을 항마촉지인불상 또는 항마성도상(降魔成道像)이라 부릅니다. 보드가야 대탑의 항마성도상은 원래의 상을 계승한 후대작이지만 성도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한 항마성도상의 대표작인데 비하여 석굴암 석굴 본존상은 비록 항마상을 하고 있지만 단순히 깨달을 때의 항마상이 아니라 항마성도는 물론 일체의 나쁜 무리들인 모든 마군들을 제압하는 대승적 항마상입니다. 이런 대승 항마상 가운데 세계에서 제일 위엄 넘치는 최고 걸작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넷째, 석굴암 석굴 불상은 대승불교의 사상 특히 우리나라 대승불교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유가밀교의 사상을 상징하는 걸작입니다. 신라의 대표적인 불교사상인 유가유식사상에서 기반을 두면서도 나쁜 무리나 외적을 제압하는 항마적인 호국적 불교사상을 나타내는 유가밀교의 사상을 상징하는 불상들이 석굴암 석굴 불상입니다.

다섯째, 석굴암 석굴 불상들은 역사시대 한국문화를 집약하는 최고 걸작이다. 이른바 고구려, 백제, 신라 등 삼국의 전통적 사상과 문화와 예술이 혼연히 녹아있고 우리의 역사와 혼이 살아 숨쉬고 있는 결정체이자 세계 최고의 불교사상과 불교예술 뼈대를 이루고 있는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석굴암 석굴입니다.

이상의 5가지 특성을 잘 간직하고 있는 경주 석굴암 석굴은 우리나라의 자랑거리에 그치지 않고 세계최고의 걸작품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대한불교선재종 총본산 무등산 미륵사

관음전 낙성 및
관세음보살 3천불 점안법회

관세음보살님은 아미타 부처님의 현신으로, 중생의 근기에 따라 33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법화경(法華經)』 보문품에는 "고통에 허덕이는 중생이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즉시 그 음성을 관하고 해탈시켜 준다."라고 말씀하셨다.
중생을 위험으로부터 구제하는 관세음보살님은 '모든 곳을 살피는 분' 이나 '세상의 주인' 이라는 뜻을 가졌다. 모든 중생이 해탈할 때까지 자신은 성불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등산 미륵사는 관음전과 관음3천불을 봉안하고, 관세음보살의 위신력과 자비의 마음을 널리 중생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미륵사 관세음보살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동산길 7번길 5-11 **전화** : 062-672-0009 **부설** : 사찰음식 수자타

제 103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중급과정 (6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칭, 관음시식, 구병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개강일** : 2020년 1월 7일

◈ **강의일시** :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5시 ~ 6시 30분(90분) 담임교수 원장직강**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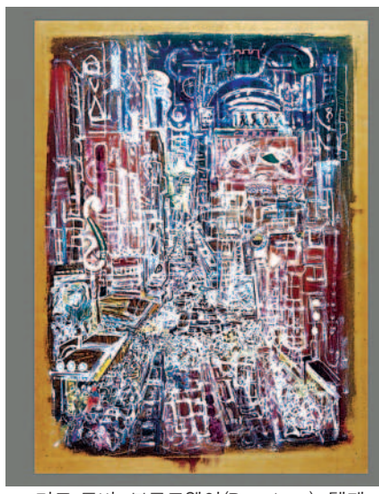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번길 45(낙원동 243-3) 탑공공원 뒷편 ☎ (02)741-0495~6

'禪'(선)을 만난 '線'(선)을 보라



김원숙의
불교와 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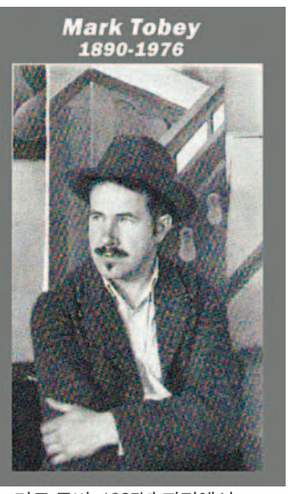
㉑ 마크 토비의 하얀 글씨



마크 토비, 브로드웨이(Broadway), 템페라/ 컴포지션 보드, 79.7 x 61.9 cm , 1936



마크 토비, 하얀 글씨(White Writing), 템페라/ 종이, 16.5 x 24.1 cm ,1960



마크 토비, 1925년 파리에서

전통적인 회화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물, 풍경, 사람 등의 시각적인 대상들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작업인 반면, 서예는 언어라는 부호로서의 목적을 가진 기호들을 조형적 예술미를 담아 그려내는 행위이다. 서예는 의미 전달의 시각적 매개인 문자를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추상적 성격을 지니며, 또 문자가 가진 실용적 기능을 넘어서 심미성을 추구하기에 예술적 가치를 아우른다. 현대 서구 회화에서도 서예의 이러한 미적 특질을 그들의 작품 세계에 차용한 작가들이 적지 않다.

미국 현대 미술의 선구자 중 한 사람인 마크 토비(Mark Tobey, 1890-1976)는 동양 서예의 필선이 그려내는 아름다움에서 받은 영감을 자신만의 조형언어로 다시 빚어내 여러 작품들을 남겼다. '하얀 글씨(White Writing)' 라는 제목 시리즈는 그의 예술 세계를 대표하는 작품군이다.

짙은 색 배경에 켜켜이 중첩시켜 쌓은 수천 개의 하얀 붓 터치를 찬찬히 응시하고 있자면, 마치 그 붓끝의 움직임이 보는 이의 시선을 부드럽게 이끄는 듯한 운동감을 불러 일으킨다. 화면을 가득 채운 필선의 강약과 농담과 그 흐름은 미묘하게도 평면인 화폭이 마치 공간적 깊이를 가진 듯하다.

마크 토비의 작품에서 돋보이는 잔잔한 환영(幻影)적 리듬은 느릿한 명상적 몸짓으로 화폭 전체를 가득 메운다. 19세기 이전 전통적인 회화에서는 그림의 주제를 중심에 두고 부수적 요소들을 주변에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마크 토비의 '하얀 글씨' 는 화폭 가운데와 주변이 동일한 무게의 이미지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모던아트에서 이러한 회화의 특징을 '올 오버 페인팅(All over painting)' 이라 한다. 미국적 추상표현주의의 대표작가로 드리핑 기법으로 유명한 잭슨 폴록(Jackson Pollock, 1912-1956)의 작품이나, 색면 추상으로 일컬어지는 마크 로스코(Mark Rothko,1903-1970)의 작품 등이 올 오버 페인팅의 대표적 사례이다.

어떻게 보면 거꾸로 걸어 놓아도 딱히 어색하지 않을 듯한 이러한 그림들의 출현은 당시 일반 대중들에게는 낯설게 여겨졌다. 하지만 올 오버 페인팅의 등장은 근대에서 현대로 이어지는 서구사회의 격변을 마치 새벽 닭 울음소리처럼 알려주는 사건과도 같았다. 화면에서 중심과 경계의 서열적 지위가 해체되었고, 위 아래와 좌우의 분별이 무의미하게 된 이러한 조형적 혁신은 모더니즘의 새로운 사조의 도래와 더불어 당시 미술평단의 큰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우리나라에서 마크 토비는 비슷한 시기의 잭슨 폴록에 비하면 비교적 덜 알려져 있으나, 미국과 유럽에서는 추상표현주의와 올 오버 페인팅 기법을 창시한 기념비적 작가로 꼽힌다. 마크 토비는 미국인으로는 두 번째로 1958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국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미국인 최초로 그 상을 받은 작가가 바로 제임스 휘슬러(James Abbott McNeill Whistler, 1834-1903)였던 사실을 비추어 볼 때, 당시 미술계에서 토비에게 쏟아졌던 명성의 무게를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도판으로 얼핏 보면, 토비의 그림과 폴록의 그림은 다소 비슷해 보이지만, 여러 측면에서 두 작가의 작품은 극단적인 대비를 이룬다. 우선, 폴록의 작품은 보는 이들을 압도하는 큰 스케일의 작품이 대다수이나, 토비의 작품들은 상당수가 실제로 노트북 사이즈에 불과하다. 폴록이 대게 유화물감을 흩뿌렸다면, 토비 작품의 재료는 주로 템페라이거나 수채화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두 작가가 지향하는 작품의 세계이다. 폴록은 드리핑 기법을 통해 우연성에 기인하는 미적 특질을 추구하였다면, 토비는 내면의 영성과 명상적 진리를 추구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폴록의 화면은 온통 떠들썩한 혼돈으로 가득하다면, 토비의 화면은 맑고 고요하다.

두 작가의 차이는 작품활동을 한 지역에서도 드러난다. 폴록을 비롯한 미국 현대 예술가들이 대부분 뉴욕을 근거로 활동하였다면, 토비는 오랜 기간 워싱턴주의 시애틀에서 활동하였다. 미국에서는 통상적으로 북서쪽에 위치한 오레곤, 아이다호, 워싱턴 주를 '노스웨스트' 라 지칭하기에, 공식 명칭은 아니나 마크 토비를 '북서파(Northwest School)' 라 부른다.

마크 토비는 위스콘신주의 한 작은 마을에서 4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토비의 회상에 따르면, 그의 유년 시절은 마치 마크 트웨인(Mark Twain)이 쓴 소설의 주인공인 '허클베리 핀' 과 같았다고 한다. 미시시피 강가를 맨발로 뛰어다니던 그 철부지 어린 아이는 커서 목사가 되기를 꿈꿨고, 때론 박제사가 되고 싶어하기도 했으며, 맛있는 과자가 가득한 가게의 점원이 되기를 꿈꾸기도 했다. 또 한편으로는 커다란 범선을 타고 망망대해를 오가는 무역상을 꿈꿨다.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지칠 줄 모르고 분주한 아이는 처음"이라고 할 정도로 그는 개구장이였다.

아버지는 목수이자 작은 집을 짓는 건축업자였다. 아버지가 종이에 원숭이와 코끼리 등과 같은 동물을 그려 건네주면, 토비는 그 형상들을 가위로 오리며 놀기도 했고, 그 지역 인디언들이 담뱃대로 사용하던 붉은 돌을 깎아 동물 모양을 만들기도 했다고 그는 회상한다. 후에 토비는 어린 시절 놀이의 기억 탓인지 100여종의 비누조각을 남기기도 했다.

애초에 그의 아버지는 마크가 성장하여 자기 밑에서 벽돌공으로 일하면서 집 짓는 일을 배우기를 원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림에 관심이 있던 아들의 재주를 알아보고는 마을에서 11마일 정도 떨어진 시카고에 있는 한 미술 학교의 주말반에 보낸다. 거기서 토비는 수채화나 소묘를 배울 수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병환으로 일자리

필선의 강약으로 공간을 표현
화면 중심·경계의 서열 해체
상호 분별 없는 '禪'과 맞닿아

를 찾아야 했기에, 2년 만에 그만 둘 수 밖에 없었다. 후일 마크 토비는 "그것은 다만 시간 낭비였다"고 기억한다. 학교를 그만 둔 토비는 철강 회사의 청사진 직공, 선적 직원 등의 직업을 전전하며 취업과 해고를 반복하였다. 이처럼 어려운 날을 보내던 중, 주급 1달러의 보수를 받고 패션 스튜디오 사환 일자리를 얻게 되었다. 여기서 우연히 토비의 그림 재능을 알아차린 매니저는 그에게 사환 일을 하면서 패션 스타일화에 여성의 얼굴을 그리는 일을 맡겼다. 이후 주급은 6달러로 늘었다. 이렇게 하여 토비는 패션 일러스트레이터로 경력을 키워가는 가운데, 뉴욕을 오가며 그림 수업에 전념했다.

토비는 1917년 뉴욕에서 처음으로 전시를 했다. 여기에 출품된 상당수의 드로잉들은 지금은 목탄 가루가 퍼져 희미해져 버렸으나, 토비는 한 자화상에서 전문적 초상화가로서 자신의 능숙한 테크닉, 사고의 명징성 그리고 관찰의 예리함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마크 토비는 1935년 자신의 작품 세계에 하나의 이정표라고 할 수 있는 몇 점의 그림을 세상에 내놨다. 〈Broadway Norm〉, 〈Broadway〉, 그리고 〈Welcome Hero〉 이 세 작품은 이방 종교에로의 개종, 동양의 서예와 수묵화의 영향, 그리고 선불교의 체험을 예술적으로 승화하여 표현한 그림들이다. 이 그림들은 미술사의 혁신적 전환기를 이끈 〈하얀 글씨〉 작품 시리즈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토비는 원래 개신교 집안에서 자랐다. 그러나 우연한 일을 계기로 그는 자신의 예술세계에 중요한 영적 전환점을 제공하는 '바하이(Baha' i)' 신앙을 접하게 된다. 오늘날의 이란 지역인 19세기 페르시아의 바하올라(Bahá' u' lláh, 1817-1892, 아랍어로 '하느님의 영광')가 창시한 바하이 공동체는 창조의 근원인 유일신을 우러르며, 모든 종교의 궁극적 근원은 하나이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세 가지의 단일성(oneness)을 핵심으로 하는 신앙이다. 1918년 뉴욕에서 토비는 우연히 한 여류 초상화가를 만났다. 자동차나 마차는 커녕 동전 한 푼도 없었던 그는 그녀의 집까지 걸어서 바래다주었다. 산책 겸 배웅하며 걷던 중, 그녀는 문득 토비에게 자신의 초상화 모델이 되어 주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초상화의 모델로 포즈를 취하던 토비는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바하이 종교 관련 서적을 발견하고 호기심을 보였다. 후에 메인주의 바하이 캠프의 집회에 초대를 받았던 토비는 거기에서 바하이교로 개종을 하게 된다.

토비의 작품세계에 또 하나의 주요한 영향은 바로 동양의 서예다. 1923년 토비가 시애틀의 코니시 예술학교(Cornish Art School)에 재직하고 있을 때, 인접한 워싱턴 주립대학으로 유학을 왔던 중국인 덩궈이(鄧魁, Teng Kuei)를 만났다. 덩궈이와의 오랜 친분을 통해 그는 동양의 서예와 수묵을 처음 접한다. 토비는 1934년 학술 프로그램의 지원으로 직접 중국으로 건너가 덩궈이의 집에 머물면서, 상하이 예술학교에서 본격적으로 서예의 운필과 서법을 익혔다.

이후 토비는 일본에서 선불교에 입문하였고, 노가쿠, 가부키, 우키요에 등 다양한 일본 전통문화를 체험하였다. 그의 회고를 살펴 보면, 교토에서 한 달 남짓한 짧은 기간에 자신의 생각을 늘 일깨운 것은 불교 사찰에서의 조용하고도 강렬한 정신적 경험이었으며, 사찰의 승려들과 이야기 나누며 이어지던 화두였다고 한다.

동양의 '선(禪)' 을 만난 마크 토비의 '선(線)' 은 그의 그림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토비는 단단한 형태를 깨고 부수어, 자연주의적 환상을 파괴하며 선들을 엮어, 보다 깊은 공간을 만들어 낸다. 마크 토비의 그림은 보는 이들을 압도하지도 않으며, 분명한 그 무엇을 지시하지도 않는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많은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은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은 하찮다는 사소한 분별을 강요하지도 않는다. 마크 토비의 작품에서 만나는 중심과 주변의 경계가 없는 수천 개의 하얀 필선은, 사각의 테두리에 갇힌 우리의 시선을 무한한 내면의 영성(靈性)으로 인도한다.

마크 토비는 이렇게 말했다. "지구는 둥글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의 관계나 예술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흔히 우리는 참으로 둥근 그 무엇이 있는 인간의 내적 세계를 희생하는 댓가로, 외부 사물에 대한 그 무엇을 추구하는 데에 지나치게 몰입해 있다." 여기서 토비는 '인간의 내면에서 발견하는 참으로 둥근 그 무엇' 에 집중한다. 이것은 부처가 이른 '허공의 마음(無心)' 이다. 허공은 집착할 것이 없으므로 걸림이 없다. 따로 얻을 것도 없고, 굳이 얻고자 하는 것도 없다. 죽음 역시 소멸이나 파괴가 아니라 거대한 우주로 돌아감이다. 현대 추상 미술은 선(禪)사상과 같은 지점에서 만난다.

작품의 소재와 형식 그리고 정신적인 측면에서 마크 토비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국와 유럽의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그는 압도될만한 엄청난 스펙터클한 작품을 결과물로 도출하려 노력하기보다는, 인간의 근원적 영성을 통해 동양과 서양의 접점을 끊임없이 탐색하고, 회화라는 매체로 자연과의 깊은 교감과 존재의 헌신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보여주려 하였다. 어쩌면 마크 토비는 작품을 통해 비어있으나 완전히 고정되어 있지 않은 무엇으로 가득한 세계, 자연주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구현 불가능한 실체의 세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신비의 세계를 지시하고자 하는 지도 모른다.

크게 이루면 터진 듯하나 그를 쓰더라도 허물어지지 않고, 크게 차면 빈 듯하나 그 쓰임이 끝이 없다.
크게 곧으면 마치 굽은 듯하고, 크게 솜씨가 좋은 것은 마치 서툰 듯하며, 크게 말 잘하는 것은 마치 어눌한 듯하다.
고요함은 떠들썩함을 이기고 차분함은 열기를 이긴다.
맑고 고요함이 천하를 바로잡게 된다.
(大成若缺, 其用不弊, 大盈若冲, 其用不窮. 大直若屈, 大巧若拙, 大辯若訥. 躁勝寒, 靜勝熱, 淸靜爲天下正.) 노자의 〈도덕경(道德經)〉 45장

〈미술학자〉

종교법인 세계불교 법왕청
WORLD BUDDHIST DHARMA-KING CENTRAL GOVERNMENT
문화체육관광부 2013-82호. 고유번호 101-82-23205.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도매인 세계불교 법왕청.com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INTERNATIONAL BUDDHISM LEADER ASSOCIATION
문화체육관광부 2009-19호
고유번호 101-82-18115



국제 승려 구족계 금강계단 제5회 비구 수계 대법회

테라와다 상좌부 사사나 양곤 승가대학에서 단기 출가의식 직접체험

2020년 2월 16일 ~ 2월 22일

세계불교정상들의 모임
개최 예정으로 각국불교대표 및 승왕
(금강계단과 회의 일정 조율 때 친견계획중)
세계불교도들의 우꾸마라 법왕 (미얀마연방승가회 회장, 종정)
한국,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스리랑카,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사아, 중국, 대만, 일본, 말레이시아, 네팔, 몽골, 인도

종교법인 세계불교법왕청과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에서는 450여 종단의 모든 스님들에게 출가승으로 거듭나 10년, 20년, 30년, 40년의 법납의 스님들을 행자, 사미승의 마음으로 초발심으로 되돌아가 새롭게 발심하는 계기를 갖고자 큰 마음 큰 뜻으로 미얀마연방 공화국 종교성의 후원과 미얀마 연방승가회의 도움을 받아 三師 七證 대원로 큰스님들을 모시고 승가대 많은 스님들의 독경 속에 장엄하고 여법한 국제 금강계단을 마련하였습니다.
미얀마 국립 양곤 사사나 승가대학교와 연방승가회 정식 비구 계첩을 받게 됩니다.

■ 후원계좌 : 국민은행 023501-04-14758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국민은행 023501-04-214874 세계불교 법왕청
■ 신청기간 : 선착순 50명 * 제출서류 : 이력서1통, 사진1매, 여권사본
■ 서류제출 : 03158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68 (청진동6번지 신영빌딩 303호)
■ 문의전화 : 02-733-5665 / 010-3618-6061

사람에게는 두 개 고향이 있다



임종욱의
붓다와 마주한 인생독법

㉑ 태어난 고향과 죽을 고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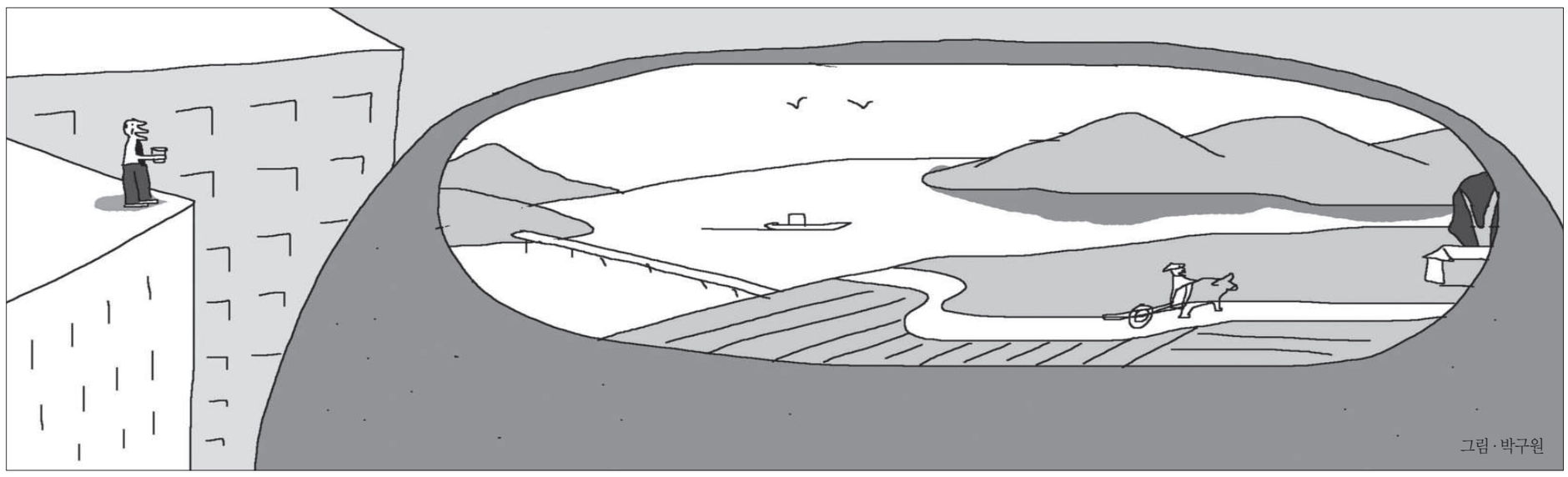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우리의 고향은 어디일까?

1년은 365일이고, 열두 달로 나눠진다. 지금은 보통 숫자를 나열해 달 이름을 정하지만, 예전에는 11월을 동짓달이라 했고, 12월을 섣달이라 불렀다. 그래서 한데 묶어 동지섣달이라 하면 '한 해 가운데 가장 추운 계절'을 가리켰다. "동지섣달 꽃 본 듯이"란 말도 그때가 그만큼 춥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런 표현에서 달은 음력이 기준이다. 지금은 11월 중순이지만, 음력으로 따지면 10월이다. 음력으로 11월 동짓달이 오려면 아직도 두 주는 더 기다려야 한다.

음력 11월을 동짓달이라 부르는 까닭은 이 달에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지(冬至)가 있기 때문이다. 12월은 섣달이라 부르는데, 이 달에 설날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면, "뭔 소리, 음력 1월 1일이 설날 아닌가?" 하고 의아해 할 것이다. 음력 12월을 한 해의 시작으로 삼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인식이 그대로 남아 섣달이란 말이 관습적으로 쓰인 것이다.

한 해 가운데 가장 바쁜 달은 언제일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는 11월이라 말하고 싶다. 이제 겨우 두 주가 지났을 뿐인데, 정말 정신없이 바빴다. 초하루에는 남해에서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화전문화제'에 참여했다. 입장식 때 우리 매구팀이 개회의 문을 여는 시가행진을 행렬의 앞에 서서 벌였다.

이어 10개 읍면이 공설운동장 안에서 가장행렬 경연을 벌여 3등까지 상금을 받는데, 어쩌다 보니 나는 내가 사는 고현면의 가장행렬 시나리오와 연습을 맡게 되었다. 메시지는 좋았는데, 돈을 듬뿍 투자한 다른 면에 밀려 순위권에는 들지 못해 조금 분했다.

2일에는 제10회 김만중문학상 시상식이 있었다. 나는 7년 전에 대상을 받았다 해서 초청을 받아 축사를 했다. 지방 자치단체에서 주는 상을 받자마자 그 지역에 정착해 글을 쓰는 작가가 드물기도 했고, 주최 측의 배려도 있었다. 이 자리에서 나는 내가 대상을 받은 것은 행운이 아니라 '운명'이었다는 취지로, 올해 수상자들도 남해를 알리는 일에 앞장서 주기를 부탁했다.

7일에는 남해 향교에서 주관하는 '유림(儒林)의 날' 시가행전에 우리 매구패들이 선도를 맡았다. 다음날에는 남해 팔만대장경 판각성지보존회에서 개최한 심포지엄에 참가해 질의를 했다. 또 10일에는 남해에서 열리는 '800리길 사이클 경주대회' 결선 지점에서 완주한 참가자들을 격려하는 공연을 2시간 넘게 벌였다.

아직도 행사는 많이 남았다. 돌아오는 두 차례 일요일에는 화전매구와 집들이굿놀음의 선진지 견학 여행을 다녀와야 하고, 새로 개장하는 매구연습장 준공식 공연도 예정되어 있다. 마지막 주에는 고현에서 가장 먼 미조면 항구에서 있을, 수협 건물 완공식에서의 공연이 잡혀 있다. 또 느닷없이 무슨 행사가 잡힐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런 일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지난 9일 있었던 수필가 김희자 선생의 수필집 '바람의 지문'(수필세계사) 출판 기념회에 참석한 일이다.

김희자 수필가는 남해군 남면 가천에 있는 '다랭이마을' 출신이다. 고등학교 때까지 살다 고향을 떠나 주로 대구에서 활동했는데, 홀로 남은 병모(病母)를 모시고자 작년에 귀향했다. 그리고 그간 써온 수필들을 모아 책을 냈는데, 이 책에는 귀향해서 쓴 글도 꽤 많이 실려 있다.

김희자 수필가를 처음 대면한 것은 김만중문학상 시상식 뒤풀이 장소에서였다. 전까지 이름은 들었지만 만나기는 처음이었다. 그 날 출판 기념회 초청을 받았고, 나는 즐겁게 가겠다고 약속했다.

마을회관에서 열린 행사에는 남해 안팎에서 활동하는 남해 출신 문인들이 여러 분 참석했다. 내가 존경하는 시조시인 이처기 선생님도 오셨고, 얼마 전에 시인으로 등단해 패기만만한 전 남해군수 정현태 님도 왔다.

이 자리에서 내게 건배사를 하라는 제의가 들어왔는데, 나는 사양했다. 김희자 수필가를 안 지 고작 일 주일이고(시간으로 따지니 200시간도 되지 않았다.), 그녀의 작품을 읽지도 못해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마음먹은 것은 있었다.

사람에게는 두 개의 고향이 있다. 그 고향이 같으면 비교적 행복한 삶을 산 것이고, 다르면 굴곡이 많은 삶을 살았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 고향은 어딜까? 궁금하시겠지만, 별 거 아니다. '태어난 고향'이 있고, '죽는 고향'이 있다. 김희자 선생의 미래 삶이 어떨지 알 수 없지만, 두 고향이 같을 가능성도 많다. 그러면 그 사이 삶의 궤적이 어떠했든 행복한 삶이라 말하고 싶다.

그런데 나는 어떨까? 내가 '태어난 고향'은 경북 예천군인데, 초등학교를 입학하자마자 바로 떠나 줄곧 서울과 경기도 인근에서만 살았다. 그리고 7년 전에 남해로 내려왔고, 그때 나는 이곳에서 내 삶을 마치기로 결심했다. 그러니 내가 '죽을 고향'은 남해가 될 것이다. 40여 년에 걸친 서울 생활은 다 잊고 싶을 만큼 끔찍하다.

'태어난 고향'에서 죽고 묻히지 못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많은 작가들에게 두 고향은 다르다. '롤리타'를 써 일약 세계적인 작가가 된 블라디미르 나보코프(1899-1977)는 러시아에서 태어나 유럽과 미국에서 살다 스위스에서 죽었다. 그의 영혼이 조국 러시아로 돌아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역시 전형적인 '유목민적인 삶'을 살았다.

나는 김희자 수필가가 축복받은 작가란 말을 전해주고 싶었다.

위대한 인간의 숙명 '구도'
입적시 '죽음'의 고향 정해
행복한 삶의 궤적 그리자

부처님도 두 개의 고향이 달랐다

돌이켜보니 석가모니 부처님의 두 고향도 다르다. 인도 코살라 왕국 카필라바스투에서 태자의 지위로 태어난 부처님은 고행과 명상 끝에 위대한 각자(覺者)가 되셨고, 45년 동안 포교 여행을 하시다 마가다 왕국 쿠시나가라에서 입적(入寂)하셨다.

물론 부처님의 두 고향이 다르다 해서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는 너무나 큰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사바세계 중생들에게 이 깨달음을 전파하고자 떠돌아다녔고, 그 역할을 마치자 그곳을 입멸(入滅)의 장소로 택했을 뿐이다. 위대한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숙명 같은 것이 아닐까 나는 생각한다. 여느 사람들, 특히 보잘것 없는 삶을 살고 있는 나와는 비교할 일도 아니다.(그래도 위안은 된다.)

불가의 구도자(求道者)들은 출가하면서 부모형제와의 인연도 끊어야 하는데, 고향 따위를 염두에 둘 리는 없다. 이 온 누리가 고향이고, 모든 사람들이 부모형제일 것이다. 그들은 궁극적으로 찾고자 하는 것을 찾아 나섰으니, 그런 삶이 고되다 여기지 않았을 터이고, 어디에 누워 죽든 바로 고향이 되었을 것이다.

그래도 타향에서의 죽음은 서글프다. 나는 구도자의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늘 떠오르는 시가 있다. 구도 여행기 '왕오천축국전'을 남긴 혜초(慧超) 스님이 책에서 남긴 작품이다.

고향에서는 등불의 주인을 잃고
객지에서는 보배나무 꺾이었구나.
신령스런 영혼은 어디 갔는가
옥 같은 그 얼굴은 재가 되었다.
생각하면 슬픈 마음 간절하거니
그대 소원 못 이룸이 못내 섧구나.
고향으로 가는 길을 누가 아는가
부질없이 흰 구름만 떠돌아간다. (김달진 번역)

故里燈無主 他方寶樹摧
神靈去何處 玉貌已成灰
憶想哀情切 悲君願不隨
孰知鄉國路 空見白雲歸

〈조가(弔歌)〉란 제목이 붙은 이 시는 북천축국 나가라다나에서, 고국으로 돌아가려다 갑자기 병을 얻어 죽은 어느 스님을 슬퍼해 지은 작품이다. 향가에도 월명사(月明師)의 〈제망매가(祭亡妹歌)〉가 있어 애도의 극치를 이루지만, 머나먼 타국에서 구도의 염원을 이루지 못하고 숨을 거둔 이름 없는 승려의, 애달프지만 거룩한 죽음을 이처럼 애상의 마음을 담아 그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스님들은 입적할 때 〈임종게(臨終偈)〉라 해서 짧은 글이나 시를 남기는데, 거기서 어떤 스님은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표현했다. 기쁜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읽혀져 더욱 가슴을 아리게 만든다.

공자는 두 개의 고향이 같았다

떠돌아다닌 것으로 따지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공자이지만, 그는 태어난 고향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중국 산동성 곡부(曲阜)에 가면 탄생지는 물론이고 (진짜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나는 생각하지만) 무덤 일대는 성역화되어 화려하게 꾸며져 있다.

두 개의 고향이 같았으니 공자의 삶은 편안하고 행복했을까? 그는 살아서 자신의 뜻 가운데 아무 것도 이룬 것이 없었다. 공자가 대사구(大司寇, 지금의 법무부장관)를 지냈다는 이력은 후대의 몽매한 학자들이 꾸며낸 이야기일 뿐이다. 더구나 그는 죽음 직전에 보지 말아야 할 꼴을 많이도 보았다. 제자 안회와 자공, 아들 공리까지 먼저 저승으로 보냈다. 얼마나 많이 울었겠는가?

공자는 몹쓸 병에 걸린 제자 백우(伯牛)와 영결의 문병을 하고 이렇게 탄식했다.

"맙소사! 운명이런가? 이 사람이 이런 병에 걸리다니, 이 사람이 이런 병에 걸리다니!(亡之 命矣夫 斯人也而有斯疾也 斯人也而有斯疾也)"('논어' 옹야편[雍也編])

구도의 원이 이루지 못한 스님을 애도한 심경이나 요절할 운명의 제자를 애통해 하는 마음은 같을 것이다.

공자 자신도 죽기 직전에 제자 자공(子貢)이 오자 이런 술회를 남겼다고 한다.

"천하에 도가 사라진 지 오래되어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구나. 하나라 사람들은 동쪽 계단 꼭대기에 빈소를 차렸고, 주나라 사람들은 서쪽 계단 위에 빈소를 차렸다. 상나라 사람들은 두 기둥 사이에 빈소를 차렸지. 어젯밤 꿈에 내가 두 기둥 사이에 앉아 있었다. 내 조상이 상(商)나라 사람이니 죽을 때가 된 듯하구나."

너무나 바쁘게 지나가고 있는 11월이다. 음력 동지가 오려면 한 달도 더 남았다. 빨리 동지 팥죽을 먹었으면 좋겠다. 장자(莊子)는 죽음을 '영원한 휴식'이라고 말했다. 언젠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그 휴식을 얻겠지만, 이 바쁜 계절에 그 고향에 편하게 묻힐 차비를 잘 할 필요가 있겠다.

〈소설가〉

원스톱 시스템이란?!...

염불정서를 모르는 지역음향들의 부실시공으로 전국의 사찰들이 이중고를 겪으시는데 프로에게 맡겨 한 번에 최고의 시설만이 하자보수가 없어 오히려 큰 절약이라는 뜻!

원스톱시스템 구경방법 : 구경 신청이 오면 지역별로 방문. 다루기 1초 간단견본의 마이크와 법당현장 시설의 마이크를 양손에 들고 번갈아 염불시 마이크와 2m 멀리서도 내 소리가 편안할 때 나이가 들어 염불이 점점 힘이 드시는 분은 보물시스템으로 여기고 시설! 또는 다음을 기약

특장점!

(1) 영남권 20년 1천여 시설에도 단 한번도 A/S가 없었음 (A/S 기간 10년)
(2) 초간편 간단 시설로 앰프다루기 1초
(3) 중견사찰 기존 음향시설비의 1/3정도지만 염불소리는 비교시 놀라운 차이

▣ 추호라도 과장시는 본사 망신

▣ 사찰 전체음향 시설비는 일백구십만원~삼백구십만원 할부가능

▣ 앰프1, 스피커 2개, LG오디오 1개, USB, 무선마이크 종류별로 4개, 유선마이크 1개(스탠드 포함) 완벽시설까지 390만원이면 명산대찰 억대의 시설보다 **염불소리 하나만은 확실하게 월등함.**

※ 스피커 계속 연결시는 비용추가 ▣ 각종 마이크, 방송장비 및 방생용 구경!

염불시설 전문
KBS 및 각 방송사 방송기재 납품업체
마이크 공장직영, Multi-Cube
Projector EPSON
MASS MICROPHONES
Concert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TEL : (055) 343-1191
H·P : 010-9471-2026
010-7740-2026
HITEC 아이텍 미디어 대표 박공희

동국대학교 미래융합 대학
정행스님의 융합명상 가족세우기

– 불교의 새로운 상담기법과 실천법 –

각 사찰에서 신도분들과 운영할 수 있고 정확하게 작동하는 융합명상 치유상담기법

대상 : 누구나 관심 있는분
- 종교지도자 및 상담사로 창업하실분
- 가족문제 및 내면의 고민을 해결하고자 하는 분
- 마음공부에 부족함을 느끼는분
- 마음이 불편하고 하는 일이 풀리지 않는 분

문의 : 010-8634-7851(정행스님)

장소 : 서울 동국대 미래융합 대학 **학술관 279호**

시간 : **지도자 과정**
매주 화요일 19시 ~ 21시
집중수업
매월 둘째 일요일 10시 ~ 17시
(내담자 접수순 참여)

융합명상 아카데미 **천안**	융합명상 아카데미 **동대구**	융합명상 아카데미 **부산수영**
매월 둘째 토요일 오전 10시~17시 종교지도자 우대	매월 둘째 금요일 시간 미정	매월 넷째 일요일 오전 10시~17시
주소 천안시 동남구 청수3길 37(청수동) 보광사	**주소** 대구시 동구 안심로251(서호동) (지하철 반야월역 1번출구 할리스 커피 옆건물 2층)	**주소** 부산시 수영구 남천서로19번길 14 학마을 명상선원 (지하철 남천역 2번, 4번 출구 남천초등학교 앞)
접수 010-3115-3070 간사 양지우	**접수** 010-9568-7447	**접수** 010-8634-7851

융합명상 아카데미(학마을) 정행 합장

선·문학 결합된 禪風 보이다



정운 스님의
禪의 르네상스 이끈 선지식들

㉑ 운문종의 선풍

운문 선사가 제자들에게 말했다.

"보름전의 일은 묻지 않겠다. 오늘부터 보름 이후의 일을 표현할 수 있는 시구를 하나씩 지어 오너라."

제자들은 머리를 쥐어짜며 시구를 지으려고 했으나 머리에 떠오르지 않았다. 운문은 제자들에게 짧은 구절 하나를 써 보였다.

"날마다 좋은 날(日日是好日)."

무엇이 좋은 날이라는 뜻인가? 선에 군더더기를 붙이는 것은 오류를 범하는 일이지만, 삶과 관련해보자. 바로 매일 매일이 최상·최고의 날이며, 매일 매일이 둘도 없는 가장 소중한 하루이다. 그 '날(日)'이라고 하지만, 시시각각 그 순간의 자각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니 아름다운 꽃을 보는 그 순간도 단 한번이다.

'내일 봐야지' 하면 벌써 늦는다. '날마다 좋은 날(그 순간이 좋기 위해서)'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순간순간마다 소중한 삶을 인식해야 매일 매일이 좋은 날(日)이요, 매일 매일이 좋아야 달마다 달마다 좋은 달(月)이요, 달마다 달마다 좋은 달(月)이 되어야 해마다 해마다 좋은 해(年)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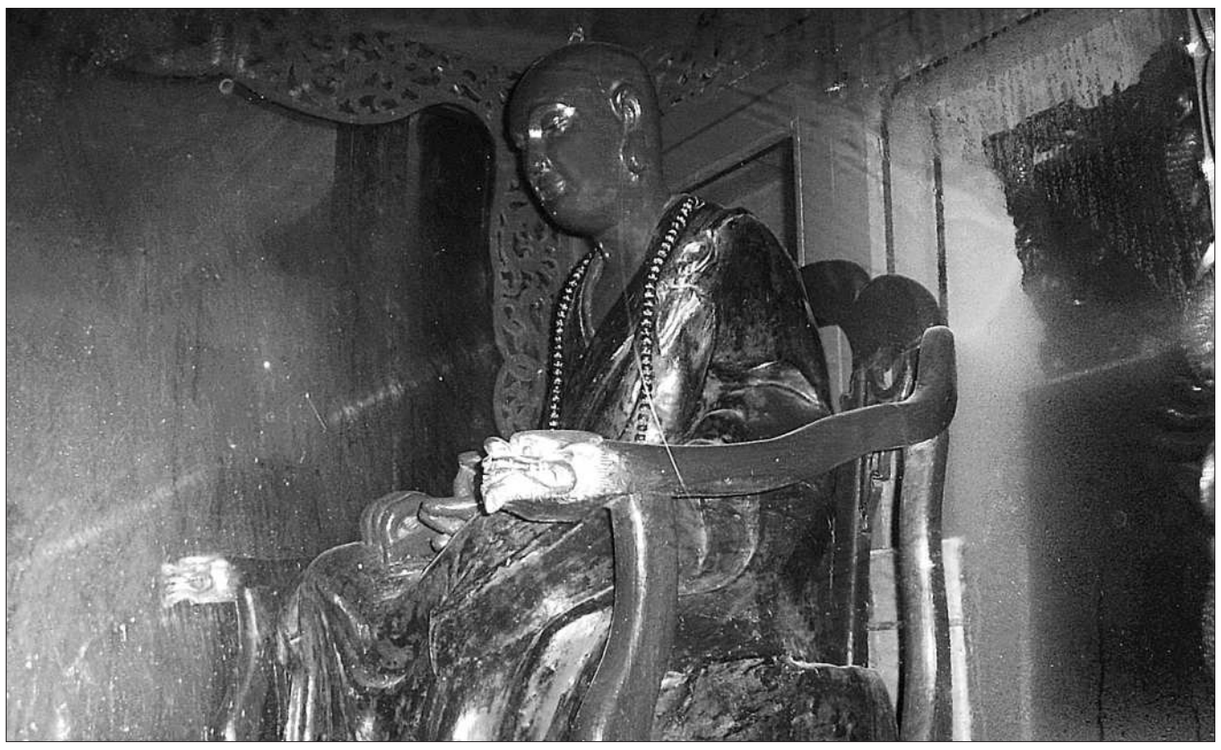
운문종 개산 당시 시대 배경

8세기 말부터 지방 절도사들의 권력이 강화되면서 중앙 정부의 권력이 약화되기 시작했다. 지방 분권이 강해지면서 세력가들은 선을 선호하였다. 10세기 무렵인 당말(960년)·오대를 전후해 혼란한 시기에 힘이 된 철학이 선종의 5가 가운데 법안종과 운문종이다.(2종은 이 무렵에 개산됨) 혼돈의 시대에 선은 정치인들과 문인들에게 마음의 안정을 주었다고 사료된다.

운문종이 개산되기 전 당시 유명한 선사가 있는데, 남쪽(현 광동성)의 설봉의존(雪峰義存, 822~908)과 북쪽(현 하북성)의 조주 종심이다. '남설봉 북조주'라고 할 만큼 이들의 선이 천하를 풍미했다. 조주는 앞선 회차에서 언급했고, 설봉 문하에서 법안종과 운문종이 개산되었다.

운문종 원류 설봉의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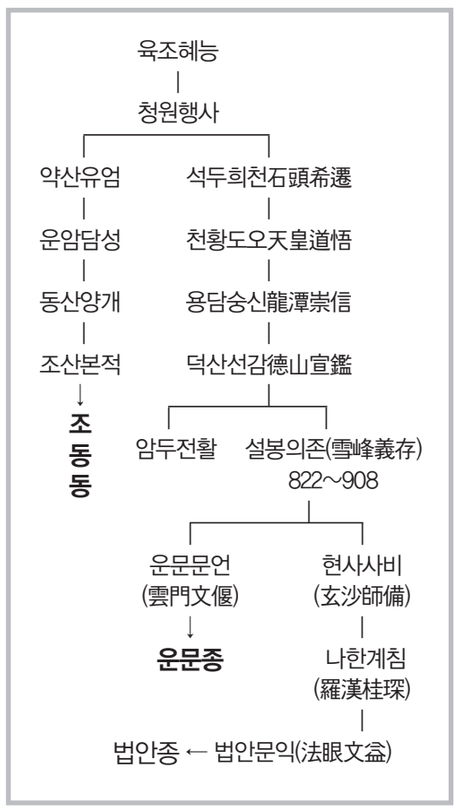
선에서 제자들을 방망이로 때렸던 유명한 선사가 덕산 선감(德山宣鑑, 782~865)이다. 이 덕산에게서 배출된 제자가 설봉 의존이다. 설봉은 복건성(福建省) 천주(泉州) 사람이다. 17세에 출가하고 얼마 되지 않아 무종의 회창폐불(845년)이 있었다. 이런 와중에도 설봉은 열심히 정진하며 세 차례나 투자대동(投子大同, 819~914)선사를 참문하고 아홉 차례나 동산양개를 찾아가 법을 찾는 구도자였다. 동산의 소개로 덕산 선감을 참례해 법을 받았다.



운문종 종조 운문문언 선사의 진신상. 중국 광동성 유원현 대각사 조사전에 봉안돼 있다.



설봉의존의 전신이 모셔진 의존조사탑. 중국 복건성 복주 설봉사에 있다.



설봉의존 법 이은 운문문언 開山
짧고 함축적 어구로 제자 가르쳐
禪·詩 조화… '일지관' 종풍 지녀
단멸하나 근대 허운 선사가 복원

운문종의 종조, 운문문언

운문문언(雲門文偃, 864~949)은 절강성(浙江省) 가흥(嘉興)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출가하기를 희망하였다. 운문은 어려서부터 보통의 아이들보다는 유난히 똑똑했다고 한다. 7~8세에 출가해 15세에 구족계를 받았다. 운문은 처음에 황벽 문하의 목주 도명(睦州道明, 780~877)을 찾아 가르침을 구했다. 운문이 절에 도착해 대문을 두드리자, 목주가 문을 열고 보더니 일언반구도 없이 '쾅' 닫아버렸다. 운문이 이틀 동안 문을 두드렸으나 거절당하고 사흘째에 다시 문을 두드렸다. 이때 목주가 문을 열고, '너는 쓸모없는 바보다'라고 말한 뒤 문을 다시 닫으려 할 때, 운문의 발이 문틈에 끼었다. 그 순간에 운문이 깨달았다.

운문이 얼마 간을 목주 문하에 머물렀을 때, 목주는 운문에게 '설봉을 찾아가 공부하라'고 권했다. 목주의 말대로 운문은 설봉 문하로 들어가 설봉에게서 깨달음을 얻고 법을 받았다. 운문의 나이 60세에 광동성(廣東省) 유원현(乳源縣) 운문산에 광태선원(光泰禪院)을 창건하고 가르침을 펴면서 운문종이 천하에 드러났다. 현재도 운문의 사찰 대각사(대각사는 비구 도량, 운문사는 비구니 도량)에 수백여 대중이 운집해 살고 있다.

일반적으로 5가 가운데 '조동(종) 사민(士民), 임제(종) 장군(將軍), 운문(종) 천자(天子)'라고 한다. '운문천자'라 칭하는 것은, 황제의 소칙처럼 한 번에 결정되어 다시 묻거나 응답하지 않는 간결하고 분명한 어조로 제자들을 지도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운문록〉에서 몇 개의 공안을 보자.

ⓐ **"부처란 무엇입니까?"/"똥 막대기이니라(乾屎橛)."**

ⓑ **"모든 부처가 나온 곳이 어디입니까?"/"동산이 물위로 간다(東山水上行)."**

ⓒ **"선(禪)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시(是,'예'라는 대답)"**

ⓓ **"도란 무엇입니까?"/"득(得, 좋습니다)"**

ⓔ **"일대시교(一代時敎)란 어떤 것입니까?"/"대일설(對一說)"**

ⓕ **"눈앞에 기(機)도 없고, 눈앞에 일(事)이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도일설(到一說)"**

ⓔ'일대시교', 즉 부처님이 재세시 설한 가르침이 무엇이냐는 질문이다. '대일설', 즉 부처님이 근기에 맞추어 법을 설했다는 뜻이다. 다음, ⓕ "설법을 들을 사람도 없고, 시간과 장소도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에 대해 운문은 "설하지 않으면 되지(到一說)!"라고 답한 것이다. 곧 병이 없는 사람은 어떠하냐[눈앞에 기도 없고 일도 없다]는 질문에 더 이상 병이 없는 사람에게는 약도 필요치 않다는 뜻이다. ⓐ·ⓑ는 대혜 종고가 그의 〈어록〉에서 중시하는 대표 공안 여섯 가지에 포함된다. 또한 ⓐ는 〈무문관〉 21칙이다.

이렇게 운문은 제자들을 제접할 때 짧은 어구로 대답하고, 그들을 지도했다. 그래서 운문종은 시적이고 철학적이며, 함축성이 담겨있어 '선과 문학의 결합'이라고도 한다. 또한 1구나 2구, 3구 등 짧은 문구로 대답한다고 해서 운문종의 종풍을 '일자관(一字關)'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운문의 선풍은 당대 이후에 발전해온 선사상과 선시의 조화로운 결합이라고 볼 수 있다.

운문의 문하에서 덕산연밀(德山緣密), 동산 수초(洞山守初, 910~990) 등 명승이 배출되었다. 동산과 관련된 공안(洞山三頓棒, 〈무문관〉 15칙)이 있다.

동산이 스승인 운문을 찾아갔다. 운문이 물었다.

"어디서 왔느냐?" "사도에서 왔습니다." "그래, 여름철은 어디에서 지냈는고?" "호남의 보자사에서 지냈습니다." "어느 때에 그곳을 떠났는가?" "8월 25일에 출발해 왔습니다." 동산의 답에 운문이 혀를 차며 말했다. "원래대로라면 막대기로 3돈(60대)을 때려야 하지만, 오늘은 참는다." 다음날 동산이 운문을 찾아가 다시 물었다. "어제 스님께서 저를 막대기로 60대를 때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도무지 제 잘못을 모르겠습니다." "이 밥통아! 강서·호남, 어디를 돌아다녔냐는 말이다.!" 운문이 크게 일갈을 하자, 이때 동산이 대오했다고 한다.

여기서 돈이란 20대를 뜻하므로 3돈은 60대를 말한다. 선의 입장에서 보면 사도(지역명)가 원래의 사도가 아니고, 보자사 역시 보자가 아니며, 8월 25일이라는 숫자 역시 본래 있는 날짜가 아니다. 애석하게도 운문종은 몇 대를 지나 단멸하였다. 그러나 근현대의 선사 허운(1840~1959)이 법맥을 살려 운문종의 종풍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조계종 불학연구소장〉

그림 족자

幸運(행운)과 福(복)을 선사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42수 진언

과거 무량겁에 걸친 불보살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다라니를 이제 그림으로 만나세요.
다라니를 지니고 독송하는 사람은 그 진실된 힘의 옹호를 받고 서원을 이루게 됩니다.

소원하는 일에 해당하는 손모양과 진언을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손으로 보듬어 주시고 손안에 있는 눈으로 보고 살펴주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2수 진언을 卍자 형상으로 배치하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을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레드)

42수진언 족자 (그린)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중의
'못쟈못쟈' 확대사진



42수진언 족자 중의
'여의수주 진언' 확대사진

법보시용으로 탁월하며 각 가정에 행운과 복을 선사합니다.
10개 이상 구매시 원하시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제품명	신묘장구대다라니	42수진언
크기 및 가격	사찰용 100,000원 가정용 80,000원	
	사찰용 65×145cm 가정용 45×110cm	
색상	그린 · 레드	그린

특별증정 족자 구입시 10,000원 상당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천수경」을 드립니다.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자신 먼저 돌아볼 줄 알아야



新 불교사자성어

㊶ 조고각하(照顧脚下)

조고각하, '자기 발(다리) 아래를 잘 살펴보라' 는 뜻이다. 사찰에 가면 대웅전이나 법당, 선방이나 대중방(큰방) 섬돌 앞에 '조고각하' 라는 글씨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글자를 풀이하면 '조고(照顧)' 는 '돌아보다' , '살펴보다' 는 뜻이고, '각하(脚下)' 는 '발 밑' 또는 '다리 아래' 를 뜻한다. 즉 '자기 발(다리) 밑' 이나 '발아래를 살펴보라' 는 뜻이다.

'조고각하(照顧脚下)' 는 선종(禪宗, 선불교)에서 사용하는 언어이다. 물론 선원의 현관이나 법당, 큰방 등 신발을 벗어놓는 섬돌 앞에 쓰여 있으므로, 한자를 안다면 물을 것도 없이 '자신이 벗어 놓은 신발을 살펴보라' 즉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 놔라' 는 말임을 알 수 있는데, 아뿔싸! 자신이 벗어놓은 신발이 가지런하지 못하고 '갈 지(之)' 자가 되어 있다면, 그 하나로 그의 인격의 절반은 노출되어버렸다고 할 수 있다. 절반이 노출되었다면 그 나머지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남의 단점이나 허물은 잘 발견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단점이나 허물에 대해서는 돌아볼 줄 모른다. 남에게만 문제가 있고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자신은 옳고 상대방은 그르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논문 한 편을 쓸 정도로 예리하게 분석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무지할 정도로 모른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기도한데,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나는 항상 옳고 남은 틀리다는 사고는 금물이다. 내 생각도 틀릴 수 있고 내 말도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가장 옳다고 말하지만, 과연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옳은지, 그 확률은 얼마나 되는가? 착각이지만 자신의 판단이나 생각이 옳은 경우는 많아야 30%~40%를 넘지 못한다.

모든 분쟁이나 싸움의 발단은 자기는 옳고 남은 그르다는 데서 출발한다. 우월감, 에고 (ego)에서 비롯한 자기 존재에 대한 커다란 환상이고 착각이고, 과대망상증이다. 남의 허물이나 남의 일을 논하기에 앞서, 먼저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조고각하의 의미이다. 소크라테스가 남긴 격언으로 알려진 '너 자신을 알라(Gnothi seauton)' 라는 말이 있는데, 자신의 발밑을 관찰하는데 소홀히 하거나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면 훌륭한 인격을 만들 수 없다.

이상과 같이 조고각하의 본래 의미는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 는 뜻이다. 각하는 다리 아래지만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조고는 되돌아본다는 뜻으로서 반성적 의미다. 지금 자신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자신이 서 있는 위치는 안전한지 위태로운지, 또는 지금 자기가 하는 것은 선(善)인지, 악인지, 의로운 일인지, 불의한 일인지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인지 아닌지 등등을 잘 살펴보고 일에 임하라는 뜻이다.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반성, 성찰해 본 다음에 처신하고, 행동해야할 것이다.

필자가 10년 전에 항주 부근에 있는 선종사원인 천동사, 아육왕사 등을 답사한 적인 있다. 천동사 선당(禪堂)에 갔더니 한쪽 기둥에는 '염불자수(念佛者誰, 염불하는 자는 누구인가)' 라는 화두가 붙어 있고, 한쪽 기둥에는 '조고각하' 라는 말이 붙어 있었다. 풀이하면 '염불자수' 라는 화두를 들고 있는 그대는 누구인가? 그대 자신을 보라. 조고각하.

선불교에서 조고각하의 의미는 '지금 당장 너 자신을 살펴보라' , '너 자신의 문제부터 해결하라' 는 말로서, 너의 본래면목을 찾으라는 훈계이다. 심외무법(心外無法) 즉 '마음 밖에 별도로 찾아야할 법(法)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밖을 향해 구하지 말고 안으로 자기의 본성을 살펴보라(廻光返照)' 는 뜻이다.

또는 '너는 지금 가부좌를 하고 앉아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방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치열하게 화두를 들고 있는가. 졸고 있거나(昏沈, 혼침) 번뇌 망상 속에 있는 것은 아닌가(掉擧, 도거). 지금 당장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본래면목을 찾는 데 매진하라' 는 뜻이다. 오늘날 자기 자신을 찾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사자성어이다.

조고각하는 각하조고(脚下照顧), 간각하(看脚下, 발 아래를 보라)라고도 한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본분초료 주지 못한 대룡

〈本分草料〉



격절록 강설

㊶ 보수개당 3

[評唱 3]

雪竇自蜀出峽 先見北塔 一住十年. 已有深證 離北塔 到大龍會中. 作知客亦多時. 大龍一日上堂 師出問 "語者默者不是非語非默更非 總是總不是拈却 大用現前 時人知有 未審大龍如何" 龍云 "子有如是見解" 師云 "這老漢瓦解冰消" 龍云 "放你三十棒" 師禮拜歸眾. 龍却喚適來問話底僧 師便出. 龍云 "老僧因什麼瓦解冰消" 師云 "轉見敗闕" 龍作色云 "呵呵呵" 師休去.

설두(雪竇, 설두중현, 980~1052)는 촉(蜀)으로부터 협(峽)으로 나와 먼저 북탑(北塔, 지문광조)을 친견했다. 한 번 머물면 10년을 있었는데, 깊이 증득한 것이 있어 북탑을 떠나 대룡(大龍, 대룡지홍) 회상에 이르렀다. 여기서 지객(知客)의 소임을 맡고는 오랜 세월 있었다.

대룡이 하루는 상당(上堂)을 하자, 설두가 나와 물었다.

"말하는 것도 침묵하는 것도 옳지 않고, 말하지 않는 것도 침묵하지 않는 것도 또한 옳지 않습니다. 옳고 옳지 않은 것을 모두 집어내서 대용이 앞에 들어나야 그 때 사람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룡 스님께서는 어떠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룡이 말했다.

"그대에게 이와 같은 견해가 있었군!"

선사가 말했다.

"이 노장이 기왓장이 깨지듯 얼음이 녹듯 하시네."

"대룡이 말했다.

"그대에게 30방을 치리라."

(그러자) 선사가 절을 올리고, 대중 속으로 돌아갔다.

대룡이 조금 전에 물었던 스님을 부르자, 설두가 바로 나왔다.

대룡이 말했다.

"노승이 어째서 기왓장이 깨지듯 얼음이 녹듯 했는가?"

설두가 말했다.

"보면 볼수록 낭패입니다."

대룡이 불쾌한 기색을 하며 말했다.

"견디기 어렵구나, 견디기가 어려워(呵耐呵耐)!"

설두가 바로 쉬었다.

雪竇後行脚到南嶽 舉似雅和尚 雅云 "大龍何不與本分草料" 師云 "和尚更須行脚" 後大龍小師 在浙中相見 謂曰 "何不與先師燒香" 雪竇云 "昔僧問先師 色身敗壞 如何是堅固法身 先師云 山花開似錦 澗水湛如藍 我誦此因緣 報他恩了也"

설두가 뒤에 행각 중에 남악(南嶽)에 이르렀는데, 앞의 일을 들어 아(雅, 복엄양아) 화상에게 말했다.

아 화상이 말했다.

"대룡이 어째서 본분초료(本分草料)를 주지 않았는가?"

설두가 말했다.

"화상! 다시 행각 하셔야 합니다."

뒤에 대룡의 제자(小師)를 절중(浙, 절강성, 저장성)에서 만났다.

대룡의 제자가 말했다.

"어째서 선사(先師, 대룡)께 분향하지 않습니까?"

설두가 말했다.

"지난 날 어떤 스님이 선사(先師, 대룡)께 묻기를 '색신은 무너지거니와 어떤 것이 무너지지 않는 견고법신입니까?' 라고 묻자, 선사께서 이르기를 '산에 꽃이 피니 비단 같고, 골짜기에 물이 맑으니 쪽 같구나!' 라고 했다. 내가 이것을 외운 인연으로 선사께 은혜를 갚았다."

※본 보수개당 3편은 설두 스님의 선지를 설명하는 부분으로, 다음 4편으로 보수개당이 이어집니다. 〈강승욱 법사〉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㊶ 이해의 길 21

대승불교 일으킨 주역들

어떤 우연한 만남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때 우리는 인연이라 부른다. 물론 나쁜 결과를 가져오면 악연이 된다. 그런데 하나의 우연이 훗날 엄청난 역사적 사건으로 이어지면, 그 우연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대승불교의 발생과 붓다의 장례식이라는 사건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붓다의 다비식과 대승불교는 과연 어떤 인연이 작용하고 있을까?

붓다는 자신의 장례를 출가자가 아닌 재가자에게 맡겼다. 다비가 끝난 후 마가다와 코살라를 비롯한 여덟 나라에서 온 사신들은 붓다와의 인연을 강조하면서 사리를 모셔가겠다고 다툼을 벌였다. 결국 그들은 공평하게 1/8로 나누어 붓다의 사리를 가지고 그들 나라로 돌아갔다. 그리고 불탑(佛塔)을 세워 사리를 모시고 붓다를 추억하였다. 그곳이 훗날 대승불교를 일으킨 역사적 공간이 될 줄 그 누가 알았겠는가.

지난 호에서 살펴본 것처럼 부파불교는 지나치게 학문적인 태도로 인해 대중들로부터 멀어졌다. 불교를 알고 싶어서 절에 찾아가도 비구들은 그들을 만나주지 않았다. 자기완성을 위한 공부에도, 영원불변하는 75개의 법(法)을 연구하기에도, 자기 부파의 독립적인 논서를 완성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갈 곳을 잃은 재가자들이 의지할 곳은 한 곳밖에 없었다. 바로 붓다의 사리를 모신 불탑이었다.

당시 절은 승려들이 관리했지만, 탑은 재가자들이 별도로 운영하였다.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날 즈음 인도 전역에는 8만 4천 개의 탑이 있었다고 전한다. 수많은 탑을 세우는 데 경제적으로 지원한 인물이 바로 아소카왕이다. 그 덕분에 불탑을 순례하는 이들이 많아지게 되었다. 절에서 발길을 돌린 불자들은 탑에 찾아와 꽃과 향을 바쳤으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붓다를 예경하였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탑을 돌면서 소원을 비는 등의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이어나갔다.

그런데 탑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곳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불교를 설명해주는 사람이 필요했다. 그들은 붓다의 발자국이나 법륜(法輪), 보리수, 일산 등을 탑에 조각하여 순례객들에게 붓다의 생애를 전해주었다. 당시는 붓다와 같은 위대한 인물은 그림으로 표현할 수 없다는 풍습 때문에 붓다의 모습을 직접 그릴 수 없었다. 그래서 이러한 상징을 통해 불교를 전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들이 바로 오늘날 법사(法師)의 원형이다. 이처럼 탑을 중심으로 모인 재가자들이 붓다의 근본정신으로 돌아가자고 외친 대승불교의 주역들이다.

이 과정에서 주목되는 점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바로 탑을 중심으로 모인 이들 중에 붓다의 생애를 기록한 찬불승(讚佛乘)이 등장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불교를 널리 알리기 위해 붓다의 생애뿐만 아니라 전생담(前生譚), 즉 전생의 이야기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를 자타카(Jataka)라고 한다. 우리들에게 익숙한 달 속의 토끼가 방아를 찧는다는 이야기도 자타카에 나오는 내용이다. 달 속의 토끼가 바로 붓다의 전생 모습이다.

그렇다면 찬불승들은 왜 이런 자타카를 만들었을까? 여기에는 붓다의 위대한 인격에 대한 흠모가 자리하고 있다. 그들은 붓다의 삶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위대한 인격이 6년 동안의 수행으로 가능할까?' 라는 문제의식을 가졌다. 그들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붓다가 수많은 겁(劫)의 시간 동안 토끼나 임금, 사문 등 여러 모습으로 윤회하면서 수행에 수행을 거듭한 결과 금생에 싯다르타로 태어나 6년간의 고행 끝에 깨달음을 얻고 위대한 삶을 산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자타카였다. 붓다의 전생담을 만들어 불교를 대중들에게 널리 전한 찬불승 역시 대승불교를 일으킨 주역에서 빠트릴 수 없는 존재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불탑은 대승불교의 상징이며, 이곳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이 새로운 불교운동의 주역들이다. 과연 탑이 없었다면 대승불교가 가능했을까? 그래서 더욱 궁금해진다. 붓다는 대승불교가 일어날 것을 예견하고 장례를 재가자에게 맡긴 것인지 말이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 (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02-456-8831
강 원 도 019-396-1110
충 청 도 010-6545-3350
경 상 도 010-4187-0062
전 라 도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엄홍길 산악회장, 스포츠영웅 선정

대한체육회 발표, 헌액식 11월 26일



엄홍길 조계종산악회장<사진>이 '2019 대한민국 스포츠영웅' 으로 선정됐다. 대한체육회는 10월 31일 제10차 스포츠영웅선정위원회를 열고 엄홍길 회장을 비롯해 쇼트트랙 전이경, 수영인 故조오련 등 후보 3인 중 엄홍길 회장을 '2019 대한민국 스포츠영웅' 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엄홍길 회장은 세계 최초 8000미터 16좌를 완등해 불자들의 긍지를 세계적으로 높인 대표적 불자 산악인으로 2008년에는 '엄홍길휴먼재단' 을 설립해 네팔 등 개발도상국가의 교육 및 의료 지원사업에 매진하고 있다.

2010년에는 조계종 신도증 홍보대사로 활동했으며, 조계종산악회 초대회장을 역임하며 불자산악인의 조직확대 등에 앞장서고 있다. 이런 공로고 지난해에는 불자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한편, 2019대한민국 스포츠영웅 선정에 따른 헌액식은 11월 26일 오후 3시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다.

노덕현 기자



和音에 담아낸 울산불심

울산불교 합창경연대회 성황리 개최

울산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름다운 음성으로 부처님을 찬탄하고 하나가 되는 시간을 마련했다.

울산불교연합신도회(회장 이병호)는 11월 6일 울산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에서 '제23회 붓다 페스티벌 울산불교 합창경연대회' 를 개최했다. 경연대회에는 정토사 정토합창단, 법륜사 마야합창단, 한마음선원합창단, 황룡사 아리아합창단, 조계종사암연합합창단, 백양사 삼보합창단, 월봉사 월광합창단, 정광사 바라합창단, BBS울산불교방송합창단 등 9개 합창단이 참가했다.

경연대회 대상은 조계종사암연합합창단이 받았으며 금상은 한마음선원합창단, 은상은 정광사 바라합창단, 동상은 법륜사 마야합창단, 인기상은 월봉사 월광합창단이 수상했다.

2부 행사에서는 울산시민을 위한 축하공연이 열렸다. 황룡사 나모라 소년소녀 어린이합창단, 국악인 김연진, 울산 미즈코러스, 가수 이용이 등이 특별출연해 신명나는 무대를 선사했다.

이병호 울산불교신도회장은 "울산불교 합창경연대회는 전국에서 가장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울산불교축제 중 하나"라며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부처님 큰 가르침을 화음에 담아 온 누리에 음성공양을 올리는 여러분과 음성 공양을 받는 모든 분들이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신명나는 청년불교 조계사가 만듭니다"

Interview

김경순 제29대 조계사 청년회장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11월 9일 청년회장에 취임
반야율동단 등 다양한 활동
즐거운 신행 청년들에 제공

11월 9일 조계사 인근에 자리한 조계사 청년센터에서는 작은 행사가 열렸다. 그동안 27대와 28대 조계사 청년회를 맡아 이끌었던 한정민 회장의 이임과 29대 청년회를 맡을 김경순 회장의 취임이 이뤄진 것이다.

청년회를 이끄는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된 김 회장은 활기찬 목소리로 신명나는 청년불교 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다짐했다.

김경순 회장은 조계사 청년회에서 진행하는 반야율동단에서 2015년부터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청년불자들의 일상을 브이로그로 보여주는 새 콘텐츠인 '청년불자 반야' 팀을 구성해 제작, 조계종 포교원 불교크리에이터 1기로 위촉되기도 했다. 김경순 회장은 본인부터 사찰에서 즐겁게 놀며 불심을 키워왔기에 그만큼 다양한 활동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다.

"10년 전 처음 조계사에 왔을 때는 친구 따라 강남 간 케이스였습니다. 사찰 청년회를 하고 싶었는데 마침 친한 친구가 조계사 청년회를 하고 있었죠. 물론 그 친구는 곧 결혼하며 청년회 활동이 뜸해졌지만요."

김 회장은 이어 "저는 청년회 활동을 하기 전 '절' 이라고 하면 굉장히 엄숙한 곳으로만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며 "도반들과 함께 찬불가도 부르고 율동도 하고, 행사 때마다 재밌게 함께 활동하다 보니 정이 들었다. 이젠 저한테 떼려야 뗄 수 없는 곳으로 바뀌었다. 저처럼 많은 청년들이 사찰에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자연스럽게 사찰 청년회, 사찰 신도회로 가입해 활동했으면 한다"고 바람을 밝혔다.

조계사는 지난 10월에 조계사 청년센터를 개원했다. 아직 본격적인 공간 활용에는 나서고 있지 않지만 김 회장의 취임과 함께 새로운 청년포교운동의 터전으로 자리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청년센터가 만들어져 정말 기쁘다. 이곳에서 많은 청년들이 편안히 드나들며 고민 상담도 하고 공부도, 놀이도 할 수 있었으면 한다"며 "그동안 노력해온 전임회장의 원력을 이어 즐거운 청년포교를 진행해보려고 한다. 조계사 청년회가 정말 많은 행사를 소화하는 만큼 다양한 행사에서 참가자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끝으로 "먼저 도반, 법우들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들어갈 예정"이라며 "처음에는 미숙한 부분이 많겠지만 도반들의 의견을 모아 젊은 청년들의 니즈에 맞는 구체적 계획을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새롭게 출발하는 조계사 청년회를 응원해 주세요.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함께 '으쌰으쌰' 신명나게 활동하는 즐거운 청년회가 되도록 저부터 항상 웃으며 여러분을 맞을게요!"

무등시장 발전 돕는 탁발재현

광주파라미타청소년협회 스님
상인 애로사항 지자체에 전해



광주 무등시장에서 탁발을 재현하며 상인들의 소원지를 받은 스님들.

과거 민중과 소통하며 절 살림을 유지했던 옛 전통의 탁발의식이 재현돼 눈길을 끈다.

광주파라미타청소년협회(대표 소운)는 11월 9일 광주 남구 무등시장에서 '제1회 전통탁발문화 재현행사' 를 개최하고, 일반시민들에게 탁발을 선보이는 시간을 보냈다.

행사는 주민과 소통하는 희망나눔을 주제로 탁발재현과 주민들의 소원내용을 공양 받아 남구청에 전달해 민원해결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오후 1시 무등시장 상인회의 길놀이를 시작으로 1부 기념식, 2부 탁발시연, 3부 전달식, 축원 및 기원재가 이어졌다.

소운 스님은 인사말에서 "전통 탁발행사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 위로와 공감, 나눔과 협력,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앞으로 탁발의 의미를 되살려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부처님의 지혜로 많은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주파라미타청소년협회는 이날 무등시장 상인회에 150만원, 남구청에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이웃돕기에 25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행사에는 광주불교연합회장 동현 스님, 소원정사 주지 도계 스님, 광주전남불교어린이청소년연합회장 도성 스님을 비롯해 김병내 남구청장, 임승우 무등시장상인회장 등 200여 명의 대중이 참여했다.

기념식에 이어 스님 20여 명과 만장·풍물팀은 무등시장을 순회하며 탁발시연과 상인들의 공양의식을 진행했다. 특히 이날 탁발은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담은 소원지 등을 남구청에 전달하고, 주민들과 함께 무등시장 발전을 기원하는 기도의식도 함께 열려 상인들의 호응을 얻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계 받아 참된 불자 되길"

불교법사위원회, 청송교도소 수계법회 개최



사단법인 전국교정교화 불교법사위원회(위원장 혜산)는 10월 23일 청송교도소에서 제2차 수계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수계법회에는 수용자 43명이 수계를 받았다. 수계법회에는 불교법사위 위원장 혜산 스님, 사무국장 대원 스님, 고문 법성 스님, 법사위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법회서 수용자들은 금강계단에서 오계를 받고 부처님 제자가 되기를 서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구례군민 행복한 삶 기원

구례 사성암, 구례군에 성금과 백미 기탁



구례 사성암(주지 대진)은 11월 12일 구례군(군수 김순호)에 이웃사랑 성금 1000만원과 백미 2000kg을 전달하며 군민행복과 지역발전을 기원했다. 대진 스님은 "부디 작은 정성이나마 구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져 부처님의 가피 속에 늘 지역민들이 행복한 나날을 보내길 기원한다"고 성금과 백미 전달 취지를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응공조계종 창종 8주년 법회

종정 법운 스님 등 사부대중 200명 참석



(사)대한불교응공조계종(종정 법운)은 11월 10일 총본산 칠곡 동명사에서 창종 8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법회는 종정 법운 스님과 원로회의 의장 법등 스님, 원로의원 홍원 스님, 태고종 송정사 주지 송운 스님, 교육원장 경담 스님 등 사부대중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행사와 종사이운 및 기념식 등이 진행됐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광수련원 TEL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굴셀건 80ml × 60팩 13만원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찔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 康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 4만원/회 ◆가로 9㎝ :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269호 | A13 | 전면광고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하면 무슨 일이든 마침내는 이루어진다. 저 시냇물이 흘러 흘러 마침내 바다에 이르듯이.



부처님 말씀 읽기 - 《법구경》에서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질병, 간암, 묘터, 유산낙태 조상영가, 교통사고, 이혼수, 직장 승진운
- 스님, 무속인, 일반인, 철학인
- 출장 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명리구성학, 육임학, 성명학

010-4014-8822

범불교조계종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종도모집 및 승려증 발급종단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0-9317-6686
「유튜브」에서 대명스님을 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사찰행사전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허리병 고치는 법 받을분 배울분
저서 |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 내 몸에 맞는 체조로 허리병 고친다
중풍예방. 디스크. 협착증. 불면증. 성인병 등 각종 질병
한번만 오시면 퇴치 가능
2대째 이어온 운동법 발명 특허 획득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검색
50년 전통 상담
010-3829-7582

수강생 모집
- 기문둔갑, 실전해단풀이 특강
- 속성 5개월 과정 • 한문 몰라도 됨
- 원하시는 시간에 무료 청강 가능
- 스님 환영합니다

수강료(5개월) 기문둔갑 150만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용지로95
스님 010-7589-5950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책-검색★
①인생최고의 깨달음(참불교)
②천기소설 예언자(현존불)
③기도와 명상(최상수행법)
④천등산(신통해탈기도비법)
⑤출세의 기술(성공출세술)
⑥운타이밍재테크(평생부자)
위 책이름검색 / 1권 구입해보세요
문의 010-5105-5000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3263-6544
010-5270-8260

불교용품 고가매입전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 대불 탱화, 개금, 석불, 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 제작
이조불교재활용센타
010-9177-7842

사찰화재 보험
•목조건축물 OK!!•
전국 최다 사찰 가입
010-7344-1881

재의식 속성 지도도량
49재 천도재 속성지도합니다.
사찰 포교원 암자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없이 염불소리로 재의식을 여법하게 진행할수 있게 속성으로 지도합니다. 관심있는분 연락바람.
매주 금요일 오후 2시~4시까지 (4주완성)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204 중앙시장내 법공스님
010-4382-3448

• • •
부산 도심 산에있는 암자입니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 •
010-2168-2800

충북 감곡 봉은사 공양주 모십니다
60대 컴퓨터 및 운전 가능한 분
봉은사에서는 스님분들 염불, 음치교정, 전통가요, 민요, 관음시식, 체계적으로 강의
문의 010-5883-2255
010-5893-3705

• • •
부 전 스 님
모 십 니 다
• • •
010-2078-9595

• • •
사찰처사
(운전가능)님모십니다
숙식 필수
(60세 이상, 경기도)
• • •
010-9157-2276

신통력
손에 쥐는 방법을 스님에게만 전수합니다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1-741-0867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 위주의 교육
2. 수계후공부100%(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함
문의: 054-753-8228, 010-8852-0075

단원 정통 명리학
- 교육 : 수시접수 | 초급, 중급, 연구(격국)반 접수 | 1년 과정 — 수강료 : 360만원
- 단원 정통 명리학 : 실증철학 정규과정 수강생 접수 — 단원역리학협회 법인 자격증 제도
-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 학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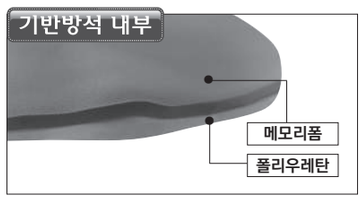
지현명리연구원 : 역학전문교육처 志晛 : 韓 基子(恩炅)
명리학 / 작명학 / 육효학 / 간지체성론과 육십갑자론(특허)
주 소 서울시 종로구 명륜4가 54-1 3층 웹사이트 cafe.daum.net/3332han cafe.naver.com/3332han
단원역리학협회 010-4470-6314

수강생 모집(그림)
- 수업 : 산수화, 풍속화, 달마도 ,동자승 • 장소 : 서울 인사동 미술 교육관
- 매주 화요일, 수요일 주 2일 [월 8일] • 수강료 : 월10만원

그림에 소질이 없어도 관심있는 분 이라면 누구나 그릴 수 있습니다. 연락바랍니다.
청곡 이한동 화백
02)2004-8216 / 010-3747-8692

세계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현불샵 TEL 02)2004-8216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국제 붓다 평화봉사단
국내외 활동 자원 봉사자 환영합니다
지구촌 그늘진 곳곳에서 자비심이 가득한 사랑으로 같이 울고 웃으며 땀 흘려 봉사해온 여성 불자 봉사단 입단의 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02-733-5665



매듭으로 뭘 만들까요?
모던하고 멋있는 장신구는 물론, 108염주, 인테리어 소품, 단주, 묵주도 만듭니다.
매듭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쳐드립니다.
지도 성낙윤 ☎ 010-5282-8431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 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 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의 한 종류로,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 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희담석 108염주 세트 40,800원(무료배송) | 구성 : 108염주 + 합장주 | 크기 : 직경 10mm
계좌안내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02)2004-8216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19,000원 |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2004-8216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명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 때 꼭 필요해요.



다보명차 (유기농 야생녹차)
최고의 향, 맛, 빛깔, 효능으로 머리 시원, 몸 따뜻
수행 짱! 아랫배 단전에 기운 모여 손발 따뜻!
우수한 제조 비법 100℃ 물에 차잎 생생~ 떫은 맛 NO!



氣 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휴 ≈ 힐링베개 스스로 딱 맞게 조절하는 베개
잠이 스르르~ 저절로.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완전해결!
이완이 스르르 저절로 와선삼매 100% 체험



보디스킨
발목, 장단지, 허벅지, 엉덩이, 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 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세계최고! 다보명차, 슈퍼유산균 효소, 호두기름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 종헌(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구단구궁법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부산 ❷,❸호선 덕천역 2번 출구 20m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98 (구포동 147-3) 3층 전층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11월 20일 수요일 | 불기 2563년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7㎝: 7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269호 | A14 | 전면광고

분에 넘치는 큰 이익을 바라지 마라.
이익이 분에 넘치면 어리석은 마음이
생기기 쉽다.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기를
'적은 이익으로 부자가 되라'고 하셨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보왕삼매론》에서

삼보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 대지 : 8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20평
◎ 가액 : 2억 8천

◎ 위치 : 인천
◎ 대지 : 101평
◎ 법당 : 34평
◎ 요사 : 34평
◎ 가액 : 12억

◎ 위치 : 부산
◎ 대지 : 196평
◎ 법당 : 30평
◎ 요사 : 35평
◎ 가액 : 6억 8천

❖ 오랜 전통 믿음과 신용으로 스님들의 가람을 일심으로 정진 불사하오며 만남의 장으로 환영합니다.
❖ 사찰, 포교원을 찾는 스님이 많이 이용하시여 뜻을 이루시고 나날이 발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절대 비밀보장 ●
전국사찰 급히 구합니다.

문의전화 010-6722-2211

사찰·연수원(터) 안내

- 위치 : 경부선 영동I.C 15분거리
- 경관수려. 완전 독립된 산속 전답.
- 총평수 : 약 5천평
- 가액 : 평당 15만원

010-9504-2388

포교원 전세 안내

-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루원시티(인천전철2호선 5분거리, 서울7호선 연말개통)교통편리
- 주변재래시장 인근 유동인구 최다, 20년 운영중인 포교원
- 3층건물 : 반지하 1층 요사채(방2개, 공양간, 야외화장실), 2층 주지실, 상담실겸 서재, 거실. 3층 법당, 제반시설 완벽하고(삼존불, 신중탱화, 칠성, 산신, 소불, 인등)
- 주차장 및 도시가스 시설 완벽, 몸만 오세요
- 전세 사신 후 저렴하게 양도가능, 투자가치 확실
- 전세보증금 : 2억(**절충가능**)

문의전화 010-5002-7392

광진불사

◎ 위치 : 서울
◎ 대지 : 200평
◎ 법당 : 50평
◎ 요사 : 60평 외
◎ 매가 : 27억 5천

◎ 위치 : 강원도
◎ 부지 : 7000평
◎ 법당 : 30평,외
◎ 요사 : 60평,외풍광보장
◎ 매가 : 20억 5천만원정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채권 채무상담 받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 임대합니다

- 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근처에 있는 사찰
- 대지 700평 : 대웅전. 지장전. 관음전. 산신각. 요사채
- 전세 5천만원 / 월 50만원
- 공양주가 있어야 함

010-3636-6477

사찰(급)안내

- 위치 :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만수소방소 건너편)
- 평수 : 단독건물, 지하1층, 지상3층, 건평 110여평
- 건물 : 지하1층-창고형,1층-공양간(방3개,화장실), 2층-방3,화장실, 3층-법당,3존불,지장불상,칠성,산신
- 가액 : 3억3천5백(사찰연력:40여년)
- 답사 하실분만 연락요망

010-8360-8259

사찰 안내

- 위치: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 평수 : 470평
- 가액 : 6억(절충가능) ● 조건: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불상,불화등기타) ● 주변 주차시설 양호함 ● 도시가스, 상수도임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쪽

010-3128-2399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나주 동강면
- 대지 230평(임대)
- 법당 20평. 산신각 10평
- 요사채 2동. 범종각
- 영산강 전망이 좋음
- 가액 : 3500만원

010-7637-1250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 부지 : 1648평(대지 927평)
- 대웅전(25평). 지장전(15평). 독성각(5평). 목조건물
- 요사채 : 조립식 건물 25평. 황토방 7평. 5평
- 납골당 5000개 가능
- 가액 : 12억 5천(가격절충가능)

010-5421-1536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상북면
- 대지 : 약 100평
- 건물 : 법당 30평. 스님방. 주방. 화장실 있음
- 산신각 : 3평(용왕당 별도 있음)
- 가액 : 6억 5천
- 대출 : 1억 7천

010-9042-7799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시내 대단지 아파트 뒤 산속. 차량 진입 불가
- 3만평 중 5천평 지분 등기가능
- 가액 : 4억 6천(조정 가능)
- 무허가 건물 ● 종무소.삼성각. 용왕전. 다실. 창고 각각 한동
- 1층 화장실(해우소)/2층 공양간 / 3 층 법당(큰법당)

011-9394-8511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회원구 내서읍 (내서IC 3분거리)
- 대지 100평. 법당 25평
- 요사채. 스님친견실. 산신각 대형주차장
- 가액 : 2억 8천만원

010-5550-9725
010-4001-8476

사찰(급)안내

- 위치 : 경주시 시래동. 정남향
- 대지 194평. 건평 43평
- 법당. 칠성. 산신. 용왕. 나반. 방 친견실. 공양간. 샤워실. 화장실
- 외부시설 : 용왕연못. 탑. 남여화장실 등
- 시설일체. 최고입지요건 갖춘 암자
- 가액 : 2억 3천만원(급양도)
- 사전 전화요망

010-5427-3699

토굴 안내

- 위치 : 밀양시 산외면 금곡4길 68-81 ● 대지 660평. 남향. 요사채 포함 ● 11동. 무건물. 법당 25평. 2017년 건축 ● 현재사용 : 천평(약수물. 각종 유실수 다량) ● 사륜구동차량 진입가능(주차장) ● 가액 : 3억 5천

010-9203-1165

사찰안내

- 위치: 경남 산청군
- 대지: 600평, 주차 30대 가능
- 주건물: 대웅전(53평), 요사채, 선방, 화장실, 부속건물: 삼성각, 용왕각, 선방, 요사채, 삼층사리탑, 일주문, 창고, 화장실, 기타
- 가액: 답사 상담후 결정 (인연있는 스님께 크게 내려 양도)

010-8957-8089

포교원안내

- 위치 : 동대문구 신이문역 3분거리 삼존불,신중,산신,지장,칠성
- 법당 겸 거실,작은방1,주방.화장실, 창고2개,고정주차1대,3층건물 중 1층
- 보증금 : 천만원, 월50만원
- 시설비 500만원(즉시법회가능)
- 스님,무속인 혼자운영하기 참 좋은 곳

010-5129-5275

사찰 안내

- 위치:경기 파주 지역 •대지:90평 •1층. 건평70평 중 50평. 황토방 편백 •법당 2층 30평. 바로 법회 가능 •서울역~파주지하철.교통편리.주차편리.최상시설.시야광활한 동향집(용도:사찰. 포교원. 교육. 명상센터. 쉼터등)
- 가액:4억 7천만원(조절가능)

010-2122-0075

포교원 안내

- 위치 : 시흥시 정왕동. 정왕역 차로10분,안산20분 ● 총110평정도 4층 전체 및 옥상 전체 사용 ● 삼존불(상단),신중단(홍탱화),산신탱화,약사전(약사관음,후불탱화), 영단(목단상조성) 법당 약 70평 이상 ● 사찰소임으로 급히 결정되어 부득이 ● 몸만오셔서 즉시법회가능 ● 큰방3(에어컨),사무실1.다용도실1.공양실.법당.앰프시설,에어컨2대 ● 보증금:1000만원,월150만원(보증금에따라 월임대료 조절가능) ● 총시설비 6500만원. 현포교원개원13년이상. ● 월곶,배곧신도시아파트대단지,서울대학교,이마트,대부도,오이도 근교

010-8599-9468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 시내
- 대지 : 200평
- 법당 : 20평
- 요사채 : 40평
- 산신각 : 10평
- 몽땅 : 1억 1천만원

010-3323-7000

사찰 안내

- 위치 : 구미근교(북삼읍)
- 대지 : 약 178평
- 건물 : 1층 약 100평 실내골프장 (월세 120만원 나옴) 2층 : 법당 및 요사채(약100평)
- 가액 : 6억 5천 (대출3억2천 포함, 조정가능)

010-8008-6781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포교당안내

- 위치 : 충남 공주 계룡
- 평수 : 약 50평. 큰방. 거실. 중간방 2개. 마당. 기름보일러 별채 : 큰방1. 거실1. 화장실1
- 독채 전세. 위치 좋음
- 역학이나 무속신앙 하시는 분도 가능
- 가액 : 3500만원

010-3293-1705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 4층 건물에 3층, 40평
- 법당, 상담실, 방2, 주방, 화장실, 주차장, 옥상에 창고사용, 도시가스
- 보증금 1500만원 / 월세 50만원 (시설비 협의)

010-8695-6537

포교당안내

- 위치: 부산시 부산진구 개금동
- 3층건물중 1층 대지32평 건평28평
- 건물: 법당 삼존불, 방3, 화장실(실내/외)
- 가액: 보500 월40, 시설1300
- 즉시입주, 몸만 오시면 됨

010-2786-2474

사찰 안내

- 위치 : 창원역 15분. 마금산 온천 5분 거리. 신도시 개발지 인접 ●대웅전(단청완료). 삼성각. 주지상담실(황토방). 요사채. 공양간. 대형 저온창고 대형창고 2개. 차고. 주차장 500평
- 총면적 : 6,200평 ●사찰 총 불사비용 35억 투자함 ●가액 : 16억(대출금 5억 포함) ●계약 시 5억 주시면 등기부등본 넘겨줌. 나머지 6억은 5년간 연차적으로 불사금으로 완납 가능
- 신도시 개발로 4차선 공사 착공. 사찰연결

010-9647-0723

사찰(급)안내

- 위치 : 원주 미륵산 명당터. 경관좋음.
- 대지 : 1239평. 주차 약 30대 앞에큰도로. 버스정류장 약 300m
- 1층 요사. 2층 법당.삼성각 약 20km. 원주시청.충주시청.문막읍
- 가액 : 6억 5천
- 답사 하실분만 전화요망

011-371-5567

토굴 안내

- 위치 : 경북 청도군 이서면 마을 안. 186평
- 조립식 법당. 15평
- 청동, 삼존불, 후불, 104위신중, 독성, 산신 탱화, 요사채, 냉방, 온히터, 앰프시설 완비, 주차시설 완비, 창고 등
- 보증금 1000만 / 월세 30만
- 시설비 2900만. 절충가능

010-9150-0029

토굴(급)안내

- 위치 : 부산금정구 지하철2분,버스2분 거리
- 골프장옆, 법당.요사.주방50평, 산신각3평
- 대형마트 은행 병원 시장 전부 다 있음
- 오르막 없는 평지에 주차 공간 넉넉함
- 전월세 가능(보3천/월35만, 시설비無)
- 인연 닿는 스님께서 먼저 전월세로 살아 보신 후 양도도 가능 합니다.

010-7121-3030
010-3574-3303

사찰건물 안내

- 위치 : 서울 성북구 정릉동 등산로 접함
- 주차가능, 공기맑고 텃밭있음
- 건평 : 30평, 국유지 90평
- 보증금 5천만 / 월 50만

010-3885-8989

멋진 2층상가 안내

- 위치 : 경북 김천시
- 대지 : 총 217평
1층 : 상가 약 45평(방6개)
2층 : 주택 약 35평(방3개.거실. 화장실)잔디마당 및 조경좋음
- 가액 : 3억에서 5천 빼드림(조정가능)
- 사정상 시세이하로 계산함

010-3007-5611

별장같은 토굴

- 위치 : 경북지역 일월산자락 아담한 현대식 목조건물
- 앞마당에 계곡물 흐르고 스님 공부하시는데 아주 좋은 도량
- 대지500평.농지500평.건평 30평.법당은 토목공사 완료
- 가액 : 2억3천(가격 절충 가능)

010-5424-4969

사찰 안내

- 위치 : 거제시 중심부
- 대지 : 2103㎡ ● 법당 / 요사 : 329.4㎡
- 창고 / 기타 : 약 25평
- 대형 불상 및 석등, 조형물 다수 있음
- 주차장 넓고 경관 좋음
- 가액 : 6억 7천

011-9143-0098

사찰 안내

- 위치: 경남 창원시 마산근교
- 법당 : 38평 ● 요사 : 65평
- 대지 : 1천평 ● 임야 : 4천평
- 가액 : 11억

010-4547-4990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 2층건물에 2층, 약 80평 쑥뜸방 약 20평 겸업, 고정수입 있음.
- 삼존불 봉안, 호신불, 108불
- 보증금 250만 / 월 35만
- 시설비 4000만
- 역학하시는 분이나 법사 환영

010-9422-1233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 4층건물 2층, 30평, 법당, 삼존불, 방3개, 식당, 화장실2개
- 보증금 1천만 / 월 60만
- 시설비 500만
- 스님 건강때문에 급매

010-3884-0122

암자 안내

- 위치 : 경남 밀양역에서 2km 지점. 시내인접. 아늑하고 조용한 산 끝자락 동네 끝집.
- 대지 : 274평. 밭 포함
- 가액 : 1억 5천

010-8644-5844

사찰(급) 안내

- 위치: 부산 최고 바다전망
- 부산시내(문화재 사찰)
- 토지 : 임야 대지4,100평
- 건물 : 법당38평, 산신각6평
- 지대방10평
- 요사체 공양간 95평
- 가액23억

010-5346-4138

사찰 안내

- 위치 : 용인터미널 10분거리.버스, 빌라.주택많음.아파트 단지 건설중
- 대지 : 456m2. 138평. 목조 5칸
- 법당3칸.방2개.식당 큰방 1개. 창고
- 인연되면 몸만 와도 됨(비구니 최적도량)
- 지붕 칼라강판 ● 창건연대 40년 이상된 고찰. 생활불편 없음 ● 주변 고속도로 완공예정. 무한 발전 지역 ● 가액 : 4억 2천

010-3565-0087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북구 재래시장요지 신협~농협중간
- 건물2층60평(無세대 상가) 2층~옥상 단독사용
- 삼존불.신중.칠성.산신.용왕.소불200불.좌대법고
- 친견실.객실.명상수련.편백황토 힐링방
- 냉온 난방.실내외 보안시설 및 대형 주차시설
- 열차.지하철.버스(도보5분)공항(차량10분)거리
- 전세 : 2천/30만, 시설 : 3천8백 현~법회중
- 건강문제로 인연있는 스님을 찾습니다.

010-4535-2568

입종 안내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참고사항
①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불교조계종대학림 02)511-1080

불교조계종(총무원) Tel 02)511-2026~7 | Fax 02)511-2028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마당 22평, 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버스정류장 앞, 옥상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1,900만원
-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99만원

02-957-0824
010-7409-0490

전원주택/사찰

- 위치 : 경남 거창군 남상면 지방도로 변
- 거창읍에서 6분 거리. 정남향 집 뒤 북쪽 소나무산
- 총 1200평 중 대지 329평 전 489평. 기타토지
- 주택건물 35평(황토방1) 창고 57평(황토방1)
- 암반우물1. 자연우물1. 소나무 정원
- 가액 : 3억 8000만원

010-3848-2452



생활 속의 불법수행
대행 스님과의 신행문답

주인공이란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현대불교신문(여시아문 刊) | 신국판 | 무선 | 흑백 | 480쪽 | 15,500원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스님 법어

세상 모든 생명에게 바치는 저자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를 담아냈다. 흔히 어렵다고 여겨지는 불교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인도한다.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 148×210mm | 287쪽 | 10,000원

구입문의 — 02)2004-8216 •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 농협 053-01-269062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 5권 묶음판매에 동참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묶음판매를 종료합니다.
본 광고 이후 〈불서총판 운주사〉에서 전국서점에 공급합니다.



깨달음의 시작에서 완성까지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석호 지음
218쪽
값 12,000원
깨닫기 위한 3일의 실천과 그 뒤의 삶을 빛나게 하는 지침



금강경이 소설로 - 금강경 장편소설
하늘다이아몬드
석호 지음
292쪽
값 13,000원
물질만능시대-물질을 버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황폐해지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메시지

○ 매순간이 기적이다. 이 사실을 사무쳐 느끼는 자. 나는 그를 깨달은 이 - 붓다라고 부른다. <석호>

보급처 : 불서총판 운주사 ☎ 02) 3672-7181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춘기 청소년 위한 스님의 성교육

日 쥰야 스님, 연간 30개 학교 돌며 교육 호평

박영빈 객원기자

불교를 비롯해 모든 종교에서 성적인 주제는 공개적으로 말하기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일본에서 가사와 장삼을 수하고 학생들에게 직접 성교육에 나선 스님이 있어 화제다. 11월 8일 일본의 '니시니혼신문'은 사춘기의 중·고등학생들과 성교육을 중심으로 소통하는 스님에 대해 특별 보도했다.

2011년부터 사가현에서 성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후루카와 쥰야 스님(46). 스님은 사가현 교육청으로부터 직접 학생들의 성교육을 위탁 받아 현 내에 소재한 연간 30여 곳의 중·고등학교를 돌며 강의한다. 스님은 정토진종(淨土眞宗) 사찰인 죠세이지(淨誓寺)의 부주지이기도 하다.

모든 수업에 가사와 장삼을 갖추고, 손에는 염주를 꼭 쥐고 수업에 나선다는 스님은 "학생들에게 수업 전마다 '저는 스님입니다. 교과서 같은 정답을 가르치는 게 아닌, 여러분의 친구로서 이야기하겠습니다'라고 말한다"고 밝혔다. 스님이 항상 교육하는 주제는 '성과 삶과 죽음'이다. 스님은 "성교육은 단순히 성관계와 임신, 출산만을 가르치는 게 아니다"고 역설했다.

스님이 성교육에 나서게 된 것은 우연한 계기였다. 종립대학을 졸업하고 사찰로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된 호스피스병동 방문이 그 시작이다. 스님은 "암이나 에이즈 환자들과 만난 뒤 각 질병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알기 위해 정보를 취합하고 있었다. 그러다 에이즈 예방을 위한 강연회나 스터디모임에 젊은이가 적다는 것을 게 됐다"고 말했다.

성병예방 활동 계속 이어오다
젊은이들 잘못된 성지식 인지
성교육 넘어 삶과 죽음 강의
교육계 호평… 교육의뢰 꾸준

쥰야 스님은 또 관련활동의 일환으로 에이즈와 성병예방을 위한 행사에 참가해 승복을 입고 대중의 성상담을 받으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잘못된 성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에 놀랐다.

스님은 "스님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특히 사산이나 중절한 아이에 대해 고민하는 여성들의 상담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쥰야 스님은 이러한 체험 끝에 직접 성교육에 나서기로 결심했다.



연간 30개 중·고등학교에서 성교육을 진행하는 쥰야 스님. 사진출처=니시니혼신문

그러나 기존의 성교육 프로그램과 내용은 단편적인 성지식에 대한 내용뿐이었다. 종교인으로서 일반교사나 보건의료관계자의 이야기만을 전하기에는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을 하기 어려웠다. 또 다른 성에 대한 생각을 학생들에게 알아주길 바란 스님은 "성교육과 함께 삶과 죽음에 대한 고찰도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스님은 "성교육은 기본적으로 자신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다. 그렇다면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이 빠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생사관과 성에 관련된 연결점에 대해 스님은 "삶과 죽음을 모두 더해야 생명이 완성된다. 죽음이라는 종점이 없다면 지금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개념이 생기지 않는다. 이러한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 바로 성"이라고 덧붙였다.

스님의 이러한 성교육은 학생들에게도 호평을 받고 있다. 올바른 성지식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자존감을 향상한다는 평가다. 최근에는 사가현 외에 다른 현의 고등학교에서도 개별적으로 교육의뢰가 들어오고 있다는 후문이다. 쥰야 스님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생명을 존중하게 되고, 이어서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자신에 대한 존중감이 생긴다"고 거듭해서 강조했다.

"불교 위기 극복한 찬불가 포교"

일본 자매관계인 두 스님
학창시절 음악활동 살려
알기 쉬운 불교정신 확산

음악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스님들이 있다. 심지어 자매관계인 두 스님이 직접 연주와 노래를 해 대중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 독특한 소식을 11월 4일 일본의 '츄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이시카와현에 소재한 사찰 사이쇼지(西照寺). 이곳에서 포교활동을 하는 히노 스나오 스님과 히노 후미 스님은 실제 자매 사이다. 두 스님은 학창시절 각각 피아노와 밴드활동을 하면서 음악과 인연을 맺었다. 친가이기도 한 사이쇼지에서는 2013년부터 매년 여름 라이브 이벤트를 여는 등 음악활동을 활발히 이어왔다.


법당에서 설법 라이브를 진행 중인 스나오 스님(사진 왼쪽)과 후미 스님(사진 오른쪽). 사진출처=츄니치신문

후미 스님은 "불자들의 사찰 이탈이나 불교와 멀어지는 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에 걱정이 많았다. 불교에 대한 흥미를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끝에 음악이 떠올랐다"며 음악활동의 배경을 설명했다.

사찰에서 진행하는 라이브 이벤트나 음악회가 호응을 얻자, 두 스님은 불교의 가르침을 노래하기로 결심했다. 실제 일본불교에서 현대적인 찬불가는 약 200년 전부터 작사·작곡된 역사가 있다. 또 두 스님과 같이 노래나 음악으로 포교에 나서는 스님들도 적지 않다.

3년 전부터 시작된 '설법 라이브'는 스나오 스님의 피아노 반주와 후미 스님의 노래로 불교의 가르침을 전한다. 후미 스님은 "불교의 내용을 그대로 노래하면 듣는 청중들이 어렵기에 알기 쉽게 풀이한 가사로 부른다"고 말했다. 스나오 스님 역시 "음악에 맞춰 불교를 전하면 그 내용도 기억에 쉽게 남는다"며 설법 라이브의 장점을 설명했다.

두 자매 스님의 애창곡은 '지금, 생명에 눈을 뜰 때'라는 찬불가. 스님들은 "우리 두 사람은 모두 이전의 결혼생활에서 가정폭력과 정신적인 학대를 겪은 경험이 있다. 그때 이 노래가 마음의 위안이 됐다"고 말했다. 두 스님은 "그러한 가혹한 경험을 겪었기에 더욱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울리는 말을 전하고 싶다"며 노래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겠다는 굳은 마음을 밝혔다.

진실한 마음을 담은 두 스님의 설법 라이브는 점점 입소문을 타, 최근에는 사찰의 신도가 아닌 이들도 공연을 관람하는 기분으로 사찰을 찾고 있다. 또 지난 6월 고베에서 열린 설법대회에서도 설법 라이브를 공연, 관객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박영빈 객원기자

뉴질랜드 정당, 외래종교 건축 금지 추진

기독교 오순절파 소속 당 대표 "이민자 감축해야"

뉴질랜드의 한 신생(新生) 정당이 내년 총선에서 의석을 확보, 국회 진출 시 외래 종교 시설물 건축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다. 이들이 말하는 외래 종교에는 불교 사찰과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 등이 포함된다.

11월 11일(현지시간) 뉴질랜드 헤럴드(Newzealand Herald)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지난 5월 창당한 비전뉴질랜드당은 내년 총선에서 국회에 진출하면 이 같은 내용의 입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정당의 한나 타마키 대표는 기독교 오순절파 소속 '데스티니 교회'의 창시자인 브라이언 타마키의 배우자다.

타마키 대표는 '그들은 우리가 아니다(They are not us)'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뉴질랜드제1당이 이민자를 충분히 줄이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우리는 그것을 이뤄낼 것"이라고 했다.

이어 타마키 대표는 "나는 우리(뉴질랜드) 사회에 다른 문화·신앙·관습을 수용할 충분한 공간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뉴질랜드인 우선주의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 사찰, 모스크 등 외래 종교 시설물이 뉴질랜드에 건축되는 것을 막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뉴질랜드 헤럴드 등 매체는 "그동안 반(反)이민 정책을 표방한 비전뉴질랜드당이 또 다시 다문화주의에 역행하는 공약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타마키는 올해 초에도 현지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순 이민자 수를 매년 2000명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비현실적인 주장이라는 논란이 일자 "순 이민자 수가 얼마인지 모른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뉴질랜드의 순 이민자 수는 4만8300명으로 입국 이민자는 14만5800명, 출국 이민자는 9만7500명이었다.

비전뉴질랜드당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관계자인 예반 골터도 지난달 이민자들을 향해 "가치 부족으로 인해 자국에서 도망친 사람들"이라고 묘사해 인종차별 혐의로 기소됐다. 박정현 객원기자


온라인 명상훈련인 '마인드핏 콥(Mindfit Cop)'을 체험하는 경찰관들. 사진출처=더 가디언

英 경찰 공무원, 불교 명상 빠지다

軍에 시범 운용, 업무 능력 향상 등 효과 입증

20만 명에 달하는 잉글랜드와 웨일즈 경찰 공무원들이 불교 명상을 접하게 된다. 웰빙(Well-being)과 삶의 만족도 및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서다. 이는 앞서 에이번·서머셋·베드퍼드셔·케임브리지셔·하트퍼드셔 등 잉글랜드의 주요 주(州)와 웨일즈 남부 지역 5개 군(軍)에서 시범 운용한 후 경찰로 확대하는 것이다.

더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해당 프로그램은 6개월간 600여 명의 군 장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용됐다. 연구자들은 "참가자들의 심리 상태를 분석한 결과 의미 있는 개선점이 나타났다"고 했다.

연구자는 더 가디언에 "이번 연구를 통해 온라인 명상 훈련이 경찰관들의 복지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온라인 명상 훈련 코스인 '마인드핏 콥(Mindfit Cop)'은 모든 경찰관들에게 무료로 제공됐다. 이는 경찰관들의 생산성과 성능에 연쇄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해당 실험을 진행한 '마인드풀니스 이니셔티브(Mindfulness Initiative)의 이사 제이미 브리스토는 "현재까지 거의 수천 명의 공무원이 해당 연구에 참여했을 것"이라며 "만약 괄목할 만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처럼 광범위한 교육에 자금을 지원하는 게 힘들었을 것이다. 경찰에 대한 새 연구가 진행된 후 곧 더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불교 명상 훈련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통찰명상

조셉 골드스타인

〈2〉 판단하는 마음

판단 알아차리면 중립적 생각 덧붙여라



평소 쉽게 인식하지 못하지만
매 순간 무언가 판단하는 우리
수없는 판단에 잘 대처하려면
판단 일어날 때마다 숫자 세라

견해와 의견

자신의 생각을 가까이서 살필 때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특정 종류의 생각을 '나'로 강하게 동일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특정 종류의 생각을 '견해' 또는 '의견'이라고 합니다. 견해와 의견을 갖는 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견해와 의견에 집착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견해를 갖는 것과, 견해에 집착하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견해에 대한 집착 때문에 갈등과 분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무 견해와 의견도 갖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역시 우리를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합니다. 견해를 완전히 제거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특정 의견을 '나'로 강하게 동일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의견을 '나'로 동일시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특정 견해를 나로 동일시하고 있지 않은지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루 중 자신의 내면 상태가 변화하는 과정을 주의깊이 살피는 것입니다. 하루를 지내는 동안 당신에게는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특정한 사람과 상황에 관한 의견이 생겨나는 순간이 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의견을 단지 하나의 정신적 현상으로 보지 않고 '나'로 동일시한다면 뚜렷한 긴장감이 마음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 긴장감은 나의 생각이 절대로 옳다는 느낌입니다. 이 긴장감과 자기 정당성의 느낌은 분리되고 협소한 마음에 나를 가둡니다.

마음에 이런 긴장감이 일어나는 때를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긴장되고 수축되는 느낌은 당신이 특정 의견에 집착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이런 때는 마음챙김이라는 '마음의 레이더'를 즉시 켜십시오. 생각이 일어나는 과정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괴롭고 불편하고 수축되는 순간을 바로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마음챙김은 '정신의 조기경보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 역시 여느 수행법처럼 자주 사용할수록 기능을 더 잘 발휘합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라는 스크린은 점 하나 없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스크린에 이상 물체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당신의 몸과 마음은 딱딱하게 굳기 시작합니다. 딱딱함을 느끼는 순간, 멈추어야 합니다. 이 멈춤의 순간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특정 의견에 사로잡혔음을 알려주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견해와 의견에 대한 집착에서 놓여난다면 보다 유연하게 견해와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황의 전체 그림을 더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생각과 관점까지 존중하며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마음은 더 열리고 사람들과의 의사소통도 더 원활해집니다.

이처럼 벗어남이 언제나 화려하거나 극적인 사건일 필요는 없습니다. 벗어남은 순간순간 자신의 마음을 조금 더 자유롭게 만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판단으로 바뀌는 견해

견해와 의견이 강하게 굳어지면 판단으로 바뀝니다. 판단은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또 하나의 조건화된 패턴입니다. 우리는 늘 자신과 타인에 대해 판단을 내립니다. 자신의 경험에 대해 판단하지 않는 때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항상 판단을 내린다는 사실은 분주한 일상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명상으로 자기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순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심지어 우리의 마음은 판단을 제외하고는 하는 일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아마 당신도 모든 사람처럼 마음에서 끝없이 일어나는 판단 때문에 불편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르마 수행의 핵심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의 패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관계 맺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판단하는 마음과 맺는 관계를 변화시키는 방법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이중 두 가지는 내가 직접 알아낸 방법입니다. 아마 불교 경전을 뒤져도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 수행 중 판단의 '무차별 공습'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나 스스로 깨우친 내용입니다.

한번은 명상 수련회 도중 판단하는 마음이 자꾸 올라와 매우 불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수행센터의 식당에서 식사 중이었습니다. 내가 앉은 자리는 식당 입구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아주 잘 보이는 위치였습니다. 수행자들이 들어와 차례로 식사하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누가 나의 모습을 봤다면 아마 '먹기 마음챙김'을 하는 줄 알았겠지만 실은 식당에서 벌어지는 일을 곁눈으로 훤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 마음은 식당에 들어오는 사람들 하나하나에 대해 판단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런 내 마음을 보고 무척 놀랐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걸어 들어오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그들은 걸음을 알아차리지 않는 듯했습니다). 또 먹는 음식의 양과 음식을 먹는 방법이 못마땅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입은 옷까지 모두 불만족스러웠습니다. 말하자면 내 마음은 모든 것에 대해 판단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속으로 계속 판단하고 있는 나를 지켜보는 것은 무척 당혹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마 당신에게도 그리 낯선 경험은 아닐 것입니다.

판단하고 있는 자신을 알게 되자 나는 즉각 대응했습니다. 내가 내리는 판단을 모조리 '나쁜' 생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쁜' 생각을 하는 나 자신에 대해 다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판단하는 나를 다시 판단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판단에 바르게 대처하는 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효과가 검증된 아주 오래된 방법입니다. 그것은 명료한 마음챙김(clear mindfulness)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경우, 판단하는 마음이 어떤 패턴으로 일어나는지 알아차리려고 했습니다. 끝없이 일어나는 판단을 명료하게 알아차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음챙김을 계발하자 판단하는 마음을 나로 동일시하는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다소 특이한 방법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비정통적인' 판단 다루기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우선, 판단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수를 세었습니다. "판단 하나, 판단 둘, 판단 셋… 판단 500"처럼 속으로 수를 세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 나는 판단이라는 '나쁜' 생각을 좀 더 가볍게 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생각들을 반드시 사실로 믿을 필요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 생각들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판단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지켜봅니다. 그런 다음 미소를 짓고는 그저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하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판단하는 마음이 자꾸 일어날 때 내가 사용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판단이 일어나면 곧이어 "하늘은 파랗다"는 구절을 속으로 덧붙이는 것입니다. 예컨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많이 먹지? 하늘은 파랗다" 혹은 "저 사람들 왜 저따위로 걷는거야. 하늘은 파랗다" 같은 식입니다. "하늘은 파랗다"는 중립적인 생각입니다. 즉, 마음에 반작용을 일으키지 않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무덤덤한 생각입니다. 판단이 일어날 때마다 중립적인 생각을 바로 뒤에 덧붙여 보십시오. 그러면 판단하는 생각을 무심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늘은 파랗다"처럼 중립적인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듯이 판단을 볼 수 있습니다.

판단을 비롯해 마음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생각에 대해 맞서 싸우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매우 힘든 일입니다. 대신에 그런 생각에 반응하지 않고 걸려들지 않는 법을 배울 수는 있습니다. 심지어 마음에 계속 일어나는 생각에 미소 짓는 법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가장 불편해하는 생각 패턴이 있다면 위의 방법을 적용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자기 혐오'라는 생각 패턴을 힘들어한다면 자기 혐오가 일어날 때마다 수를 세어 보십시오. "자기 혐오 하나, 자기 혐오 둘, … 자기 혐오 595, … 자기 혐오 1000"처럼 말입니다.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 혐오에 미소 짓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될지 모릅니다.

이 미소는 당신이 불편해하는 생각과의 관계에 지금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걸려 있던 생각은 이제 텅 비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당신의 '자아'에서 나오는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이 자꾸 올라온다는 것은 생각과 잘못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입니다. 생각이 올라오는 것을 싫어하는 만큼 생각은 계속 올라올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생각을 싫어하지 않으면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끔찍한 각본이 마음에 펼쳐질 때마다 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또 일어나는구나. 일어날 테면 일어나라지. 일어난 다음에는 사라질 테니까." 일어나는 생각에 반사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생각을 '나'로 동일시하지 않는다면 생각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알아차림(mindful awareness)의 관점에서 보면 생각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커다란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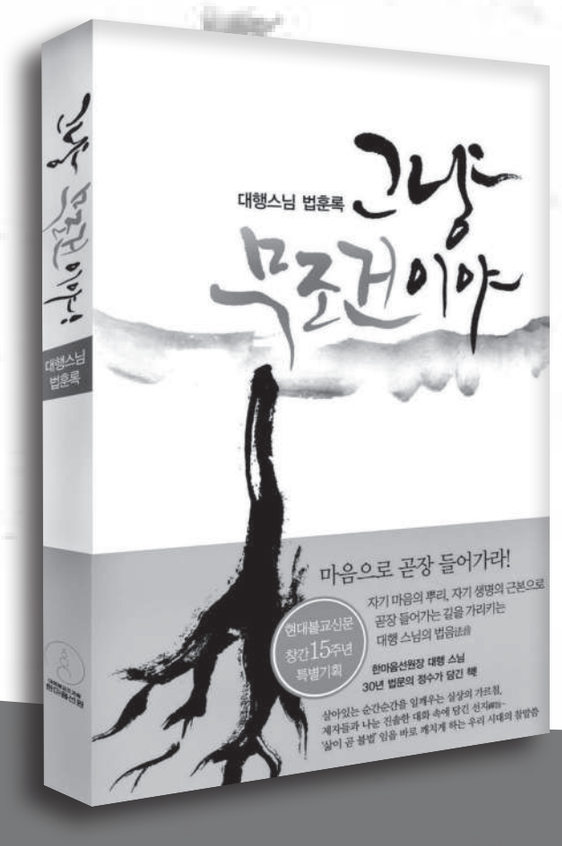
수행 TIP

다르마 수행의 핵심은 마음 현상의 패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관계 맺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판단을 명료하게 알아차리고, 판단이 일어날 때마다 수를 세며, 판단이 일어났을 때 중립적인 생각을 거기에 덧붙여 보십시오. 판단과 관계 맺는 방식이 변화할 것입니다.

이 글은 조셉 골드스타인의 〈통찰명상〉(마음친구)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시대의 참 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



대행 스님

오히려 죽는다 하면 사는길이 있습니다

제가 공부 길을 잘못 가고 있는지요

질문 :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마음공부를 한다고 놓고 가다 보면 왠지 바보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를 얕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인공 자리에 놓는 공부가 생활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제가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것일까요?

답변 : 옛날에 길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써 붙이기를, 한 군데는 길이 돌사닥다리 골짜기로서 험하다고 써 놓고, 한 군데는 아주 대로(大路)로 좋은 길이라고 써 놓고, 또 한 군데는 가다 보면 춤도 추고 술을 마시는 주막도 있고 쉴 자리도 많은 좋은 길이라고 써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 길을 가만히 보면, 공부에 뜻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대로가 좋다고 갈 거고, 또 공부에 뜻이 있는 사람은 '내가 대로를 찾으려고 왔느냐? 험하더라도 내가 갈 길은 꼭 가야만 하지.' 하면서 험하지만 바른 길을 택해서 갈 테고, 또 그냥 논다니 같은 사람은 '뭐, 젊음이 십일홍 넘어가면 다 없어질 텐데 아니 놀고 어떻게 가랴.' 그러고선 험한 길을 되돌아서 가고 그럴 거예요.

그렇게 세 길로 나누어져 있는데 수행자가 택한 길은 아주 험악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죽은 해골도 그냥 늘비하게 있고, 불쌍하게 죽은 축생들의 해골도 늘비하게 늘어져 있고, 귀신도 많은 그런 길이에요, 아주 소로(小路). 그런 길을 걷고 있는데, 가면서 모조리 집어먹지 않고는 해결할 수가 없지요. '둘이 아니다' 하면 집어먹는 거니까. 둘이면 집어먹을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모조리 집어먹고 가다 보면 길은 빨라지고 정말 날 수도 있는 길, 그냥 떠서 가는 길이 생기지요.

그렇듯이 만약에 지금 우리 앞길에 별의별 것이 다 쌓여 있다고 한다면, 축생이나 아귀, 아수라 같은 차원이 낮은 것들이 죽어서 쭉 있으면 이걸 치우고 길을 가야만 하겠죠? 그래서 정말 참 선의 길은, 아주 천야만야하고 좁은 골짜기고 길이 험하고 사람이 죽어서 해골이 이리저리 구르고 그러는 데가 바로 우리 지금 공부하고 가는 길이죠.

그러니 속지 마십시오.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속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말하면서도 하지 않는 법, 눈으로 보면서도 보지 않는 법, 귀로 들으면서도 듣지 않는 법, 길을 걸어 다니면서도 걷지 않는 법' 이 네 가지를 다 한데 합쳐서 놓는 법이며, 바로 이것이 삼매에 드는 법이며, 참선이며, 참 행이며, 도 행이며, 이것이 바로 인간이 자기를 깨쳐서 광대무변한 법을 들이고 내는 데 손색이 없고, 걸림이 없고, 여여함을 뜻하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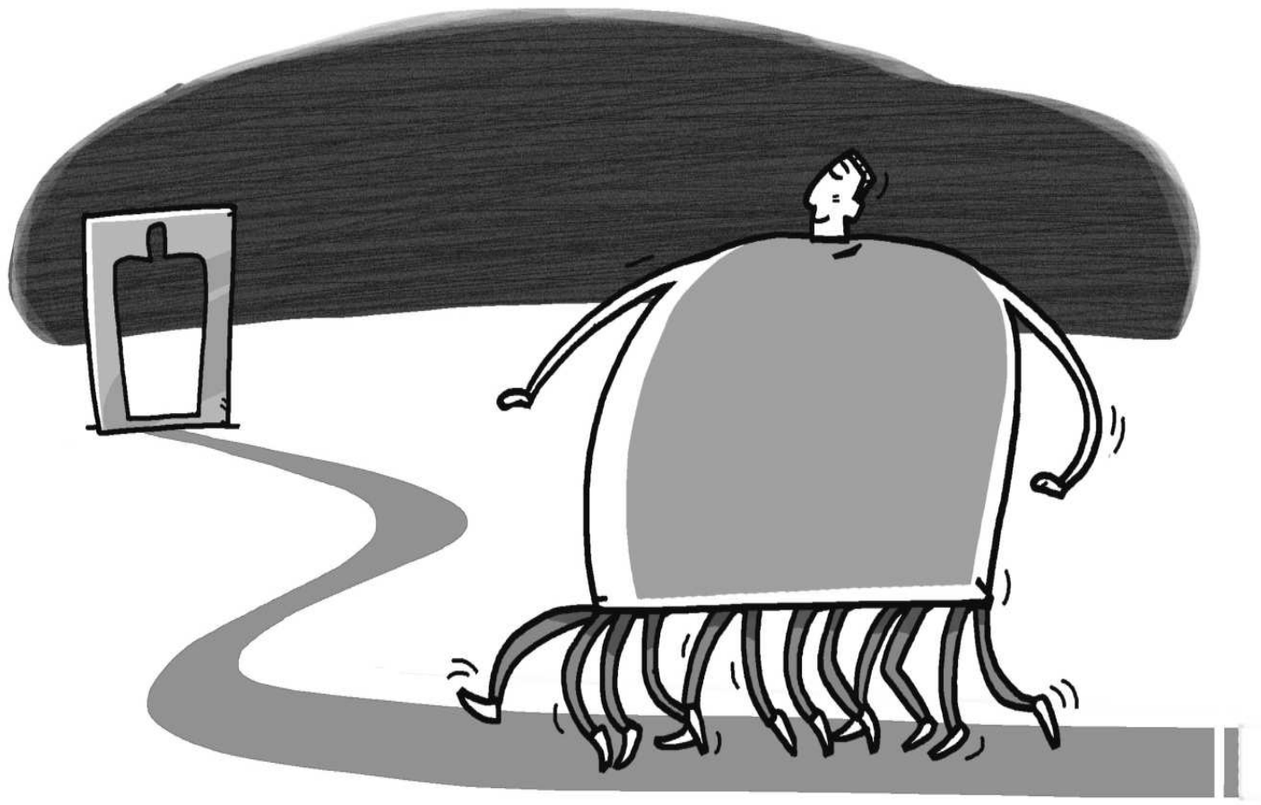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러니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꿈에 뭐가 보이든, 낮에 서로 상대가 생기든, 어떠한 것을 보더라도 굴하지 말고, 어떠한 걸 보더라도 속지 마시고, '아! 저것도 모를 때 내 모습이겠지.' 하고 이해를 하시고, 또 때에 따라서 꿈을 잘못 꾸었다 해도 '화해서 모습을 보이는 거지. 저것도 내 모습이겠지.' 이렇게 자꾸 하나로 돌린다면, 우주도 축이 있어야 돌아가고 지구도 축이 있어야 돌아가듯이, 맷돌도 축이 있어야 돌아가고 모든 기계도 축이 있어야 돌아가듯이 우리 인간도 축을 빼놓고는 안 됩니다. 축으로 인해서 비행기 프로펠러가 돌아가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도리를 배워서 생활이나 일체 만법을 운용하고 나가면서, 영구적이고도 영원하면서 윤회에 끄달리지 않고 여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중용의 중심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길이요, 진리요, 도입니다.

몸이 아프니 관하는 힘도 약해져요

질문 : 마음공부를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몸이 아파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보니 관하는 힘도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힘을 내서 다시 공부를 다잡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몸이 아파서 누워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눕게 한 놈이 누구냐는 겁니다. 아파서 눕게 한 놈이 누구냐? 그거를 알면 아파도 웃으면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그런 거니깐 일으키는 것도 네가 일으키는 거지. 네가 형성시켰으니깐 네가 일으켜라.' 이렇게 넓게 생각을 한다면, 설사 몸은 누워 있다 하더라도 마음은 한잠 자고 일어나듯 그렇게 가벼워질 테죠. 그런데 몸이 아프면 아프다고 집착을 하면서 의사한테 어떤 말을 들었으니까 들은 대로 그냥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끄달리니까 몸속의 생명들도 꼭 그렇게 듣고선 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될 수밖에요. 그래서 묘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산다 하더라도 그렇고 잘 산다 하더라도 그렇고 아주 미묘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한 발짝을 성큼 뛰려고 해도 뛸 수 없으니까 요만큼만 뛰어야 알맞겠다고 생각하고 떼어 놓고 사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욕심이 많아서 덮어놓고 그냥 막 떼어 놓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깐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는 한 발 한 발 겁내지 말고 떼어 놓고 사시라 이겁니다. 이 공부를 하는 데 마음으로 뛰어넘을 때는, 우리가 지혜를 넓혀야 되겠다 할 때는 가차 없이 떼어 놔야 하는 거죠.

예전에 이런 예가 있었어요. 길을 걸어가는데 이건 길이 아니고 저 산꼭대기에 있는 저게 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걸 믿겠습니까? 근데 그 뒤에 생각을 하니깐 믿게 되는 거죠. 저 언덕배기가 길이라고 그러는 걸 믿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뜻이 있으니깐 믿는 겁니다. 여기가 길이니까 저기가 길이 아닌 것만은 사실이지만 길이라고 하니까 한번 그 뒤의 문제를 좀 알아보자 하고선 올라가서, 까만 데 올라서서 보니까 허공만 보이거든요. 허공만 보이니깐 '어, 이게 허공 길이구나!' 이런 거죠. 허허허. 그러니까 내가 가 보지 않으면 모르고 생각해 보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발달이 된 세상에서, 옛날에는 몸으로 가서 봐야 알았지만 지금은 생각으로 다 할 수 있지 않은가 이겁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이게 길이 아니라 저 높다란 산꼭대기가 길이라고 한다면 생각으로도 거기에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지혜가 모자라서, 거기가 길이라면 그냥 올라갔지만 말입니다. 나 어려서만 해도 그렇게 못 듣고 못 보고 했으니깐 어리석은 일이 많았죠. 그렇지만 지금은 육체의 고행이 아니라도, 정신의 노력이라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진 땅이 이만큼 있어도 그 진 땅을 넘어서면 아무 기탄이 없는데, 그 진 땅을 넘어서지 않고 다리를 걷고 부들부들 떨면서 걸어가니까, 그거 씻어야지, 뭐, 이것저것 죄 해야지, 옷을 갈아입는 이런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훌쩍 뛰어넘어라 이랬습니다. 마음으로 뛰어넘으라는데 왜 못 뛰어넘느냐. 마음으로 뛰어넘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억지로 할 수 없나 봐요, 그 마음이라는 게. 그래서 모두 제 마음을 가지고도 제 마음대로 못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깐 문제가 크죠. 병고 때문에 고통이 큰 게 아니라 그 병고를 느끼는 마음이 문제라는 겁

☞ A18면으로 계속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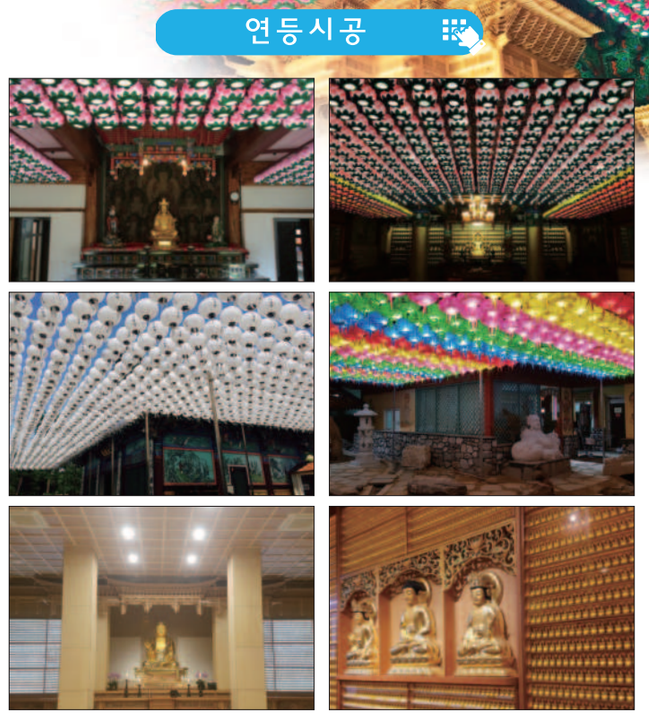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시공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

평상시 일분일초도 떼어 놓지 않고 자기가 사는 것이 그대로 참선

☞ A17면에서 계속

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상처가 생겨도 그 아프다는 생각을 자꾸 일으키면 큰 고통이지만 설사 큰 병고라도 마음으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관한다면 그 또한 벗어나서 자유스럽게 넘어설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어머니와 마음이 안 맞아서…

질문 : 결혼 10년차 주부입니다. 시어머니와 마음이 안 맞아 힘든데 남편조차 제 편이 돼 주질 않고, 내 맘도 내 맘대로 되질 않으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우리가 살면서 얼굴을 찌푸리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부부지간에도 그렇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네 탓이니 내 탓이니 하면서 그냥 상을 찌푸리고 그런다면 복이 들어오다가도 나갈 뿐만 아니라 해결이 나질 않아요. 화목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다 나중엔 이혼까지 하게 됩니다, 보기 싫어지니깐. 왜 그렇게 되느냐, 남편이라는 거, 자식이라는 거, 부모라는 게 전기로 치면 가설이 돼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 자식이다 부모다 하는 가설이 돼 있어요.

그런데 내 주처의 주인공을 왜 주인공이라고 그러느냐. 주인공이라고도 하고 참자기라고도 하고 불성이라고도 하고 이름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러나 주인공이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항상 마음과 육체가 더불어 같이 쉴 사이 없이 찰나찰나 돌아가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주인공이라고 할 수밖에요. 자기 육신과 마음이 더불어 같이 돌아가니까. 그럼 가족들만 그러냐. 그게 아닙니다. 사회에서도 일을 하면서 문제들이 많죠? 윗사람 챙기고 아랫사람 이끌어 가기가 힘들어서 애쓰는 사람도 많고요. 지금 시대에는 아마 더할 거예요. 그런 데도 쓰이는 거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일거수일투족 다 쓰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어라. 좀 발전을 해라. 실천을 해 봐라. 체험을 해 봐라."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공에다 스위치를 누르면, 즉 입력을 한다면 자식의 마음에까지도 불이 들어오고 남편의 마음에도 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가설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 마음에서 고장 난 것을 껍데기인 육체가 그냥 허수아비마냥 뛰어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중학교까지도 깡패가 생겼다고 야단법석들이 나고 뭐, 두드려 맞고 피를 흘리고 야단들을 하고 학교 못 보내겠다고 야단들을 하는데, 관하는 것만 가르쳐 줬더라면 모든 거를 대처하고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지금 우리나라도 좋아질 겁니다.

지금 우리 인생살이가 살얼음판을 딛고 가는 형국인데 모든 거를 거기다가 입력하듯이 맡겨 놓는다면 마음도 편안할 것을, 속에서 부아가 일어난다고 내던지고 악을 쓰고 부아를 자기가 돋우니까 살얼음판에서 모닥불을 피워 놓는 셈이거든요, 빨리 빠지게. 그리고 또 부아가 나서 막 팽개치고 이럴 때, 그냥 한 대 쥐어박고 싶고 그냥 죽이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럴 때는 살얼음이 그냥 깨져 버려요, 그냥. 깨져서 물에 풍덩 빠지게 되죠. 그러면 허덕이면서 날 살리라고 어떻게 빌고라도 나오게 되면 한번 빠졌던 문제들이 얼마나 진퇴양난인지 모르죠. 그래 가지고 자기 몸은 병들죠, 재산 없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생살이가 그렇답니다.

부처님께서도 육신은 배로 비유를 했고, 육신 속에 있는 생명체들은 중생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 배에 타고 가는 중생들로. 그리고 주처의 중심, 즉 주인공은 선장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랬는데 부처님이 뭐라 그러셨느냐 하면 중생들이 만약에 '부처님,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하고 이름을 부르면서 살려 달라고 아우성을 친다면 그 배는 뒤집히고 만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장한테 모든 거를 맡기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가는 데까지 가면서도 아주 편안하게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습니다.

상대와 부딪쳤을 때 욱 일어나는데…

질문 : 공한 도리를 알아보겠다고 공부를 하면서도 상대와 부딪쳤을 때 욱 일어나는 제 마음을 보면 힘이 쭉 빠지게 됩니다. 그냥 다 이론으로만 알고 있었나 봅니다. 정말 진짜로 실천하면서 제대로 공부 한번 해 보고 싶은데 도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 여러분은 내가, 그 사람이 내가 돼 볼 줄은 한 번도 생각 안 해 봅니다. 해 보는 양반들도 있겠지마는 대부분 안 해 보고 넘어갑니다. 서로가 말다툼을 할 때도 한번 그 사람이 내가 돼 본다면 그것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를 잘 알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자체, 말하는 사람이 바로 내가 돼 본다면 그것을 이해하고 고깝게 듣지도 않을 것을, 내가 돼 보지 않는 그런, 내 주장만 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 내가 잠시 어느 그 사람이 돼 보니까 너무나도 참혹하고 괴로웠습니다. 내가 병 앓는 것처럼 얼마나 고달팠던지 그 문전에 나오면서 그 사람이 또 문전에 나가는 것이 바로 내가 나가는 것 같고, 내가 나가면서 생각해 보니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그 사람도 역시 눈물이 흘렀거니와 나 역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후에 그 사람의 병은 나았죠. 물론 내가 낫게 한 것도 아니고 그가 낫게 한 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공심으로서의 공용을 하고 있으니, 공한 자체가 바로 부처님이니까 내가 했다고 할 수도 없지만, 바로 내가 있기 땜에 길을 인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길을 인도했으면 바로 인도한 사람도 있거니와, 내가 있으니까 길을 인도를 받고 생각을 낸 겁니다. 이게 길잡이입니다. 생각을 내지 않는 것이 부처라면 생각을 냈으니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도리이자 법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고깝게 듣기 이전에 내가 그 사람이 한번 돼 본다는 거. 또 남이 아프면 한번 그 아픔을 내가 대신 그 사람이 돼 볼 수 있는 그 마음 가짐가짐. 모든 것을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다면 가정이 화목하고 남남끼리도 화목할 수 있고, 또 친척들하고도 화목할 수 있건만 어디 그렇습니까, 지금 세상이. 그저 마음으로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해 주니까 할 수 없이 말다툼을 하게 되고 이러는 수가 또 많습니다. 그럴 때는 말을 아예 하지 말고, 마음과 마음끼리 통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제일 적합하다는 얘깁니다.

말을 해서 듣기 좋은 말은 하고 또 듣기 싫은 말은, 해서 소용없는 말, 외려 더 악화를 일으킬 말들, 이런 거는 좀 삼가면서 자기 주인공에 일임해서 맡겨 놓으면서 항상 이렇게 마음과 마음이 통할 수 있게끔 지혜를 갖는다면 우리가 공부하는 데도 '야! 우리가 집안에 이렇게 급한 일이 있는데 공부하라고? 공부보다도, 참선하기보다도 지금 아프고 괴롭고 가난이고 또는 우환이 끊는데 어떡하면 좋으냐.' 하고 그걸 급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우환과 가난, 또 병 이런 것들이 다 내 주인공, 그 '공'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공에 모든 것을 맡겨 놓는다면 거기에서 다 그것이 슬슬슬슬 녹아 가면서 봄이 오듯이 그렇게 녹는답니다. 모든 게 다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사람이 누구나가 자기가 겪어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여러분이 적게 아프든 많이 아프든 또는 몸이 아파서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진정코 아픈 사람이 많아요. 진정코 마음이 아파.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마음이 아프고 참, 그럴 때마다 나는 그 사람이 항상 돼 주는 마음으로써…. 아니, 이건 가면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가면을 쓰고 이런 말 하는 것도 아니고 가설하는 것도 아닙니다. 같이, 항상 마음을 같이해 주고 있습니다.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프지. 아프지 않게 우리 같이, 아픈 거 아프지 않은 거를 다 한데 합쳐서 우리 아프지 않게 하자.' 하고 같이 항상 같이해 줍니다. 그럴 때는 어느 땐가 꼭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살 겁니다.

우리 인간이 부처님 법을 배우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한군데로 기울어져서, 종교에 미쳐서 이렇게 기울어지라는 게 아니라 평등한 진리를 파악하고 대승이 뚜렷하고 참…. 인간이라는 이 두 글자 자체가 얼마나 성스럽고, 참 아주 개발적이면서도 영구적이고, 포괄적이면서도 어디까지나 생동력 있고 자유스럽고,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누가 종교를 믿으면 "아니, 왜? 우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 놓고 보면 뭘 어떻게 하고 산단 말입니까? 그럼 죽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죽으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죽는다 하면 사는 길이 있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나 자체는 사량과 더불어 육안으로 보는 거고, 육의 이 모든 달린 데서, 즉 오관을 통해서 들이고 내고, 이거는 사량적인 문젭니다. 그러나 잠재의식 깊은 속에서 같이하고 100%가 움죽거린다면, 우리가 연구한다고 개발한다면, 우린 인간으로서 첨단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유인이니 각을 이루었느니 도니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공부를, 공부라고 할 것도 없지마는, 참선이라고 할 것도 없지마는, 평상시에 일분일초도 떼어 놓지 않고 자기가 사는 것이 그대로 참선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인공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자기를 세우고, 자기한테 모든 것을, 자기가 하는 거 자기한테 놓으라는 얘깁니다. 사량적으로 아만을 일으키고 아상을 일으키고, 내가 제일이고 내가 하는 거고, 내 거고 내가 줬고, 내가 줬기 때문에 살고…. 모든 것을 이렇게 마음을 먹어서는 절대 이 공한 진리를 알 길이 없습니다.

매사에 자신이 없습니다

질문 : 저는 매사에 소극적이고 자신이 없습니다. 새로운 일이 주어지면 해 보지도 않고 할 수 없다는 생각부터 하게 됩니다. 저도 좀 적극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이 마음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어떤 사람이 인제 회사가 망하게 됐더랍니다. 다음 날이면 딱 망하게 됐어요, 부도가 나서. 그런데 "아이구, 이거 회사가 망하면 사람들이 전부 죽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살자고 하는 거보다도 더불어 같이 살아야 할 텐데 이 노릇을 어떡합니까?" 했을 때 그 사람이 지극하게 이 마음공부를 그래도 해 나가는 사람이기에 "어, 그것은 걱정할 거 없어. 모든 거를 거기다가 맡겼으면, 줬다가 뺏었다 하지 말고 그냥 진짜로 맡겼으면 저 나무들이 싹하고 뿌리하고 같이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인공이라는 게 이미 있으니까 그 뿌리를 믿고서 싹은 편안하게 웃고 부지런히 뛰기만 해라. 그러면 살 길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사람의 마음들이 빙그르르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서 다 살게 됐다는 얘기죠.

그럼 그것이 우연이냐. 우연이 절대 아니죠. 모두가 여러분이 하기에 달린 거지,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만큼 알면 나도 요만큼밖엔 얘기 못 하고 여러분들이 이만큼 알면 나도 이만큼 얘기할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보고 듣지 않으면 생각조차 할 수가 없는 거죠. 만날 고 우물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은 이래요. "이거는 안 된다. 절대로 이건 될 수가 없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허덕이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얘기해요. 크나 작으나 어렵거나 어렵지 않거나 인간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당신의 그 차원이지,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가 없다 이겁니다. 그건 한생각 하기에 달린 겁니다. 그건 당신의 그 살아오던 관습, 습 때문에 그런 거지, 누가 그렇게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하고 누가 말해 주더냐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삼살방이 들어서 이사를 못 간다." 이러거든요, 또. 그건 삼살방이 들어서 이사를 못 간다고 그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삼살방이 든 거예요.

그런데 동, 서, 남, 북이 다 터졌다 이겁니다. 마음은 체가 없는 거라 우리가 벽을 뚫고도 들어올 수 있고 은산철벽도 뚫을 수가 있고, 강물도 들어갈 수 있고 허공도 날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자기 사량으로 그렇게 하십니까. 진짜로 주인공을 믿고 맡겨 보세요.

>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 **'말하면서도 하지 않는 법, 눈으로 보면서도 보지 않는 법**
> **눈으로 보면서도 보지 않는 법, 귀로 들으면서도 듣지 않는 법'**
> **이 네 가지를 한데 합쳐서 놓는 법이며, 이것이 바로 참선입니다.**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 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 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우리몸 막힌혈관을 뻥!뻥!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루 2회 공복에
막힌 혈관을 뻥!뻥! 뚫어
젊어지고 건강해지는 혈관관리
혈통으로
맑은물에 희석해서 마십니다
혈관나이를 젊게하여 100세 건강실현
피가 깨끗해지면 정신도 깨어납니다
010-9003-6767 농협 : 010-9003-6767-29

| 현불 논단 |

가을, 다시 만난 인연



허남결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40년 전 지방의 한 대학서
밤새 '입영전야' 부르던 동기
최근에서야 옛 인연 이어가

친구가 건넨 마음담긴 봉투
무주상 보시로 우정 키워
가을 단상에 떠오르는 얼굴
세월 무상 이겨내는 원동력

가을이 꽤 깊어진 것 같다. 그래서 일까? 만추(晩秋)라는 단어가 '훅' 하고 가슴에 와 닿는다. 나뭇잎의 색깔과 바람의 결이 확실히 달라졌다. 가수 주현미와 하현우의 말마따나 우리는 지금 '쓸쓸한 계절'의 한 가운데 서 있는 것이다. 조금 외롭고 약간 고독하다. 한낮인데도 빗방울 소리가 제법 크게 들린다. 하긴 밤에만 비가 오란 법은 없다. 바람도 분다. 불상 양쪽의 두 그루 협시불 은행나무에선 황금빛 비늘들이 후두둑 떨어진다. 비를 피해 형형색색의 우산을 쓴 사람들이 분주하게 스쳐지나간다. 이상은 목요일 오후 2시 남산 아래 불교학당 동악의 늦가을 풍경 한 컷이다.

누군가 가을엔 편지를 쓰고 싶다고 했다. 수신인이 아무나여도 좋은 그런 편지 말이다. 곧 세모(歲暮)가 다가 온다. 잊고 있던 옛 친구들이 생각날 때다. 문득 한 친구의 얼굴이 떠오른다. 그를 만난 것은 40여 년 전 지방의 한 대학에서다. 고향이 충남 신탄진이라고 했다. '신탄진'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던 담배 이름이었다. 친구는 술은 좋아했지만 말수는 적은 전형적인 충청도 사람이었다. 이즈음 부마사태와 10.26 사건이 일어났다.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밤새도록 '입영전야'를 부르고 헤어졌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러다 불과 몇 년 전에서야 서로 연락이 닿았다. 친구는 대구에서 조그만 자동차부품공장을 운영한다고 했다. 그럭저럭 살만한 모양이었다. 나는 그저 그런가보다 했다.

작년 이맘때의 일이다.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울에 볼 일이 있어 온 김에 점심이나 같이 먹자고 했다. 친구부부가 학교로 찾아왔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밥 먹으러 가자고 했더니 슬그머니 서류봉투 하나를 내려놓고 나간다. 친구를 보내고 올라와 봉투를 뜯어보았더니 농협직인이 찍힌 봉투 두 개가 더 들어 있었다. 살펴보니 두툼한 오만원권 지폐 묶음이었다. 지금까지 현금으로는 한 번도 만져보지 못했던 큰 금액이었다. 순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혼란스러웠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냥 필요한 곳에 쓰라고 말했다. 어떤 조건도 달지 않았다. 다만 그는 시골에서 올라와 어렵게 대학에 자리 잡은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그뿐이었다. 이후 돈은 흐지부지 없어졌지만 우리들의 우정은 더욱 단단해졌다. 지금도 돈 이야기를 꺼낼라치면 정색을 하고 손사래를 친다. 그냥 주고 싶어서 줬을 뿐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들은 말의 전부다. 만에 하나 그가 나에게 뭔가 바라고 봉투를 건넸을 가능성은 말 그대로 제로다. 불가에서 말하는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란 이런 친구의 행위를 두고 하는 말인지도 모르겠다.

잠시 가을 단상에 젖어 조용필의 '친구여'를 부르고 말았다. 가을은 가을인가보다. 이렇게 사적인 이야기를 칼럼 주제로 삼고 있으니 말이다. 친구야, 우리가 다시 20대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때 그 시절의 풋풋한 감정마저 잊고 살지는 말자. 우리가 언제 이렇게 나이 먹을 줄 알았던가. 환갑이란 말을 한번이라도 떠올려본 적이 있기나 한가. 그런데 우리가 벌써 그 나이가 되고 말았으니 도대체 누구를 탓해야 하는가. '고장난 벽시계' 너 때문이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 종종 만나고 건강하게 사세. 참, 부인에게도 안부 전해주게나.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이다. 어느새 가을비도 그쳤구나.

社 說

화합의 전국비구니회 기대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제12대 회장 본각 스님이 취임과 함께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하면서 비구니승가의 도약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무엇보다 앞서 회장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파열음이 빠르게 해소되고, 단합된 모습으로 비구니스님들의 역할이 사회에 퍼지길 기원하는 불자대중이 많다.

지난 9월 전국비구니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본각 스님은 1064표를 얻어 제12대 회장에 당선됐다. 하지만 경쟁후보인 육문 스님도 789표를 획득하면서 비구니계의 양분을 우려하는 시선이 적지 않았다. 특히 선거운동 과정이 후반으로 갈수록 과열되면서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등 승가 본연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흑색선거가 펼쳐졌다. 이로 인해 비구니스님뿐만 아니라 선거를 지켜보던 대중의 탄식이 곳곳에서 전해졌다.

다행히 양분의 위기를 우려하던 대중은 본각 스님 경쟁후보였던 육문 스님과 육문 스님 지지자인 상덕 스님의 화합 입장문 발표로 시름을 덜었다. 육문 스님과 상덕 스님은 본각 스님의 회장 취임을 축하하면서 앞서 벌어진 갈등에 사과했다. 그러면서 관용과 용서의 선착장에서 함께 자비의 바다로 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제 본각 스님에게 남은 과제는 선거과정에서 흩어진 비구니승가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지금까지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나가며 더 나은 전국비구니회를 만드는 일이다. 새롭게 조직을 개편하고, 집행부 인사를 마친 제12대 전국비구니회가 공약으로 내세운 복지·교육·전법·한국불교 세계화·대사회 활동 등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주길 기대한다.

기부는 아름다운 보시행

조용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무주상 보시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것은 없다. 매달 불교계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의 사무국을 찾아 보시금을 주고 간 50대 남성이 화제가 되는 건 그래서다. 그는 소외된 이웃에 써 달라는 말만 남겼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이웃종교인이란 말도 들려온다. 아름다운동행에 들어보니 이 남성처럼 기부하는 익명의 자비보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아름다운 동행의 후원계좌에도 '연탄나눔'과 '아름다운동행'으로 기부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해피빈을 통한 온라인 기부도 는다고 하니 마음이 따뜻해진다.

요즘 기부를 할 때면 보도자료를 돌리고 사진 찍어 신문에 내며 홍보에 열을 올리는 요즘 세태에서 이들의 모습은 '기부란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모범을 보여준다.

이제 조금 있으면 연말이다. 초겨울의 추위는 성큼 다가왔다. 소외된 이웃에 대한 온정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는 계절이다. 기업인과 정치인의 '기부 마케팅'이 본격화되는 계절이기도 하다. 물론 이런 대형 기부가 있어야 소외된 이웃에게 실질적 도움으로 연결된다. 하지만 정(情)과 감동은 금액으로 결정되진 않는다.

상에 머물 바 없는 보시란, '내'가 베푼다는 생색이나 칭송에 대한 기대, 미래에 얻게 될 복덕과 같은 상(相)에 집착 없는 보시를 뜻한다. 받는 이의 행복과 감사가 줄 자기만족에 대한 기대 또한 버려야 함이 물론이다.

연말을 앞두고 선의에 얽매이지 않는 무주상보시가 우리 사회에 보다 많이 퍼지길 기대한다. 나부터 내 주머니에서 조금 덜어 이웃과 나누는 익명의 자비보시행에 동참한다면 우리 세상은 보다 따뜻해 지지 않을까.



천미희의 **환경칼럼**

천연 수세미와 지구 사랑

우리 집 욕실엔 기다란 수세미가 대롱대롱 걸려 있다. '욕실에 웬 수세미지?' 하고 의아해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 집은 샤워 수건 대신 천연 수세미를 사용 중이다. 자연에서 수확해 건조시켜 만든 기다란 수세미로 등을 밀면 시원하게 마시지가 된다. 설거지를 할 때도 일반 수세미 대신 통수세미를 동그랗게 잘라 사용하고 있다. 이 수세미들은 자연의 신비를 느끼게 한다.

샤워 후나 설거지 후 걸어두면 수세미의 조직들이 되살아나면서 정말 빠른 시간 내에 가슬가슬 건조된다. 젖은 상태에서 번식하는 세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 집의 수세미는 철원의 한 농장에서 생산 판매하는 것인데 표백처리나 방부 처리를 하지 않아 인체에 무해하지만 하얗게 포백처리 되어 수입되는 제품에 비해 가격대가 높다.

그러나 표백처리나 방부 처리를 한 천연 수세미를 사용하느니 일반 수세미가 낫다는 생각이 들어 국내산을 고집하고 있다. 천연 수세미는 일반 수세미 사용 시 생기는 미세 플라스틱 걱정도 없고 사용 후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하면 되니 친환경적이기까지 하다. 최근 설거지용 수세미에서 생긴 미세 플라스틱 체내 축적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천연 수세미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몸에도 좋고, 지구에도 좋은 착한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착한 소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윤리적 소비이다. 윤리적 소비(Ethical Consumerism)는 나의 소비 행위가 다른 사람, 사회, 환경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고려하여 환경과 사회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소비하는 행위를 뜻한다. 인간과 동물, 자연과 환경을 착취하거나 해를 가하지 않으며 윤리적으로 생산된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행위이다. 윤리적 소비 행위로는 친환경 소비 즉 에너지 절감 제품 사용, 유기농 제품 소비, 동물 보호 소비는 물론이고 정당한 값을 지불하는 공정무역, 로컬 푸드, 현지인들의 삶과 환경을 보호하는 공정 여행 등이 포함된다.

이처럼 착한 소비를 하려면 공부가 필요하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립스틱이나 아이세도우의 원료로 쓰이는 운모, 그 운모를 캐는 인도의 광산에는 여덟 살 전후의 어린 소년, 소녀들이 운모를 캐다가 골절되거나 심지어 죽기까지 한다는 걸 알고 있는가? 하루 12시간을 일하고 단돈 5천원을 받는다는 것은 또 어떤가?

우리는 알고 소비해야 한다. 물건 하나를 소비하는 행위는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 대해 찬성표를 던지는 것과 같다고 누군가 말했다. 우리가 노동착취를 통해 만들어진 값싼 옷을 사는 것은 노동착취에 찬성표를 던지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연료 소비가 많은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은 기후 변화에 찬성표를 던지는 것이다.

이 같은 비유가 지나친 비약이라고 생각지는 않는다. 실제로 바람직하지 않은 기업윤리를 가진 기업에서 만들어내는 물건에 대한 불매 운동이 그 기업의 비윤리적 행위를 바로 잡는 사례도 많고, 유기농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의사 표현으로 대기업에서 유기농 매장을 오픈하면서 유기 농업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가져 오기도 했으니 말이다.

참치 캔 하나를 고를 때도 어류의 멸종을 불러올 수 있는 파괴적인 어업방식인 집어 방식으로 참치를 잡는 참치 업계의 참치 캔은 거부해야 한다.

나는 한 개인일 뿐이지만 지갑 안에 의견을 표명할 힘을 지닌 사람이다. 내가 가진 그 힘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은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실천이 될 것이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기획실장〉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 남 지 사 : (051)512-1761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 합니다.
HOT
☎ 문의 : 민성기업 (구,대진기업)
010-2628-9944
• 친환경적 • 시공비 대폭절감
• 단열효과 탁월 • 습기에 강함
• 구조변경 용이 • 내구성 우수


"마침내 막혔던 벽이 무너지면서 근본문제가 해결되었다!"

3만 명 이상의 출·재가자가 체험한 화두수행의 요체

看話心訣
간화 심결

간화선 수행, 어떻게 할 것인가

화제의 신간





수불 修弗

화두를 통해 깨달음에 이르는 구체적 과정과 원리

간화선 수행의 핵심은 공부하는 사람이 단번에 의심할 수밖에 없게 하여 '답만 찾도록 집중시키는' 데 있다. 활구活句와 사구死句의 구분, 의심疑心이 익어서 의정疑情·의단疑團이 되었다가 마침내 화두가 타파되기까지의 수행과정별 특징과 병통, 해결법 등 간화선의 요체와 구체적인 원리를 쉽고 자세하게 밝혔다.

나를 포함한 많은 외국인들이 안국선원 등에서 간화선 집중수행에 참여했다. 스님의 질문에 여러 날을 고심하다가, 마침내 막힌 벽이 무너지면서 근본문제가 해결되었다. 아, 이것이 바로 간화선! _로버트 버스웰Robert E. Buswell Jr.(UCLA 특훈교수)

수불修弗 1989년 이래 부산, 서울, 창원, 미국 LA, 중국 천진, 뉴질랜드 등의 안국선원과 백담사, 마곡사, 미황사 등에서 7박 8일간의 '간화선 집중수행'을 300여 회 이상 개설하여, 외국인을 포함한 3만 명 이상의 출·재가자에게 간화선을 체험케 하였다.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와 동국대학교 국제선센터 선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안국선원 선원장, 부산불교방송 사장 등의 소임을 맡고 있다.

● **간화선 집중수행 안내:** 서울 안국선원 (02)732-0772 / 부산 안국선원 (051)583-0999 / angukzen.org

김영사 www.gimmyoung.com 031-955-3100 책은 서점에 있습니다.

금강석 같은 지혜로 분별망상을 자르고 참으로 행복해지는 공부법

신간



"아침저녁 금강경을 읽으시되, 부처님 앞에서 법문 듣는 마음으로 하시고, 이를 습관이 되도록 하십시오."_백성욱

백성욱 박사가 현토를 단 《금강반야바라밀경》을 저본으로, 해인사 고려대장경본 등 여러 판본을 대조 비교하여 교정한 독송용 금강경. 의미 단위로 토를 달고 띄어쓰기를 하여, 독송하면서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독송용 금강반야바라밀경(전 2권)
한문본, 한글 한문 혼용본 | 김강유 엮음 | 64쪽 | 9,600원

사부 니까야와 사아함경의 핵심을 단 한 권으로 담아낸 불교의 바이블

★★★ 불교출판문화협회 올해의 불서 ★★★



부처님의 금구설金口說을 주제별로 정리한 역작

방대한 사부 니까야와 사아함경의 내용들을 주제별로 가려 뽑아 분류하고, 개별 주제들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연결하여 설명한 전혀 새로운 방식의 불교경전. 부처님께서 발견하고 시설하신 진리의 가르침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서, 250여 개의 질문을 통해 이해한 내용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수트라: 여시아독 개정판
비구 범일 | 양장 | 528쪽 | 29,000원

《벽암록》과 쌍벽을 이루는 선불교의 공안집 전무후무한 선의 고전을 한 권으로 읽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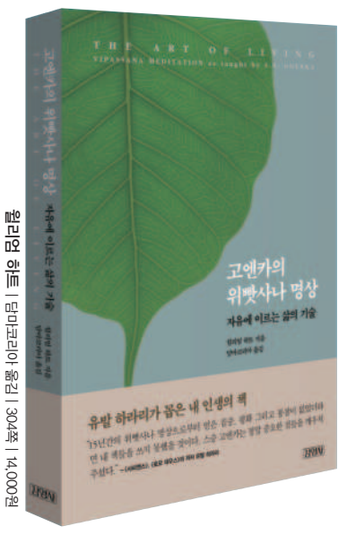
깨달음 직전의 마지막 한마디는 무엇인가?

칭기즈칸의 재상이었던 야율초재耶律楚材(1190~1244)가 만송 행수萬松行秀에게 공안집을 쓰기를 청한 것이 아홉 번, 그러고도 7년을 기다려 이루어진 것이 《종용록》이다.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장, 불교대학원장, 정각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동국대학교 불교학부 명예교수인 혜원스님이 쉽고 간결하게 풀어 엮었다.

한 권으로 읽는 종용록
만송 행수 편저 | 혜원 역해 | 양장 | 504쪽 | 21,000원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호모 데우스》를 탄생시킨 그 책

고엔카의 위빳사나 명상법 한국 최초 정식 출간



자유에 이르는 삶의 기술

고엔카의 위빳사나 명상

전 세계 25개국 스테디셀러

세계적인 명상 지도자의 생생한 가르침을 책으로 읽는다

"저는 하루 두 시간씩 명상을 합니다. 위빳사나 명상을 통해 얻은 집중과 평정이 없었다면 《사피엔스》나 《호모 데우스》 같은 책을 쓸 수 없었을 겁니다. 옥스포드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을 때 고엔카 선생님의 가르침을 만났고, 그 이후 꾸준히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_**유발 하라리** 《사피엔스》《호모 데우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 | 담마코리아 옮김 | 304쪽 | 14,000원



S. N. 고엔카 (1924~2013) 세계적인 위빳사나 명상 지도자. 31살에 위빳사나 명상과 만나 스승 우 바 킨 곁에서 14년 동안 수련하였다. 종파에 치우침 없이 보편적이고 평등하게 접근하는 그의 열린 마음은 다른 종교, 배경, 계층, 성별을 가진 수많은 사람을 이끌었다.



내면의 평화에 이르는 여행

고엔카의 위빳사나 10일 코스
윌리엄 하트 엮음 | 담마코리아 옮김 | 216쪽 | 11,500원

달라이 라마의 진솔하고 인간적인 고백



심리학과 과학의 질문에 행복이 답하다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
달라이 라마, 하워드 커틀러 | 류시화 옮김 | 352쪽 | 12,800원

종교의 한계 너머, 자비의 실천방법
달라이 라마의 종교를 넘어
달라이 라마 | 이현 옮김 | 248쪽 | 13,500원

틱낫한 스님의 깨어 있는 삶의 예술



삶의 폭풍우를 통과하는 지혜
오늘도 두려움 없이
틱낫한 | 진우기 옮김 | 224쪽 | 12,000원

스님의 대표 저작과 강연의 핵심 모음집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틱낫한 | 류시화 옮김 | 289쪽 | 12,000원

흔적 없이 나는 새
수불 스님의 황벽 선사 〈전심법요〉 선해
수불 | 604쪽 | 25,000원

인식이란 무엇인가
연기법을 입체적·종합적으로 탐구한 역작
신용국 | 608쪽 | 28,000원

선심초심
일상의 명상, 일상의 깨달음을 위한 안내서
스즈키 순류 | 정창영 옮김 | 260쪽 | 13,000원

마음을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백성욱 박사의 일화와 가르침 모음
백성욱 | 김원수 엮음 | 225쪽 | 10,000원



세상의 진실에 눈뜨게 하는 명쾌한 안내서
이것이 깨달음이다
백창우 | 800쪽 | 28,000원

가장 쉽게 연기론을 이해하는 길라잡이
연기법이면 누구나 깨닫는다
백창우 | 212쪽 | 13,000원

세계 유일 적십자 불교봉사회 설립



박추자 적십자불교봉사회 초대회장은… 1944년 경남 진해 진영서 태어나 부산 세무서에서 근무했다. 1975년 결혼해 대한적십자사에 가입, 2003년 적십자불교단위봉사회를 창립했다. 2005년 적십자불교지구협의회를 창립했으며 2006년 대한적십자 부산광역지사 표창장을 수상했다. 이후 2008년 사단법인 불국토 특별공로상, 2010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장을 수상했다.

그대는 자비보살

박추자(76)

적십자불교봉사회 초대회장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18세기 말, 유럽에서 전쟁의 상병자 구호 활동을 위해 시작된 인도적 기구 적십자는 오늘날 전쟁 구호 뿐 아니라 재해구제, 질병예방, 민간인 보호 등 활동영역을 넓혀 활동하는 세계적 봉사기구다. 우리나라에서도 1905년 대한제국 때 대한적십자사가 출범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안에는 불자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봉사단체가 있다. '적십자불교봉사회'다. 세계에서 유일하다. 그리고 대한적십자 안에서 운영되는 소규모 단위 기구를 넘어 10개가 넘는 봉사 기구를 운영하는 대한적십자 불교지구협의회가 설립됐다. 불교지구협의회 소속 봉사회 회원들은 불교계 행사를 비롯해 모든 봉사현장에서 늘 적십자가 새겨진 노란 조끼를 입고 활동하며 "우리는 불자에요!"라고 외친다. 적십자불교봉사회를 만들고 협의회까지 설립한 박추자 적십자 불교봉사회 초대회장을 만났다.

효심(孝心)이 지은 인연

박 회장의 삶은 평범했다. 결혼 후 남편과 함께 시부모를 모시고 두 명의 자녀를 둔 전업주부였다. 1975년에 결혼한 후 전업주부로서 한결같이 살아왔다. 특별할 것도 화려할 것도 없는 주부로서의 삶을 살던 박 회장의 삶에 변화가 생긴 것은 지극히 모셨던 시아버지의 타계에서 시작됐다. 박 회장에게 시아버지는 아버지였다. 시아버지를 다른 세상으로 떠나보낸 박 회장은 슬픔을 극복할 시간이 필요했다. 이후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여느 날과 다름없이 박 회장은 가족을 위해 일상을 꾸리고 있었다. 따뜻한 봄날이었다. 그는 우연히 신문 광고에서 '된장 담그는 행사' 광고를 보게 됐다. 박 회장은 맛있고 건강에 좋은 된장으로 반찬을 만들 수 있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행사장을 찾았다.

평소 어른을 정성스럽게 모셨던 생활 습관 때문인지 박 회장은 힘들고 어려운 일도 척척해냈다. 그런 박 회장의 모습은 금방 대중의 눈에 띄었다. 행사는 원불교에서 주최한 행사였는데, 박 회장의 진심어린 봉사 모습이 행사를 진행했던 담당 간부들의 기억 속에 진하게 남았다. 봉사를 마칠 때 쯤 적십자에서 활동하는 원불교 교도가 박 회장을 찾아왔다. 적십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던 원불교 교도는 박 회장에게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봉사활동을 권유했다. 그리고 1998년 박 회장은 처음으로 적십자 봉사단에 발을 들여놓게 됐다.

적십자불교봉사회 출범

적십자 봉사단에 들어간 박 회장은 봉사에 최선을 다했다. 원불교에서는 적극적이고 진심으로 활동하는 박 회장을 1년 만에 단위기구를 담당하는 운영회장으로 임명했고, 원불교 교도로 영입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박 회장은 불자였다. 원불교 안에서 인정과 신뢰를 받고 있던 박 회장은 결단을 해야 했다. 20여 명의 박 회장의 불교 도반들이 봉사회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박 회장은 더 이상 원불교에서 활동을 이어 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단순히 봉사를 이어가는 것을 넘어서 도반들의 신행 생활에도 지장을 줬기 때문이었다. 또, 불교 봉사 기관에 도움을 주고 싶기도 했다. 여러 모로 더 이상은 불자로서의 신행과 수행 활동에 지장을 받고 싶지 않았다. 불교는 대부분의 법회가 음력에 맞춰 진행됐지만 원불교에서 진행하는 봉사 활동은 양력에 맞춰 진행됐기 때문에 신행활동에 적잖은 지장이 있었다. 박 회장은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고, 더불어 불교 관련 기관에 힘을 보태고 싶었다.

"봉사는 신행 · 수행과 함께 해야 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봉사라 해도 행복하게 해주는 마음의 법수행이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저를 아껴주던 원불교를 나와 독립을 하기 까지는 배신자란 비난도 감수해야 했고 남모를 마음고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을 모시고 창립법회를 열었을 때, 그 감동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원불교로부터 나와 독립을 하고자 했을 때, 박 회장과 도반들은 대한적십자 부산 동래지구에 들어가야 했다. 적십자에서 바로 결성을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지만 박 회장과 도반들은 묵묵하게 봉사 활동을 이어갔다. 그리고 2003년 3월 11일 적십자불교단위봉사회로 정식 출범하게 됐다.

전업주부서 봉사회 회장으로
원불교 행사 참여로 봉사 입문
적십자 봉사회 가입으로 활동
가입 1년 만에 단위회 회장
도반 · 신행 위해 원불교 나와
2003년 적십자불교봉사회 창립
200여 명 활동 대규모 협회로

"5년 만에 이룬 일이었습니다. '둘이 아니다'란 의미에서 11일로 날짜를 정했어요. 날짜 하나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아 정하고 싶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를 전하는 씨앗으로 이 땅을 밝히고 맑게 하는 봉사자가 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출범 후 불교단위봉사회는 그 규모가 점점 커졌고, 더 이상 단위봉사단으로는 꾸려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50명 이상이 되자 각 단위봉사회로 나눠 구성을 조직했고 협의회로 인정받아 2년 만에 적십자불교협의회를 창립하게 됐다.

"많게는 200여 명의 봉사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정말 신명나는 봉사 활동이었습니다. 피곤해도 즐거운 피곤함이었지요."

매월 월례회를 할 때면 회원들은 봉사원 서약을 하며 봉사정신을 거듭 새롭게 다졌다. 서약은 언제나 성실한 마음으로 봉사에 임하고 이웃과 더불어 밝은 사회를 구현하며 적십자의 명예와 전통을 빛내겠다는 스스로의 점검이었다. 봉사단은 각 복지관 및 봉사 활동에 따라 나누어 구성됐다. △하나단위회 △두리단위회 △연등단위회 △유삼단위회 △수련단위회 △광명단위회 △참사랑단위회 △정다운단위회 △자비단위회 △불심단위회로 구성됐다.

B2면에 계속

INSIDE

B3 조준호의 미얀마 수행처 이야기
빠옥 총림에서 생활 〈11〉
B4 출판
〈낡은 옷을 벗어라〉 법정 스님
B5 문화
회암사지박물관 특별전



적십자불교봉사회 창립기념(앞줄 오른쪽에서 세번째 박추자 회장)


봉사 계기가 됐던 원불교 행사에서 된장을 담그는 박추자 회장(사진 왼쪽).



적십자불교지구협의회 결성 기념사진(앞 줄 왼쪽 두번째 박추자 회장)

孝서 시작된 봉사로 슬픔·병마 극복

봉사의 삶이 준 시련과 기쁨
뇌경색으로 쓰러져 한때 절망
남편의 응원으로 시련 극복
부모 위해 불교와 인연 시작
"봉사는 자신 내어주는 일"
"나눔이 저축, 건강이 보험"
불자다운 회향 마지막 발원

'박추자 회장'

B1면에서 계속

특히 눈에 띄는 건 '아주 훌륭한 형님봉사원'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아주 훌륭한 형님봉사원'은 나이가 많아도 나이를 의식하지 않고 젊은 봉사단 보다 열심히 봉사하는 형님들이었다"며 "그분들은 우리 불교봉사회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했다.

적십자불교봉사회는 창립 이후 불교계 복지관을 우선 방문했다. 양정재가노인복지관, 개금복지관, 상락정, 수영복지관 등 복지관과 무료급식소에서 봉사 활동을 진행했고 장애 아동들을 위한 목욕봉사를 도맡았다. 불교계 복지관 활동뿐 아니라 재난 구호활동도 이어갔다. 자연재해, 태풍, 눈사태, 지진 등 그들은 노란조끼를 입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수해현장에서는 청소를 담당했고 농작물 피해 현장에서는 벼 일으키기, 폭설현장에서는 눈을 치우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봉사활동을 위해서 회원들은 십시일반 후원금을 모으는 데도 앞장섰다. 후원금은 무료급식을 위한 반찬비로도 활용했으며 구호미를 구입해 취약계층을 도왔다. 회비로 구입한 구호미는 미혼모, 다문화가정, 북한이주자 등 소외된 가정을 찾아 전달했다.

"주인 의식이 필요합니다. 봉사는 자신을 내어주는 일이지요. 그 어느 누구도 후원금을 아까워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도반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제가 회장직을 그만 둔 후에도 역대 회장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이 모든 봉사 활동이 가능했습니다."

봉사단은 쉼 없이 크고 작은 불교행사에서 힘을 보탰다. 연등회와 팔관회 그리고 사명대사 추모재 등에서는 어김없이 적십자가가 그려진 노란 조끼를 입은 적십자불교봉사회를 만날 수 있었다.

병고의 아픔, 봉사의 기쁨으로 이겨내

2006년 12월, 쉼 없이 봉사활동을 이어가던 박 회장은 김장봉사를 준비하던 중 갑자기 쓰러지고 말았다. 뇌경색이었다. 박 회장은 낮에는 봉사활동을 이어갔고 밤에는 동명대 사회복지과에서 공부를 이어가고 있었다. 박 회장은 입원해야 했고, 더 이상 봉사를 이어갈 수 없게 됐다. 말은 어눌해졌고 행동은 부자연스러웠다. 하고 싶던 공부를 못하게 된 것이 더 안타까웠다. 더 이상 봉사도 공부도 하지 말라는 의사의 처방은 절망적이었다.

"2주 정도 병원에 입원해있는데 의사 말대로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내 모습을 상상하니 환자복을 입고 있는 모습만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병원을 나와 버렸습니다."

의사의 말을 따르지 않고 퇴원해버린 박 회장은 집에서 머물며 쉬운 일부터 하나씩 해나가기 시작했다. 박 회장은 곰곰이 생각했다. 3월에 학교가 개학하니 3개월 정도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고 '한 번 해보자'란 결심으로 스스로 훈련했다.

박 회장의 가장 큰 응원군은 그의 남편이었다. 모두가 박 회장의 공부와 봉사를 말렸지만 그의 남편만은 달랐다. 박 회장의 남편은 조용히 등록금 고지서를 들고나가 박 회장의 다음 학기 등록금을 납부했다.

"남편이 '등록금을 내고 왔으니 공부를 멈추지 말라'고 했어요. 그 때 그렇게 남편이 응원해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봉사는 기쁨입니다. 봉사의 기쁨이 저를 낫게 해주었다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건강한 박 회장이다. 세월에 따라 하얗게 쉰 머리카락은 은색으로 반짝거리고 꾸밈없는 맑은 미소를 머금고 살짝 웃는 눈은 따뜻했다. 어느 곳에서도 아팠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박 회장은 "가족으로 인해 봉사를 시작할 수 있었고 마라톤하 듯 지금도 봉사를 이어 갈 수 있다고 했다."

가족에 대해 말하며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던 박 회장은 '효(孝)'에 대한 마음이 자신을 이렇게 만들어 준거 같다고 했다. 자신의 역할을 성실하게 다하며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왔던 박 회장은 시아버지의 죽음을 겪은 후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볼 수 있었다고 했다. 박 회장의 시아버지는 임종 당시 91세였고 마치 잠을 자듯 편안하게 숨을 거두었다. 박 회장의 시어머니는 101세에 삶을 마무리 했다. 그리고 박 회장은 친정어머니도 모셨다.

"세 분 부모님 임종을 곁에서 지켰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지내시다 마치 주무시듯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업장을 녹이는 마음으로 모셨던 것 같아요. 그분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 저의 공부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의 저를 만들고 의미 있는 봉사활동까지 하게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 봤을 때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무엇이냐고 묻자 박 회장은 "잔고가 없는 통장"이라 말했다. 매달 나눠 준 후 비어 있는 통장을 보면 행복하다 답했다. 박 회장은 초대회장 역임 후 지금까지도 적십자불교봉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나눔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건강한 몸이 보험이고 나눠줘서 텅 비어 있는 통장이 저축입니다"

박 회장은 오래 전부터 누군가를 후원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박 회장은 자신이 누구를 어떻게 얼마나 후원하고 있는지 끝내 말하지 않았다. 박 회장은 공무원이었던 남편이 퇴직 후 받는 연금으로 누군가를 후원하고 있었다.

어떻게 불교를 만나게 되었냐는 마지막 질문을 하자 박 회장은 "부모님을 위해서였다"고 했다.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었는데 현실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결혼도 늦었고 자랑스럽기 보다는 제가 너무 못나 보였지요. 잘 해드리고 싶었어요. 불교에 귀의하고 지금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는데 시부모님이 불자셨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봉사활동을 시작한 저를 자랑스러워하셨고, 많이 도와주시곤 하셨어요. 나 자신이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 여기며 살아왔는데 자랑스러워해주시니 행복했습니다."

박 회장은 지난 2013년 봉사 활동을 담은 책 〈행복한 봉사, 제 이름은 박추자입니다〉를 출간했다. 봉사 일기를 묶은 책이다. 박 회장은 2000년 11월 22일 일기에 "막 떨어진 단풍잎, 너무나 예쁘게 물들어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환희심이 난다"고 적고 있다.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서 나오는 길 떨어진 단풍잎을 보며 박 회장은 "떨어져 있는 단풍잎 가운데 흠이 없는 잎이 없다"고 했다.

박 회장은 자신의 젊은 시절을 돌이켜 보면 흠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래도 아름답게 물들어 세월을 맞았고 저렇게 삶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싶다고 했다. 아무 것도 남기지 않고 회향하고 고요한 상태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것, 회향을 제대로 하는 것이 마지막 바람이라 말했다.



수행 · 보시 '여법'… 이상적 수행공동체



조준호의
미얀마 수행처 이야기

㉑ 빠옥 총림에서 생활 〈11〉



구족계를 받은 비구의 가족들이 사중 스님들에게 보시하는 모습. 절대로 금전을 보지 않는다. 돈은 재가자에게 위탁하고 사중에서 사용한다.

오늘은 빠옥 선원에 도착한지 12번째 날(2012년 2월 2일)이다. 같은 방을 쓰는 요기가 새벽 기상시간을 알리는 긴 목어소리가 나기 전에 조용히 나가는 것까지 알아차린다. 하지만 이후 목어소리를 듣지 못하고 다시 깊은 잠에 떨어졌다. 간신히 옆방 요기들의 채비하는 움직임이 느껴져 일어나 물세수를 마치고 선방에 올랐다.

간밤 〈청정도론〉을 보며 사마타와 위빠사나의 관계를 점검하면서 도표를 몇 개 그려보며 잠들었다. 같은 방의 젊은 요기는 불 켜고 잠시 기록하는 나를 두고 잠이 바로 든다. 그리고 새벽 3시 30분 이전에 조용히 일어나 선방에 올라 좌선에 열중한다. 선정으로 힘을 얻은 사람이 분명하다. 곁에서 보니 밥은 하루 두 끼이지만 많이 먹지도 않는다.

새벽 좌선의 딱딱한 코코넛 좌복이지만 이제는 편해졌다. 아침 공양을 마치자마자 아침 7시경에 중간 절의 계단으로 내려갔다. 오늘 이곳에서 비구계 수계식이 있기 때문이다. 마하시 선원처럼 직접 처음부터 참관해 보려고 바쁘게 걸어 내려 갔다. 이미 사미의 가족이 도착해있다. 오늘 비구계를 받는 사미는 이곳 종무소에서 봉사해서 가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모습과 행동거지도 준수하며 특히 다른 스님들에 비해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오다가다 또는 세면실에서 빨래하다 만나면 자신의 수계식에 대해 말한다. 오늘이 정확히 20세가 되는 날이라고 10일 전부터 비구계를 받는 의식을 무척이나 기다리는 눈치였다.

마하시 선원과 같이 계단에서 비구계 수계의식은 진행되었다. 3사7증이지만 더 많은 스님들이 참석하였고 빠알리 독송이 오랫동안 진행되었다. 의식이 끝나자 참관하였던 부모와 남동생, 여동생이 준비해 온 보시물을 스님들께 올렸다. 여기는 자식이나 친척이 출가하면 집안의 경사로 모두 모여 축하한다. 거리가 먼 경우는 미리 와서 절에서 하룻밤을 자고 참석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출가 문화와 비교되는 점이어서 생각되어지는 바가 많았다.

가족들은 준비해 온 보시물을 탁자를 펼치고 준비하였다. 작은 하이타이 1봉지, 나프탈렌 1봉지, 칫솔 1개, (한국 드라마 사진 표지의)노트 1권, 음료수 1병, 화장지 1개, 발우 닦는 수세미 1개, 향, 초, 비타민제 하나씩이 전부였다. 먼저 오늘 비구계 받은 친족 비구부터 큰 비닐봉지를 들고 지나가면 가족이 맨발에 줄을 서서 하나씩 넣어드린다. 다른 사찰에서는 돈으로 보시하기도 하지만 빠옥총림은 금전 보시를 철저하게 금한다. 다만 이렇게 생필품만을 보시하고 돈은 사찰 관리하는 재가자에 위탁형식으로 보관하게 하여 사중이 사용하도록 한다. 가족과 스님들이 비구계 수계를 기념하고 축하하는 기념사진을 찍는데 나도 역시 기념사진을 찍었다.

오늘 계를 받은 스님은 멀리서 왔다는 부모와 남동생, 여동생과 제대로 이야기도 나누지 않는 것 같은데 다른 스님들과 함께 바루를 메고 사뿐사뿐 윗절로 올라가는 뒷모습을 본다. 반대로 나는 아랫절 사무실로 향했다. 정인에게 돈을 좀 맡기고 필요한 것을 주문할 작정이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공양청에 정인이 와서 요기들의 주문을 받아 필요한 물품을 제공해준다. 그런데 나는 누가 정인인지 얼굴도 모른다. 그래서 직접 가서 돈을 맡기고 보시할 꿀 7병을 주문하는데 한 개당 1900ks라 한다. 지갑에 충분한 돈이 있었지만 아직도 이곳 돈 개념이 애매해 부족한 것으로 생각하여 내일 갖다 주기로 했다.

정인은 다른 미얀마 여성보다는 세련된 영어에 세련된 표정과 언어를 구사하였다. 노트도 한 권 구매 신청하였더니 노트는 있는 것 그냥 보시하겠다고 3권을 가져다준다. 꿀 7병도 바로 주려한다. 돈을 내일 받겠다고 한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믿겠냐"하니 주려던 꿀을 곧바로 다시 챙긴다. 내일 가지고 올라가 주겠다고 한다. 꿀은 이곳에서 출가하여 오후 불식하는 한국 스님들께 보시할 목적이다. 보시용으로 알아서인지 일처리에서 무한 신뢰를 보는 것 같아 훈훈한 생각이 인다.

점심 공양의 마지막에 연세가 들고 가난하게 보이는 노보살님이 조그마한 하이타이 하나씩을 비닐에 넣어 스님들께 보시하고 재가 수행자에게도 보시한다. 멀리 마을에서 챙겨 들고 이곳까지 올라오셨을 것이다. 무작정 받아와서 보니 하이타이이다. 옆에서 밥 먹는 요기는 없다. 왜 받아오지 않았느냐고 하니 가난한 노인의 보시라서 차마 받을 수 없어 그냥 왔다는 것이다. 밥을 다 먹고 잠시 그릇을 두고서 다시 가서보니 그 노인은 땅바닥에 앉아서 공양을 들고 있다.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아 손으로 합장하고 하이타이를 이마에 대고 고맙다는 표시를 하였다. 그리고 다시 내밀면서 '많다(many)'라는 한 단어만 쓸 수 밖에 없었다. 옆에 앉아있는 젊은 여자가 이 말을 알아들었다는 듯 전해준다. 사실 별로 빨래할 일이 거의 없어 양곤에서 사온 하이타이와 빨래비누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20세 맞아 비구계 받는 사미승
가족들 축하… 스님들에게 보시
빠옥 총림선 금전 보시 안 받아
돈, 재가 위탁해 사중서 사용해
같이 탁발 · 수행하는 이상 공동체

돌려드리고 오면서도 혹시라도 보시자가 섭섭해 하지 않을까하는 마음이 들었다. 없는 살림에 자기 또는 자기 가족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이 신심으로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가진 것 가운데 조금이라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은 숭고하기 그지없게 느껴진다. 마음으로나마 보시자가 행복한 길에 들어서기를 염원할 뿐이다.

식기를 씻고 돌아가려는데 한국 젊은 스님이 보인다. 잠시 인사를 하고 있는데 연세가 지긋하게 보이는 미얀마의 한 스님이 가위를 들고 나를 흠칫 보시더니 다른 곳으로 가셨다가 다시 와서는 나에게 가위를 건너 준다. 즉각적으로 무언가 해드려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따라가 보았다. 밖의 나무가 있는 곳으로 따라 나가 나뭇가지 3개를 절지했다. 원래 출가 스님이 바로 나무를 절지하는 것은 계율에 어긋난다. 이 스님은 불단의 화병을 장엄하는 소임을 맡아서 마침 재가지를 찾다가 나를 적임자로 생각하셨던 모양이다. 스님 덕분에 바로 계율 공부를 현장에서 할 수 있어 기뻤다.

한국 젊은 스님과 사마타와 위빠사나의 수행 문제에 대해 여러 의견을 주고받았다. 스님의 반복적인 지론은 사성제와 팔정도 외에는 모두 진실이 아니라고 한다. 어떠한 교리적 해석도 각자 나름의 생각과 견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떠한 큰 스님의 설법과 주장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아마 선채로 1시간 넘게 이야기를 하였다. 나오다 보니 예전에 볼 수 없었던 큰 기둥 뒤에서 한 스님이 좌복을 깔고 입정에 든 모습이 보인다.

머리를 감지 않은 지가 이틀이 넘어 머리만 감으려다 샤워까지 한다. 그런데 여전히 노랑개구리가 드높은 벽에 설치된 수도꼭지 안에서 벌거벗고 목욕하는 나의 모습을 눈 한번 깜짝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다. 어제 노랑개구리를 잡아 방생시키려던 한국 젊은 요기를 만났는데 아마 이곳이 제집일 거라는 내 이야기에 다시 되돌려 놓은 듯하다.

목욕탕에 따로 옷 거는 것이 없다. 그래서 양곤에서 사온 옷걸이를 목욕탕 출입문에 설치해 두었다. 양곤에서부터 한국 사람을 만날 때마다 몇 개씩 나누어주었는데 이번에 가장 잘 쓴 것 같다. 앞으로 수행자들이 샤워할 때 옷을 제대로 걸어놓고 목욕할 수 있게 되었다. 저녁 좌선 후 돌아와 물통에 담근 빨래를 몇 번 비벼 헹구었다.

빠옥 선원에 도착한지 13번째 날(2012년 2월3일)이다. 오랜만에 비누로 얼굴을 씻고 머리도 제대로 다듬은 후 선방에 올랐다. 예불문을 빠알리 그대로 독송해 본다. 아침 좌선은 시간이 잘 간다. 다른 사람보다도 늦게 20분가량 더 앉아있다 천천히 내려왔다. 아침 공양을 천천히 들고 일어나 거처로 돌아오는 데 노란 큰 뱀이 길 한가운데를 가로지른다. 예기치 않는 발견에 흠칫 놀랐다. 바로 한 발자국 앞에서 여유있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고 보니 요즘 시선을 멀리두지 않는 습관이 생겼다. 고개를 숙이고 걷는 습관이 생겨 한두 발자국 앞밖에 보지 못함을 알았다. 아마 시선을 멀리 둠으로써 시야가 넓어져 많은 사물들이 포착되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무의식적 행동일 것이다. 여기 뱀들은 전번에도 보았지만 아주 느릿느릿 움직인다. 우리나라 뱀들은 아주 빨리 쏜살같이 움직이는데. 뱀들도 참선을 하는가! 좌선하는 선방 영향을 받았나보다 생각해 본다.

간밤에 하이타이에 담가놓은 빨래를 통째로 몇 번 비벼 행궈 빨래줄에 널었다. 아침 9시 30분에 벌꿀을 사기위해 가야하는데 30분 늦어 바쁘게 갔다. 10시에 도착했는데도 7개를 미리 준비해 와서 앉아 기다리고 있다. 중간에 같은 방 요기와 쉐오민 수행센터에서 온 여성 요기를 만났다. 꿀을 방에 옮겨놓고 '날씨가 차츰 따뜻해져간다' 고 생각해본다. 자연히 활력이 생기는 것 같다.

가끔 머리로 나마 이상적인 사회를 설계해 보지만 이제는 예전과 같이 그러한 꿈이 오래가지는 않는다. 대신 이상적인 수행공동체를 자주 계획해본다. 많은 점에서 이곳 파옥 수행공동체는 내가 생각해오던 이상적인 수행공동체에 부합된다.

수행하는 분위기에 압도되어 어디에서도 큰 소리 나지 않고 싸우는 모습도 볼 수 없다. 강제하지 않아도 저절로 질서 있게 돌아간다. 그저 평화롭고 원활하게 운영된다. 스님들은 아침 · 저녁으로 만나면 옹기종기 모여 서로의 과오가 있었다면 용서를 비는 참회를 한다. 출가자나 재가자, 내국인과 외국인 등 너와 나를 크게 구별하지 않고 어우러져 서로 조심하고 존경을 표한다. 밥도 같은 탁발대에서 한 솥밥을 먹고, 같이 좌선을 하고 같이 거닌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소임은 알아서 잘 처리한다. 오후 좌선이 끝나면 소임에 따라 스님들은 주어진 구역을 쓸고 닦고 개인 처소를 정리정돈한다. 유럽인이든 아시아인이든 미얀마인이든 재가 수행자들도 긴 목어소리가 들리면 시간에 맞추어 자기 수행을 열심히 한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개개의 분위기를 잘 잡아나가는 것 같이 보인다. 이것은 연구 대상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세속의 경제논리에 따르지 않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 가장 마음에 든다. 수행처에서 가르침과 관련하여 돈 거래를 최소화하고 있다. 물론 얼마동안을 여기서 머무는 데도 돈을 받지 않지만 스님들에게도 돈으로 하는 보시는 없고 법당에도 불전함이나 보시함이 없다.

〈동국대 미래융합교육원 외래교수〉



“이 새로운 계절에 그만 낡은 옷 벗어 던져야 성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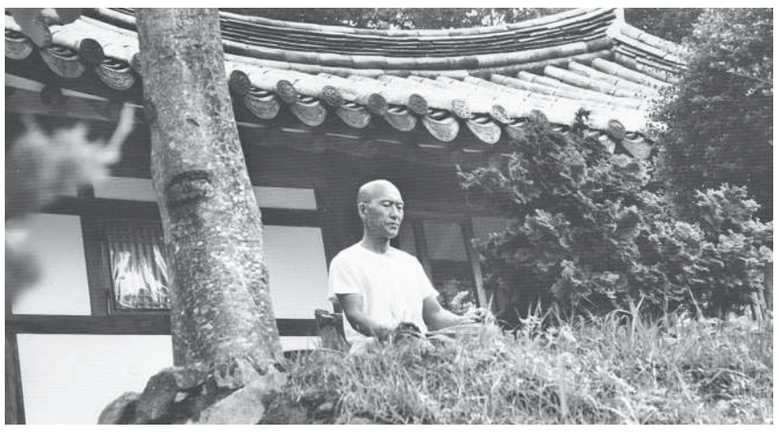




낡은 옷을 벗어라
글 법정 스님
불교신문사 펴냄
1만 6500원

원적10주기 추모집 형식 출간
1963~1977년 불교신문 게재
시 설화 서평 등 68편 담겨져
11개 영역 나눠, 어법 현대화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법정 스님 하면 연상되는 용어들이 많지만 가장 대표적 단어는 ‘무소유’다. 스님은 “무소유는 단순히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을 뜻한다”고 정의하며, 생명 중심적 나눔의 삶을 설파했다. 세속 명리와 번잡함을 싫어한 스님은 홀로 땔감을 구하고 밭을 일구며 청빈을 실천했다. 10년 전 눈물로 큰 스승을 잃은 슬픔을 대신한 우리들에게 법정 스님은 평소처럼 당신의 글로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 삶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있다. 법정 스님(1932~2010)의 원고 68편이 원적 10주기 추모 기념으로 한 권의 책으로 묶여진 것이다.

불교신문사(사장 정호)는 11월 10일 법정 스님 추모집 형식의 〈낡은 옷을 벗어라〉를 출간했다. 이번에 나온 책은 법정 스님이 1963년부터 1977년까지 불교신문에 게재한 원고를 모았다. 그동안 법정 스님 명의로 출간된 바가 없는 글들이라서 스님의 사상과 수행자로서의 철학을 살필 수 있는 소중한 자료 모음이다. 법정 스님은 이 당시 불교신문 주필과 논설위원을 맡으며 불교의 문서 포교를 위해 다양한 생각의 글들을 발표했다. 스님은 법정 스님이라는 이름 이외에도 ‘소소산인’ ‘청안’이라는 필명으로도 주옥같은 글을 썼다. 법정 스님의 유명한 저서 인 〈무소유〉를 비롯해 〈영혼의 모음〉 〈서있는 사람들〉 등 초기 저작에도 불교신문에 게재했던 글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번에 발간된 〈낡은 옷을 벗어라〉는 불교신문이 지난 2010년 법정 스님이 입적 1년 후 스님의 가르침을 조명하기 위해 불교신문 영인본을 조사하며 찾아낸 육필 원고이다. 원래 사후에 말과 글에 빚지기 싫다는 법정 스님의 유지에 따라 절판하려 했으나, 스님의 가르침을 연구하는 차원서 (사)맑고 향기롭게의 협조를 받아 출간하게 됐다.

〈낡은 옷을 벗어라〉는 68편 원고를 성격에 따라 분류해 11개 영역으로 나눠 신문에 실린 제목을 그대로 실었고, 일부는 새로 제목을 달았다. 또한 원고 말미에 게재 날짜를 표기해 글을 쓸 당시의 순간을 기억하도록 배려했다. 일부는 시기가 오래된 원고여서 독자들이 읽기 편하게 일부 원고는 전체 맥락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극히 최소 문장을 수정했다. 어법 또한 현대문법에 맞췄으며, 활자판 인쇄로 한자가 누락된 부분은 유추해 앞뒤 문맥에 맞도록 수정했다. 이번 책에는 법정 스님이 출가한 후 사상적 흐름을 추적해 볼 수 있는 주옥같은 글들이 가득하다는 장점이 있다. 출가 초기 시절 역경 사업을 하며 쓴 설화를 비롯해 문학적 감수성이 넘치는 시, 냉철한 이성과 판단력으로 불교의 낡고, 해묵고,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칼날같이 비판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다양한 논단과 칼럼이 많다.

이외에도 스님의 출가 초기인 1960년대 초 역경 사업에 매진한 글들이 13편 설화 형태로 소개돼 있다. ‘어진 사슴’ ‘조용한 사람들’ ‘겁쟁이들’ ‘저승의 선물’ 등의 주제로 쓰여진 설화에는 경전에 근거한 비유를 인용해 불교의 가르침을 전한 글들이 들어 있다. ‘구도자’라는 설화는 스님이 창작한 설화로 중국 선종사 초조인 달마 스님과 혜가 스님의 이야기를 극적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특히 ‘연둣빛 미소’라는 설화는 죽은 물고기를 통해 모든 생명의 존귀함을 일깨우는 법정 스님의 창의력이 돋보인다.

또한 1960년대 중반 부터는 법정 스님의 시 12편이 등장한다. 지금까지 법정 스님은 자연친화적 산문으로 대중들 마음을 치유해 준 것으로 인식하지만 시에 대한 조예가 깊었다는 사실이 이번 원고를 통해 전해진다. 또한 ‘병상에서’라는 시는 수행자가 몸져 누워 있으면서 겪는 인간적 외로운 마음을 노래하며 ‘내 그림자는’라는 시는 법정 스님이 서울서 생활하며 산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보이며 자신을 안스러워 하는 감정을 엿보게 한다.

“졸속주의가 낳기 마련인 부실과 단명(短命)을 이제 우리가 할 신성한 불사에 만은 제발 되풀이하지 말자는 말이다. 만약 오늘 이 땅에 부처님이 출현해서 말씀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어떻게 하실까? 한말식(韓末式) 사고로써 그 시절에 쓰던 한어식(韓語式)으로 말씀을 하실까? 아니면 지금의 우리 귀에 익은 우리말을 쓰실까? 철 지난 옷을 언제까지고 걸치고 있으려는 고집은 이제 웃음거리밖에 낳을 것이 없다. 겨울이 지나가면 봄철이 온다는 이 엄연한 우주질서를 이제는 더 외면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새로운 계절 앞에서 그만 낡은 옷을 벗어 던지고 새 옷으로 갈아입지 않으려는가?”

책장을 넘기다 보면 강남 봉은사의 부지가 팔리는 사안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하는 결기 넘치는 스님의 마음을 담은 글도 보인다.

“불교회관 건립은 몇 해 전부터 논의된 우리 종단의 염원이다. 그 회관을 세우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 봉은사 같은 도량을 팔아서까지 회관을 세우지 않으면 안될 만큼 시급한 일인가에는 의문이 없지 않다. 봉은사는 잘 알다시피 한국불교사상 영구히 기억될 도량이다. 불교가 말할 수 없이 박해를 받던 이조시절 허응(虛應) 보우(普雨) 스님에 의해 중흥의 터전이 구축된 데가 이곳이며, 서산 · 사명 같은 걸승의 요람이 된 곳도 바로 이 봉은사인 것이다. 서울서 가장 오래된 사원이라거나 또는 불교 중흥의 도량이라는 과거를 무시하고라도, 한수이남(漢水以南)에 자리 잡은 그 입지적인 여건으로 보아 앞으로 우리 종단에서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요긴한 도량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책을 펴낸 불교신문사 사장 정호스님은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맑고 향기롭게’의 승인 하에 이번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며 “책에 대한 수익금은 불교포교와 (사)맑고 향기롭게의 장학기금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10년만에 글로서 다시 만나는 법정 스님은 역시 법정 스님이었다. 촌철살인 같은 경책과 삶의 위로가 되는 주옥같은 무소유의 사상이 오롯이 녹아 있었다. 이 책을 읽을수록 스님의 글들을 계속 만나고 접하고 싶은 욕심이 솟구치는 것은 집착일까? 아니면 스님의 무소유 가르침을 아직도 깊이 체득하지 못한 중생의 어리석음 때문일까? 만추에 법정 스님이 더욱 그리워지는 이유가 그 해답일 것이다.

▲저자 법정 스님(1932~2010)은?

1956년 효봉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받은 후 통영 미래사, 지리산 쌍계사 탑전서 스승을 모시고 정진했다. 이후 해인사 선원과 강원서 수행자의 기초를 다지고 1959년 자운 율사를 계사로 비구계를 받았다. 1960년 통도사서 〈불교사전〉 편찬 작업에 동참했고, 1967년 서울 봉은사서 운허스님과 더불어 불교 경전 번역을 했다. 1973년 함석헌, 장준하 등과 함께 민주수호국민협의회를 결성해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 하지만 세상에 명성이 알려지고 끊임없이 찾아드는 사람들을 피해, 다시 출가하는 마음으로 1992년 4월 강원도 산골 오두막으로 거처를 옮기고 생명 중심의 세상을 명상하며 홀로 수행 정진했다. 1993년 8월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 준비 모임’을 발족해, 1994년 3월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 첫 대중 강연을 시작으로 서울, 부산, 대구, 경남, 광주, 대전 등지에서 뜻을 함께 하는 회원들을 결집해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모임’을 이끌었다. 스님은 폐암이 깊어진 뒤에도 침상서 예불을 거르지 않았으며 “금생에 저지른 허물은 생사를 넘어 참회할 것이며, 이제 시간과 공간을 버려야겠다”는 말을 남긴 뒤 2010년 3월 11일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서 원적(세수 78세, 법랍 55세)에 들었다.

책 속의 밑줄 긋기

“‘볼륨’을 낮춥시다. 우리들의 청정한 도량서 불협화음을 몰아내야겠습니다. 처마 끝에서 그윽한 풍경소리가 되살아나도록 해야겠습니다. 법당서 울리는 목탁소리가 고요 속에 여물어 가도록 해야겠습니다. 하여 문명의 소음에 지치고 해진 넋을 자연의 목소리로 포근하게 안아줘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제 넘게 말하는 제 자신도 ‘바흐’나 ‘베토벤’을 들을 때면 의식적으로 ‘볼륨’을 높이는 전과자입니다.” 〈볼륨을 낮춥시다〉 中에서

“입시에서의 실패, 단순히 이것만이라면 누구나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실패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어떻게 개발시켰던가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롤랑’은 뒷날 그의 회상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나는 그 일로 해서 조금도 후회하지는 않는다. 나는 보다 성숙하여 입학했으니까. 그리고 ‘세익스피어’와 ‘위고’로 인해서 놓쳐버린 시기를 나는 내 인생을 위해 벌었던 것이다….’” 〈너는 성장하고 있다〉 中에서

“불교에 있어서 기복의 요소는 어디까지나 종교의 부수 현상일 뿐이지 종교의 본질은 아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부수 현상이 본질에 앞설 때 그것은 사이비 종교이며 미신 사교인 것이다. 불교는 본래 지혜의 종교로서 그 최고 이상인 보리(覺)는 일체지(一切智)이며 정변지(正徧智)이다. 불교의 초기교단 형태를 살펴보면 번뇌를 없애고 해탈에 이르기 위해 주로 계율을 지키고 선정과 참회에 힘썼다.” 〈기도하는 신심들〉 中에서

붓다의 가르침을 가장 원형에 가깝게 전하는 아함경!
한역 4부 아함의 온전하고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 번역과 주석!
가까이 두고 하루에 단 한 줄만이라도 읽고 새겨야 할 소중한 가르침!
한산 김윤수 역주 『아함전서』 1~16 ★ 전집 구입시 별도 제작된 『전체 색인집』을 드립니다.

잡아함경(전5권)

1권~5권 3,270쪽 / 신국판 양장 / 케이스 / 세트가 150,000원

증일아함경(전4권)

1권~4권 2,252쪽 / 신국판 양장 / 케이스 / 세트가 120,000원

중아함경(전5권)

1권~5권 2,912쪽 / 신국판 양장 / 케이스 / 세트가 140,000원

장아함경(전2권)

1권, 2권 1,228쪽 / 신국판 양장 / 케이스 / 세트가 6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흔적으로 보는 옛 가람 난방문화, 온돌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특별전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온돌 – 회암사의 겨울나기'
11월 8일~ 2020년 2월 9일

부뚜막 등 온돌유구 100여 건
회암사 서승당지 온돌방 재현
증강현실 영상 서승당 체험도

사지의 흔적과 출토된 유물을 통해 우리건축의 전통 난방 양식인 '온돌'을 조명하는 전시가 열린다.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은 11월 8일부터 2020년 2월 9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특별전 '온돌 : 회암사의 겨울나기'를 개최한다.

온돌의 역사와 구조 등을 조명하고 양주 회암사지(사적 제128호)에서 출토된 온돌유구의 현황을 살펴보는 이번 전시는 굴뚝토기(국립공주박물관), 부뚜막(국립중앙박물관) 등 100여 건의 전시물과 정보 패널을 통해 회암사지 온돌의 현황과 가치를 조명한다.

이번 전시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온돌방의 재현으로, 국내 온돌 건물지 중 가장 큰 규모로 출토된 서승당지를 일부 전시장에서 재현한다. 서승당지는 출가대중의 참선공간이자 행사 때 외부인의 쉼터로 추정되는 공간이다. 남북 길이가 약 32.6m에 달하는 대형 건물 안에 'ㅌ자' 형태의 탁상구조 온돌이 출토되어 주목을 받았다. 전시현장에는 전체 건물지 중 북쪽에 해당하는 절반의 실내구조를 약 1/4 규모로 축소 재현하여 연출했다. 'ㅌ'자 형태의 탁상구조 중 'ㄷ'자 부분에는 관람객들이 신발을 벗고 올라가 실제의 온돌처럼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재현했다. 또한 증강현실(AR) 기술을 적용한 벽면의 영상을 통해 내부에 들어선 관람객들은 참선 장면 등을 확인할 수 있어 마치 옛 회암사의 서승당에 실제로 들어온 것과 같이 느낄 수 있다.

2018년 국가무형문화재 제135호로 지정된 온돌은 우리나라 건축 및 생활양식에 큰 영향을 미쳐왔으며, 산중 사찰에서도 역시 주요 난방시설로서의 기능을 담당했다. 양주 회암사지(사적 제128호)는 최대 3천여 명이 머물렀던 대규모 사찰로, 예불 공간과 주거 공간 등 82동의 많은 건물이 3만여㎡에 걸쳐 자리하고 있다. 특히 온돌시설이 확인된 38개의 건물터는 우리나라 단일유적 내 최대 규모의 온돌유구 군으로, 옛 회암사에 머물렀던 많은 사람들의 겨울 생활을 상상할 수 있게 한다.


돌로만든 화로

부뚜막 (국립중앙박물관)

쇠솥

굴뚝(국립공주박물관)

이번 전시는 회암사지의 온돌에 대해 이야기한다. 전시를 통해 난방의 종류와 역사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난방의 특징인 온돌에 대해 알아본다. 그리고 회암사지 온돌의 현황 및 가치를 조명한다. 전시는 세 가지 테마로 구성됐다.

△1부, '추위를 피하다'에서는 동서양의 난방 문화에 대해 살펴본다. 기상과 기후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삶의 방식과 문화를 형성시켰다. 추위극복에 대해 동서양에서는 나름의 난방형태를 발전시켜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선사시대부터 화덕, 부뚜막 등을 통한 난방시설을 사용해왔다. 특히 침상 등 부분적으로 바닥면을 데우는 난방시설을 설치했는데, 이는 중국, 몽골 등 동북아시아와 유사한 문화권을 형성했다. 반면 서양에서는 실내에서 공기를 데우는 화덕이나 벽난로와 같은 난방시설이 주를 이루었다. 고구려의 아궁이와 굴뚝 형태를 추정할 수 있는 부뚜막(국립중앙박물관) 등이 전시된다.

△2부, '돌을 데우다'에서는 우리 온돌의 역사와 구조 등을 조명한다. 온돌(溫突)은 순 우리말인 '구들'을 표현한 한자어로, 선조들은 돌에 열을 가하면 일정시간 온기가 지속되는 속성을 파악하여 바닥에 돌을 깔고 이를 데워 온돌을 사용했다. 온돌은 아궁이와 굴뚝, 그리고 구들장으로 이루어지는데, 추운 산중사찰에서는 이른 시기부터 온돌이 사용되었고, 오랜 시간 한반도의 겨울을 책임지는 중요한 난방시설이었다. 굴뚝토기와 돌로 만든 화로(국립중앙박물관) 등이 전시된다.

△3부, '온기를 채우다'에서는 회암사지에서 출토된 온돌유구를 조명하고 화암사의 겨울나기를 알아본다. 양주 회암사지에서는 우리나라 단일유적 중 가장 많은 수의 온돌유구가 확인됐다. 총 38개에 이르는 많은 건물지에는 난방 또는 간단한 취사까지 겸할 수 있는 아궁이와 구들이 남아있다. 특히 여러 형태의 온돌이 용도가 명확한 유구에 많이 남아있는데, 이중 많은 출가대중이 참선하던 공간인 서승당 건물지에서는 'ㅌ'자형의 탁상구조가 출토되어 효율적인 온기보존이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시장 내에서는 서승당 내부를 재현한 공간에서 온돌방의 온기체험 및 가상승려와의 참선활동 체험이 진행된다. (031)8082-4170.

서예와 그림의 새로운 경계

류경희 초대전 '붉은 문인화'
11월 21~30일 경주 황룡원
반야심경 · 홍매 등 30여 점
맑은소리맑은나라 20주년 기념


류경희 作, '홍매' 68x35cm

재일 경제학자로 선화를 그려온 류경희 작가가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경주 황룡원 1층 건명원에서 초대전 '붉은 문인화'를 개최한다.

도서출판 맑은소리맑은나라의 창립 20주년 기념 특별전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류 작가는 '반야심경', '홍매', '부처님' 등 서예와 그림의 새로운 경계를 보여주는 선서, 선화 그리고 전각 등 30여 점을 선보인다.

형식면에서 조선의 문인화적인 요소를 잇고 있는 이번 전시의 작품들은 전통적인 문인화의 형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불교의 선(禪)적인 색채가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작품들이다. '잘 그린 그림'이라는 기예적 시점의 그림이 아니라 '마음의 표현(寫意)'에 방점을 둔 그림과 글씨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전시의 작품들에서 이미 글씨는 기존의 개념과 완전히 벗어나 있다. 단순히 의미를 전달하는 문자의 개념에서 벗어난 것으로, 하나의 그림이다. 그림 역시 마음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뜻을 가진 글자와 같은 의미를 띤다. 기존의 글과 그림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관계를 설정한다.

이번 작품들 중 그림의 특징은 붉은 색이다. '환매' '홍매' 등 다른 수묵에서 보기 힘든 묵과 붉음의 조화가 눈에 띈다.

2018년 법련사 불일미술관에서 첫 번째 개인전을 열었던 류 작가는 같은 해 한중일 서화전에 초대됐으며, 2019년 나무갤러리에서 두 번째 개인전을 열었다. 현재 일본 낙농학원대학 교수(유통학 연구실)로 재직하고 있다.

이번 전시를 주최하는 도서출판 맑은소리맑은나라는 1999년 부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 위한 동명의 월간지 창간과 함께 창립됐다. 사찰사보 제작, 법요집 제작, 단행본 제작 등의 도서출판 사업과 팜플렛 카탈로그, 포스터 등의 디자인사업 그리고 전시 · 행사기획, 불교아카데미 등의 부대사업을 통해 불교발전에 기여해왔다. 창간 20주년을 맞은 월간 '맑은소리맑은나라'는 2016년까지 무료로 불자들에게 배포돼 불법홍포에 큰 역할을 해왔다.

맑은소리맑은나라 김윤희 대표는 "불법홍포라는 원력을 내걸고 문서포교의 걸음을 시작한 지 어느덧 20년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20주년을 기해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앞으로 걸어갈 길을 위한 점검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창립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류 작가의 '붉은 문인화' 전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류 작가의 작업 역시 저희 문서포교와 같은 불법홍포의 한 가지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양한 문화의 시대에서 불교를 바탕으로 한 예술문화가 꽃피는 것은 또 하나의 커다란 포교라고 생각합니다."고 이번 전시의 취지를 밝혔다. (054)760-0500. 박재완 기자

전통조각 우리가 지킨다

제16회 대한민국 전통문화재 조각회전
통도사성보박물관 11월 23일~12월 21일

대한민국전통문화재조각회(회장 한주영, 이하 조각회)는 11월 23일부터 12월 21일까지 통도사성보박물관에서 제16회 대한민국 전통문화재조각회전을 개최한다.

전통조각의 저변을 다시 넓히기 위한 이번 전시에는 한주영, 류수관, 조병현, 한봉석 등 45명의 회원이 참여해 '아미타삼존불감', '석가모니불', '거북 모란 꽃살문' 등 불교 관련 조각과 공예 작품 등을 선보인다.

1986년 창립된 조각회는 이 같은 전통조각의 전승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전통조각을 발전시키고 문화재 보수와 재현에도 힘쓰고 있다. 생활 속에서 민족과 함께해온 뛰어난 조각품과 공예품의 보존과 전승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안고 문화재청 산하 문화재기능인협회 조각인분과 회원들이 창립했다. 2년에 한 번 씩 열고 있는 전시를 통해 전통미술의 품격을 높이고 매년 전회원이 국토를 순례하며 문화재답사(성지순례)를 진행해왔다. 또한 쉼 없는 세미나를 통해 전통미술의 가치를 조명하고 알려왔다.

한주영 회장은 "지금은 전통조각 장인들이 너무나 급변하는 현실에서 수입조각에 밀려 설 자리가 자꾸만 좁아지는 안타까운 시절입니다. 이 어려운 여건과 현실 속에서도 작품을 출품해 주신 조각회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문화재에 관련된 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박재완 기자


한주영 作, 관세음보살.





"불교 3.1운동 기념관 건립 필요"

김순석 연구위원, 불교학연구회 학술대회서 주장

불교 3.1운동 만해 스님 주도
용성 · 백초월 스님 적극 참여
선현 활동 조명할 기념관 全無
승가제도 · 근대교육 조명 발표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계 3.1운동을 조명할 수 있는 기념관 건립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순석 한국국학진흥원 수석연구위원은 11월 9일 동국대 혜화관 고순청세미나실에서 '3.1운동 이후 불교지성의 100년간의 모색' 이라는 주제로 열린 추계학술대회서 3.1운동기 한국불교의 활동을 분석하고 현창 · 계승 방안을 내놨다.

'3.1운동기 한국불교의 역동성과 현재적 반성' 을 발표한 김 연구위원은 불교계 3.1운동을 확산시킨 것은 만해 한용운 스님이며, 측면에서 적극 가담한 인물은 백용성 스님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만해 · 백용성 스님이 옥고를 치루고 있을 때 불교계 3.1운동을 이끌고 간 사람은 백초월 스님"이라고 전제했다.

김 연구위원은 "불교계는 자비와 평등, 자유와 평화를 중시하므로 만세시위나 만해 스님의 '조선독립의 서', '대한승려연합회선언서' 에서도 세계평화를 지향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서 "내가 살기 위해 타인이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불교계 3.1운동 정신을 현창 · 계승하기 위해서는 운동의 전체상을 조망할 수 있는 밑그림이 그려져야 한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그는 만해 · 백용성 스님의 재판기록, 일본 고등경찰보고서, 만세 시위 현황자료, 회고록 등을 통해 연구하며 관련 박사학위자가 배출돼야 한다고 봤다.

이와 함께 많은 승려와 교도들이 희생하며 이뤄진 3.1운동을 제대로 조명할 수 있는 기념관 건립도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불교계에 만해기념관은 몇 군데가 있지만, 3.1운동기념관은 없다"면서 "불교계 3.1운동기념관을 건립하고 찾아오는 내방객들에게 불교계 3.1운동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알게 하면 1석2조의 포교사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단에서는 유명 만화가를 통해 불교계 3.1운동을 조명하는 만화 작품을 만들게 하고, 유튜브에 관련 콘텐츠를 올려야 한다"면서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학술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 자료를 통해 검증된 사실들이 콘텐츠화 돼야 역사가 왜곡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세미나서는 승가제도와 교육을 주제로 한 연구도 발표됐다. 고상현 조계종 교육원 연수팀장은 '3.1운동 이후 승가제도와 근대 교육' 을 통해 3.1운동기의 승가조직과 교육에 대해 조명했다.

고 팀장은 "승가교육은 개화기와 대한제국기를 거치면서 새로운 근대적 교육으로의 발전을 도모했다. 내전의 불교교학 중심에서 사회와 역사를 이해하는 교육으로 변화한 것"이라면서도 "일제 강점으로 인해 근대교육이라는 것은 조선교육령에 의한 체재로의 편입을 의미한다"고 한계점을 지적했다.

이어 "일제 식민지정책에서 변환을 가져오는 3.1운동 전후에도 일제 체제에 편입하고자 하는 정책이 진행됐다. 각종학교에서 전문학교로의 승격이 이를 말해준다"며 "그럼에도 불교계는 자주적 종단 형성과 근대적 교육으로 발돋움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가 '한국불교의 근대성과 탈근대성' 을, 김성연 동국대 교수가 '3.1운동 이후 한국 불교도의 정체성' 을 각각 발표했다.

논평자로는 박수호 중앙승가대 교수, 한동민 동국대 교수, 김영진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수, 조기룡 동국대 교수가 참여했다.

홍성 상하리사지서 통일신라 금동불 확인

불교문화재연구소 14일 현장 설명회

9세기 추정 7cm 소형 불상
치미 · 막새편 등 유물도 출토
"상하리사지 위상 높았을 것"





홍성 상하리사지 발굴 전경(사진 오른쪽)과 사지서 출토된 통일신라시대 금동불입상(사진 왼쪽)의 모습.

충남 홍성의 한 사지(寺址)에서 통일신라시대 조성된 금동불입상이 출토됐다.

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제정)는 11월 14일 용봉산 자연휴양림 산림전시관에서 홍성 상하리사지 발굴조사 현장설명회를 열고 "문화재청(청장 정재숙) 지원을 받아 시행하고 있는 '홍성 상하리사지 발굴조사' 에서 9세기 전후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금동불입상이 발굴됐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발굴조사결과 중 눈길을 끈 것은 홍성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출토된 통일신라시대 금동불입상이다. 금동불입상은 7cm 소형으로 대좌와 일체형으로 제작됐으며, 출토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제작 시기는 공반 유물과 출토위치 등으로 미루어 볼 때 9세기 전후로 추정된다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청동방울편 · 치미편 · 막새편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돼 당시 상하리사지의 사격과 위상이 매우 높았음을 확인됐다.

홍성 상하리사지 발굴조사는 홍성에서 실시한 최초의 불교문화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다. 용봉산 일대는 불교문화유적이 상당수 분포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연구와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불교문화재연구소와 문화재청은 용봉산 불교유적 중 보존이 시급한 상하리사지에서 지난해부터 시굴조사를 진행했으며, 올해부터는 홍성군의 지원을 받아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했다.

홍성 상하리사지는 홍성군 용봉산 빈절골에 위치한 폐사지이며, 용봉산 정상부에서 남동쪽으로 내려오는 능선 중단부에 자리잡고 있다. 급한 경사면에 다단의 대형 석축들을 축조하여 사찰을 조영했고 사지입구에 마애불(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250호)이 조성된 독특한 형태의 산지가람이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이번 홍성 상하리사지 발굴조사는 홍성의 대표적인 불교문화 성지로 인식돼 온 용봉산에 대한 최초의 고고학적 성과"라면서 "이번 발굴조사를 시작으로 용봉산 불교문화유적에 대한 연계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불교문화재연구소는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 지난 2013년부터 전국의 (비지정)폐사지를 대상으로 '중요폐사지 발굴조사사업' 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아비달마 사상 심층적 연구서

주목! 학술서 - 카토 쥰쇼의 '경량부 연구'



논서 순정리론 · 구사론 등 분석
경량부 사상들 주제별로 살펴
검사 출신 변호사 번역 '눈길'

역사적으로 불교는 초기불교, 아비달마불교 또는 부파불교 시대를 거쳐 대승불교로 전개됐다. 하지만 한국불교에서는 아비달마 연구 전통이 없고, 도리어 소승불교로 낮췄다. 그러나 설일체유부의 유론(有論)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대승의 공론(空論)은 성립될 수 없는 만큼 아비달마 불교를 배제한 불교학은 결함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발간된 〈경량부 연구〉는 아비달마 연구의 중요한 지침서이다. 카토 쥰쇼 나고야 대학 철학과 교수의 연구서를 완역한 〈경량부 연구〉는 1989년 발간 당시에 동료 학자들로부터 "사계(斯界)의 제1인자에 의한 현시점에서의 집대성"이라는 평가를 받은 책이다.

이 책은 아비달마불교에서 대승불교로의 발전 과정 중 중요한 가교역할을 담당한 경량부의 역사와 사상을 대표적 아비달마 논서인 〈순정리론〉과 〈구사론〉을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탐색한 책이다.

〈경량부 연구〉는 2개의 장으로 나눠져 있다. '제1장 경량부의 역사' 에서는 경량부와 관계가 있다고 알려진 인물 · 책 · 전설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경량부의 역사를 구성하고 있다.

'제2장 경량부의 사상' 은 아비달마 불교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촉처(觸處) · 극미 · 낙수(樂受) · 심(心)의 구조 등 12개의 주제들에 대한 경량부의 독특한 사상들을 설일체유부의 사상과 상호 비교해 정리했다. 특히 경량부의 논사 슈릴라타의 사상을 〈순정리론〉 · 〈구사론〉과 주석서들, 기타의 논서를 이용해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저자는 '경량부' 는 서기 4세기 중반 무렵에 활약한 슈릴라타에 의해서 처음으로 사용된 명칭이며, 이는 특정 부파를 지칭하는 이름이 아니라 '유부의 3세실유설에 반대하는 자', '도리에 부합한 자', '멋있는 자' 라는 비유적 의미를 가진 것임을 설명한다. 또한 후에는 '현재유체(現在有體) · 과미무체(過未無體)' 설을 토대로 여러 주장을 펼치는 논사들이 각자 자신들의 주장에 붙인 명칭에 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역설하고 있다.

역자의 이력도 눈길이 간다. 〈경량부 연구〉의 번역자 김재현 변호사는 1986년부터 검사로 재직하며 2008년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장을 마지막으로 퇴임했다. 공직 퇴임 후에는 동국대 대학원에 진학해 불교교학을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김 변호사는 "책을 통해 경량부의 사상뿐만 아니라 설일체유부의 사상까지도 보다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량부 연구〉는 아비달마 불교의 주요 쟁점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禪, 현대사회와 어떻게 만날까

한국선학회 11월 22일 추계학술대회

선(禪)사상과 현대사회에 어떻게 접점을 이룰지 살피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선학회(회장 김방룡)는 11월 22일 오후 1시 서울 동국대 명진관 A136에서 '선사상과 현대사회' 를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선과 인접학문의 연계된 연구논문들이 발표된다. 주요 논문으로는 △진여에 대한 고찰(안유숙 동국대) △철학으로서의 선 연구(신규탁 연세대) △자연세계에 나타나는 상입과 창발의 연기(양형진 고려대) △염불선과 심리치유(김나래 동국대) △선불교와 사회참여운동(지혜경 연세대)가 발표된다. 주제발표 후에는 이병욱 고려대 강사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김방룡 한국선학회장(충남대 교수)은 "선에 기초한 인접학문과 사상뿐만 아니라 현대인의 심리적 치유와 사회참여까지 검토할 것"이라며 "선의 실제적 효용성을 살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대안 스님의
24절기 사찰밥상
㉑ 입동(立冬)
김장김치 · 무배추전 · 동치미

동안거 겨울나기 제격인 배추·무

선방의 일주문마다 걸망 하나씩 메고 걸어 들어가는 운수납자들의 발걸음을 재촉하는 입동이다.

겨울철 방부는 김장을 해야 해서 일찍 산문에 들어가야 했다. 용상방을 짜기 전에 모두 모여 본방식구들과 더불어 한 철 지낼 겨울준비를 같이 하던 시절이다. 밭에서 옮겨온 배추를 함께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무말랭이도 썰어 널고, 시래기까지 엮어 말리면 동안거가 시작된다.

지금이야 배추농사도 흔하고 물질이 많은 시절이지만 과거에는 강원 학인이나 선방 수좌들이나 수중에 돈 한 푼 지닐 겨를도 없이 앞만 보고 살던 시절이었다. 김장김치 양념도 사찰의 형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워낙 많은 김장을 준비하는 탓에 모두 갖추어 담기보다 간은 좀 세고 고춧가루는 덜 넣은 국물 많은 김치가 대부분이었다.

절집의 김장은 산중마다 이야깃거리를 품어낸다. 몇 만 포기씩 하던 그 많던 김장문화가 점점 간소화되고, 쉽게 조달되는 채소덕분에 굳이 먹을거리가 흔한 시절에 많은 김치를 한꺼번에 할 필요가 없어진 것 같다. 마을사람들과 달리 채식김치를 만드는 우리네 김치양념은 늙은 호박과 통찹쌀을 푹 고아서 표고버섯과 다시마 우린 물을 넣고, 사찰 간장으로 담그는 김치로 장김치라 부르기도 한다. 장맛이 좋으니 김치맛도 세속김치와 견주어 단연 빠지지 않는다. 김치가 발효되는 것은 쌀풀인 전분이 그 기전이다. 전분이 없으면 김치 유산균의 확산을 돕지 못하여 김치가 제대로 숙성된 맛을 내지 못한다.


배추김장김치

동치미도 지금 담가두어야 동지 때 팥죽과 더불어 맛볼 수 있는 별미다. 동치미무는 한 뼘 크기 무를 이용하여 담그는데, 무를 씻어서 물기가 있을 때 천일염에 굴린 다음 항아리에 차곡차곡 담는다. 이틀 지난 다음 소금물을 끓여서 붓는데 이때 생강과 청각, 배와 더불어 찰밥 한 공기를 베주머니에 담아 넣어두며 한 달 동안 숙성이 잘 되면 톡 쏘는 맛의 동치미를 맛볼 수 있다.

겨우내 자주 먹는 도토리묵 역시 사찰마다 묵 쑤는 분이 계실정도로 흔하게 만드는 음식이다. 도토리묵과 동치미무를 꼬치에 꽂아 행사음식으로 내어보니 반응이 좋았다. 묵은 간장양념과 항상 같이해왔기에 간장 없는 도토리묵이 생소하게 느껴지지만 막상 묵을 쑬 때 소금간을 하기 때문에 그리 싱겁지는 않다. 동치미무와 국물을 곁들인 도토리묵을 한번 해보기를 권한다.


무전 · 배추전

두부장도 이때 담그는데 두부의 물기를 짜 베주머니에 넣은 다음 된장독에 박아두었다가 3개월이 지나는 2월쯤 꺼내면 서양의 치즈처럼 매끈한 두부장이 된다. 그 짭조름한 맛은 한 번 맛보면 잊을 수 없는 입에 착 달라붙는 맛이다. 아무리 짠 두부장도 상온에 나오면 삭아서 맛이 없어진다. 1년 이상 두고 먹기보다 해마다 담아서 먹는 것이 좋다. 사실 두부장은 항아리 한독 된장을 변질시켜서 한 번 담글 때 작은 항아리에 두부주머니를 된장으로 봉합해서 넣어두는 것이 경제적이다. 김장김치를 담글 때마다 새참을 만드는데 무와 배추전을 해먹는 재미가 쏠쏠하다. 배추는 배춧대를 방망이로 살살 두드려서 부드럽게 한 다음 풀국을 묻혀 전을 지지면 된다. 무는 생무를 지지기보다 간장이 들어간 채수에 조린 다음 풀국을 만들어 지진다. 굳이 양념간장을 곁들이지 않아도 들기름과 집간장, 표고와 다시마물인 채수만으로도 맛 좋은 전이 된다.


동치미

배추김장김치

재료: 배추 1통, 무 100g, 늙은호박 100g, 고춧가루 1컵, 건고추 10개, 통찹쌀 ½컵, 건표고 10개, 다시마 20g, 청각 10g, 집간장 ½컵, 배 100g, 생강 반쪽, 소금 1T, 절임용 소금 1컵

1. 배추 밑동에 칼집을 내고 반으로 갈라 소금물에 적신 후 줄기 부분에 소금을 뿌려 알맞게 절여지면 씻어서 물기를 뺀다.
2. 찹쌀은 미리 씻어 물에 불린다.
3. 물 7컵에 표고와 다시마를 5분정도 끓이다가 건져내고 호박과 찹쌀이 퍼지도록 끓인다.
4. 건고추는 가위로 잘라 물에 불려 놓는다.
5. 무는 채썰어 놓는다.
6. 삶아놓은 호박물에 배, 건고추, 집간장, 고춧가루, 생강을 믹서에 넣고 간 다음 청각을 다져 넣고 소금으로 간을 맞춰 김치 속 양념을 만든다.
6. 버무린 김치 양념 속을 배춧잎 사이사이에 펴서 넣고 겉잎으로 감싼 후 담는다.

무전 · 배추전

재료: 다발무(소) 1개, 배춧잎 8장, 집간장 1T, 들기름 1T, 부침유(들기름2T+식용유2T), 부침옷(밀가루 1컵, 쌀가루 2T, 전분 1T, 물 ¾컵, 집간장 1T)

1. 무는 납작하게 썰어 냄비에 물 ½컵, 들기름과 집간장을 넣고 무를 차곡차곡 담는다.
2. 무가 익으면 수분이 나오므로 무가 덜 잠길 정도까지만 물을 붓고 중간불에서 뚜껑을 덮고 조린다.
3. 배춧잎은 방망이로 뻣뻣하고 두꺼운 심부분을 살살 두드려 부드럽게 만들고 너무 크면 세로로 2~3등분한다.
4. 부침옷 재료대로 부침반죽을 만든다.
5. 무와 배추에 부침옷을 입힌 뒤 팬에 부침용 기름을 두르고 부친다.

동치미

재료: 동치미무 10개, 천일염 2㎏, 청각 30g, 생강 100g, 배 2개, 찰밥 한 공기, 무청속 약간

1. 무를 씻어 물기 있을 때 천일염에 굴린 다음 항아리에 담는다.
2. 물 30L 분량에 소금을 1㎏을 넣고 소금을 녹인다.
3. 청각, 생강, 배(씨를 잘라낸다), 찰밥, 무청 속을 넣고 무가 떠오르지 않도록 산죽가지를 넣어 고정한다. 일주일후 간을 본 후 싱거우면 소금물을 더 끓여 붓는다. 짤 경우에는 맹물만 끓여서 식힌 다음 더 붓는다.



류재환의 건강 100세
⑦ 예방 접종의 필요성

'예방 접종'은 건강 유지 첩경

좋은 습관을 자동화하는 방법과 뇌를 프로그래밍 하는 요령, 방법을 숙지하고 배우면 건강하게 삶을 살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번에 성인에게 필요한 예방 접종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과거 조선시대 개화기, 일제 강점기, 6.25사변 이후 경제 개발 시기에 결핵 질환, 천연두, 뇌염, 소아마비, 홍역, 파상풍, 디프테리아, 장티푸스 등과 같은 감염성 전염질환이 많았다. 높은 유병율과 사망에 대한 과거 의학사의 여러 사례를 볼 수 있다. 이런 감염성 전염성 질환들은 각종 예방 접종과 치료약의 개발로 현 의료계에서 거의 사라져 가고 있고, 간헐적으로 발병한다고 하더라도 법정 1종, 2종 전염병의 약 개발처럼 과거의 무서운 질병은 아닌 것이 되었다.

이런 변화는 의학의 발전과 항생제 개발, 신약개발 등과 사람들의 생활수준 향상, 다양한 영양섭취 및 건강상태 호전, 더 나아가 개인 및 집단 위생 상태를 청결하게 유지하게 된 것에 의한 결과이다. 또한 상기 질병들에 대해 예방 접종을 실시한 것도 질병 퇴치에 도움이 컸다.

그럼 왜 예방 접종이 필요할까? 예방 접종은 질병을 일으키는 병균이나 그 병균이 생성한 독성물질 혹은 병균과 유사한 균을 사람의 몸속에 주입함으로써 접종된 사람이 균에 감염된 것과 같은 상태를 인위적으로 유발시키고, 병에 걸렸다 나은 후에 같은 면역성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얻어진 면역성은 사람의 몸에 예방 접종 시 사용했던 것과 같거나 유사한 병균이 몸 안에 들어오는 경우 그 효과를 발휘하여 질병을 예방하거나 혹시 병에 걸리더라도 질병의 결과를 단축시키고 증상이나 후유증을 약화시키게 된다. 결과적으로 질병의 증상 및 후유증이 심하고 사망률이 높은 질병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예방 접종 방법만 있다면 성인이나 소아를 막론하고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

우리에게 모두 필요한 예방 접종은 다음과 같다.

1) B형 간염 예방 접종

2016년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전체 간염 중 B형 간염 유병률이 86%, C형 간염 12%, A형 간염 2%이다. 서양에 비해 한국, 중국 등 동아시아 바이러스 간염자 중 B형 간염자의 유병율이 높게 나타난다.

B형 간염 예방 접종은 최초 접종, 1개월 후 2차 접종, 5개월 후 3차 접종으로 6개월 동안 3번 접종이 권장된다. 일단 B형 간염균의 만성 보균자가 되면 보균 상태를 벗어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B형 간염균 보균자의 간경화, 간암의 발생이 일반인보다 훨씬 증가하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된다. B형 간염 예방 접종 후 항체 발현율은 95%에 이른다.

개인 위생 · 청결 유지
좋은 생활습관 중요

2) 파상풍 예방 접종

파상풍은 매우 치명적인 질환으로 보고 있으며 발생건수보다 실제 발병자수는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 질환이다. 성인의 경우 과거 DTaP나 Td(성인형 파상풍 접종)를 접종한 적이 없는 경우 Td 1차 접종 후 4-8주 간격으로 2차 접종, 6-12개월 후 3차 예방 접종 실시하며 그 중 1번은 Tdip(성인용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로 그 후 지속적으로 10년에 1번씩 Td로 파상풍 추가 예방 접종하면 된다.

3) 독감 예방 접종

독감 발생률은 해마다 다르지만 수년 간격으로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질환이다. 독감은 건조하고 기온이 떨어지고 쌀쌀한 11월부터 다음 해 4월 사이에 유행하며 2월에서 3월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독감 예방 접종은 이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높은 사람들, 즉 독감 합병증이 잘 발생하는 심혈관계, 호흡기계 질환을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환자나 만성적 질환으로 입원 중이거나 요양시설에 개호 중인 사람, 65세 이상 남녀환자 등에서 주위를 요한다. 예방 접종에 따른 방어 효과는 80% 이상이고 그 효과는 약 1년 정도 지속된다.

4) 폐렴 예방 접종

우리나라 폐렴구균 발생률은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폐렴 발생 위험인자 및 악화 요인은 독감과 유사하다. 폐렴구균 예방 접종은 1회로 평생 면역을 얻게 되며, 폐렴구균이 유행 시 추가 접종도 필요할 수 있다. 시설수용자인 경우 50세 이후 예방 접종이 필요하며 성인의 경우 65세 이후 1회 접종이 권장되고 있다. 예방 접종 후 이상 반응은 접종 후 통증, 부종, 발적, 발열 등이다.

5) 대상포진 예방 접종

대상포진은 노인에게 호발할 수 있으며 포진 후 신경통이라는 합병증을 남길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예방 접종 효과는 대상포진 발병 50%, 포진 후 신경통 발생 60% 정도 감소시키는 효과로 대상포진 예방 접종 후에도 대상포진에 걸릴 수 있으나 예방 접종한 사람은 대상포진 증상이 경미하고 포진 후 신경통 강도도 훨씬 약하다.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양호한 60대에 예방 접종이 바람직하다. 예방 접종 후 효과는 최소 3년간 유지되며 길게는 5년까지로 유지된다.

6) A형 간염 예방 접종

현재 영유아 필수 예방 접종에서 제외되었으며 20~30대에 A형 간염 항체 보유율이 20% 이하로 위생 관리가 어려운 해외 지역으로 가는 경우 A형 간염 예방 접종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성인에게 필요한 예방 접종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계획된 예방 프로그램을 잘 숙지하여 전염 질환에 이환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는 것이 현재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건강 유지법 중 하나가 되겠다.

전국병원불자연합회장(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 주임교수)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73-3722 팩스 031)573-3723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숙면이 보약입니다. 특허 제10-1337352호
숲침대

숲침대의 효능 효과
① 부항과 뜸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좌욕효과가 탁월합니다.
② 신체의 전자장을 조절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쾌적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③ 요통환자와 중풍,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에 도움이 되며, 손발이 차고 저리는 분에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④ 숯에는 수많은 공기구멍이 있어 구멍 속으로 공기분자의 흐름에 진통을 일으켜 원적외선 방출합니다.
⑤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여 피로해진 눈과 어깨를 보호, 전자파를 상쇄시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⑥ 강한 원적외선 복사열이 공기 중으로 방출되므로 이불을 덮지 않아도 구들장처럼 뜨겁게 방안 구석구석의 공기를 데워줍니다.
⑦ 냄새 제거, 공기 정화, 습도 조절, 전기요금 절감, 뛰어난 영구 보존.


숯보료Q : W 15300 × D 2030 × H
숯보료SS : W 1000 × D 2000 × H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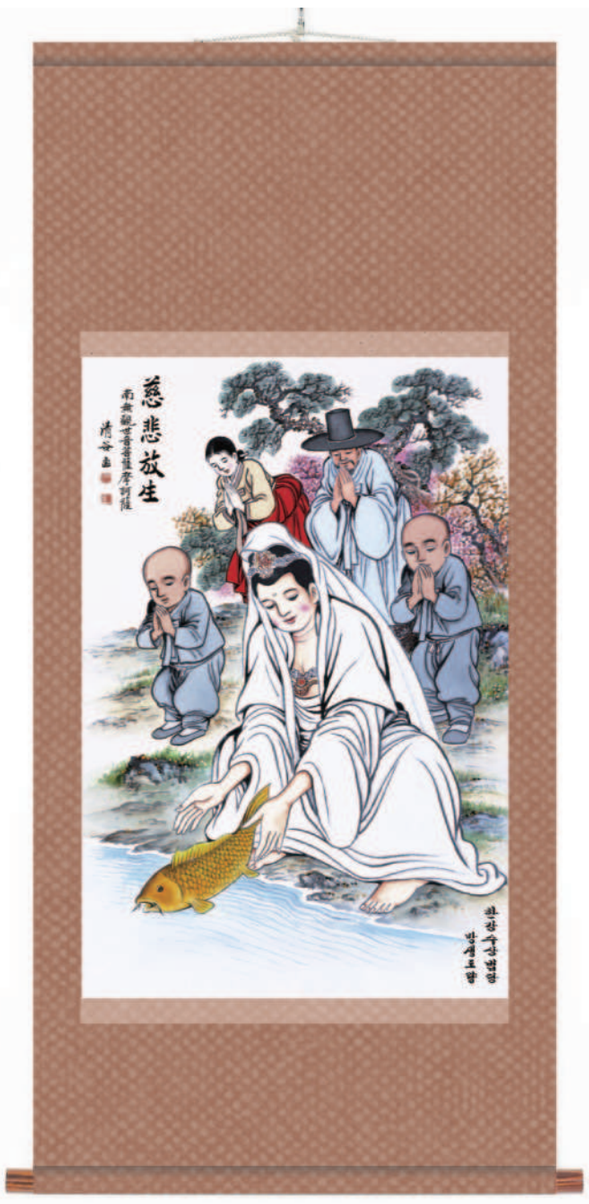
취급 품목
◆ 숯침대
◆ 숯카우치
◆ 좌훈기
◆ 족욕기

숯침대Q : ~~3,300,000~~ → 판매가 2,200,000
숯침대S : ~~2,200,000~~ → 판매가 1,480,000
카우치 : ~~2,670,000~~ → 판매가 1,780,000
평 상 : ~~2,220,000~~ → 판매가 1,480,000
보료Q : ~~2,190,000~~ → 판매가 1,460,000
보료S : ~~1,590,000~~ → 판매가 1,060,000

주소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작은넙고개1길 78
구입 및 문의 | 031-532-3277. 533-3722. 010-7171-2636. 010-3576-6802

"복과 지혜를 구하십시요"

달마도와 포대화상도, 나한도, 동자승 등 수많은 불교그림들을 그려온 청곡 이한동 화백님의 작품을 집안에 모셔두면 그림에서 발산하는 기운은 가정을 평화롭게 하고 가족의 건강과 어려운 일들을 순조롭게 풀어줄 것이며 만사가 형통할 것입니다.



1. 관세음보살



2. 16나한



3. 황룡나한 / 복호나한

길이 110㎝ 폭 54㎝ 가격 100,000원이며 두점이상 구입시 90,000원 나한도를 구입하시는 분에게는 16나한이나 18나한도의 설명서를 드립니다.

一切衆生皆有佛性 (일체중생개유)

1. 불성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자비와 방생은 불자라면 누구나 지녀야 할 기본성품이며 관세음보살께서 방생하는 모습은 사부대중 모두에게 귀감이 될 것이다.

2. 나한은 아라한의 준말이며 그 중에서도 16나한은 가장 대표적인 나한이다. 나한은 해탈과 신통력을 두루 통달하였고 더 이상 열반에 들지 않고 영생을 누리며 많은 권속나한들과 함께 세상의 여러곳에 거처하며 불법을 수호하고 중생들의 복전이 되어 줄 것이다.

3. 황룡나한과 북호나한은 16나한과 함께 18나한으로 그려지기도 하며 황금색룡을 타고 다니며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에게 복을 전해주는 황룡나한과 들어온 복을 지켜주고 삼재를 소멸하여 중생에게 수호신이 되어주는 복호나한 두분나한을 모셔두면 집안이 만사형통하여 하시는 사업과 자녀의 진학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이다.



수강생 모집

청곡 이한동 화백님의 그림을 배우고 싶으신 분은 현불샵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 거리라고 하는 서울 인사동에 미술 교육관을 개설하여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주2일 월8일 동안 그림강의를 합니다. 수강료는 월10만원이며 그림 내용은 산수화, 풍속화, 달마도, 동자승 등을 지도하며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TEL.02)2004-8216 /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